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
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1-23-2008

21세기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레포츨 선교팀을 중심으로

Byung Hak Song 송병학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송병학, "21세기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레포츨 선교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0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THE “LEPORTS” MISSIONARY TEAM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EVANGELISM IN THE 21ST CENTURY

written by

BYUNG HAK SO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Ah Young Kim

Sunil Kim

Seyoon Kim

January 23, 2008

**THE “LEPORTS” MISSIONARY TEAM AS AN
EFFECTIVE STRAGETY FOR EVANGELISM IN
THE 21ST CENTUR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BYUNG HAK SONG

JANUARY 2008

21세기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레포트 선교팀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아영 교수

송 병 학

2008년 1월

21C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 레포트선교팀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아 영 교수

송 병 학

2008년 1월

Abstract

The 'Leports' Missionary Team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Evangelism
in the 21st Century

Byung Hak Song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introduce a spiritual solution to the gradual weakening of the present-day Church which is in complete contrast to the growing influence of social and cultural post-modernism.

The reason for the stagnation and degeneration of the majority of Churches i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trong cultural aspect of post-modernism and the failure to react to it in an appropriate manner. This study argues that if spiritual perception that develops a new paradigm to conversion which understands post-modernism and also affectively responds to it, is devised then there can be no limits to the growth of the Church. This new spiritual perception of conversion is Leports Pastorate which focuses its operation through the Leports Missionary team. This paper explains why Leports Pastorate is apt for the cultural aspect of post-modernism and also, the growth that this kind of pastoral methods would bring forth in the author's Church.

For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this study, a clear understanding regarding the much discussed cultural aspect of post-modernism was required. Hence, Chapter 2 inspects the cultural aspects of post-modernism and tries to reveal why these factors have threatened the continuity of the Church and at the same time mentions the task of small group as a spiritual strategy with regard to the post modern age.

Next, Chapter 3 describes the theory and activities of the small conversion

groups as a strategy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This paper examines the methods of conversion of the Disciples Church which is said to be the most active conversion small group in Korea and moreover, has been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NCD for its activities.

Chapter 4 deals with small conversion group as a Leports Missionary team regarded as being in coherence with the present-day trend of cultural post-modernism. The chapter further explains how conversion is effective

Chapter 5 explains the full-fledged operating mechanism of the leports missionary team. it describes to what extent the effect of conversion managed by the pastor with the support of the Leports Missionary team has helped in the growth of the church, how the church environment and the attitude of the members has changed and more concretely it evaluates spiritual leports, that is, spiritual activities operated by the leisure sports missionary team. Finally, chapter 6 includes the concluding remarks regarding the thesis.

Theological Mentors: A Young Kim, D. Miss., Ph. D.

Sun Il Kim, Ph. D.

Sevoon Kim, Ph. D.

헌 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가까운 벗이요 동역자인 남편을 위해 함낱없이 기도
도와 격려로 지원해주신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감사의 글

이 기쁨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의 목회사역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주신 교회와 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자상한 웃음과 편안한 지도로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해 주셔서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도해 주신 김아영 교수님과 김선일 교수님, 그리고 김태석 박사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아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항상 후원해 주신 어머니와 영적으로 지지해 주시도록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힘을 때마다 따뜻한 위로자와 도우미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날이 갈수록 더욱 큰 기쁨을 안겨주는 아들 지홍이와 규홍이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도전과 위로와 격려와 지도로 용기와 의욕을 심어주신 동료 목사님들과 별로 도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인생의 특별한 지인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헌신하는 목사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1월 송병학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교회 7
 - 제 1 절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7
 - 1.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 7
 -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10
 - 가.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 10
 - 나. 객관적인 세계상(世界像)의 몰락 18
 - 다. 거대담론(meta-narrative)과 진리의 거절 17
 - 라. 엘트의 변화와 존지방식의 변화 : 삶의 자리로서의 사이버 스페이스 19
 - 제 2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위기 20
 - 1. 무신론 주장 21
 - 2. 역사의 부정 22
 - 3. 진리의 부정 23
 - 4. 가치와 윤리의 상대화 24
 - 5. 허무주의 25
 - 6. 사회 공동체의 붕괴 26
 - 7. 현실적 증거물에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 26
 - 8. 욕구의 변화 27
 - 가. 밀상담의 욕구 27
 - 나. 자아표현의 욕구 28

- 제 3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목회전략 30
 - 1.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승부하라 32

- 2.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 34
- 3. 세상문화에 들어가 누룩의 역할을 하라 35
- 4. 공동체를 구축하라 37
- 5. 생활 속에서 열광력을 미치는 열성을 계발하라 38
- 6. 사람을 목회 프로그램화 하라 41
- 7. 소망을 확신시키는 설교 42
- 8. 과정지향적인 지도를 실천하라 45
- 제 4 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소그룹 사역- 45
- 제 8 장 교회성장 전략으로서의 지도 소그룹 50
- 제 1 절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 고찰 50
- 1.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소그룹의 구성요소 50
- 가. 압축 51
- 나. 예비 52
- 다. 공동체적 교제 52
- 라. 지도 58
- 2. 로버트타 허스데이스의 소그룹 구성요소 58
- 3. 교회에서의 소그룹의 기능 55
- 가. 교제(Fellowship) 55
- 나. 지도력 기원(Leadership) 56
- 다. 지도(Outreach) 56
- 라. 돌봄(Caring) 57
- 마. 성경공부(Knowledge) 58
- 바. 봉사(Salt) 58
- 제 2 절 지도 소그룹을 통한 교회성장 59
- 1. 지도에 대한 오해 59
- 가. 지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59
- 나. 지도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60

- 다. 지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한번에' 하는 것이다 61
- 라. 지도는 혼자서 밀대밀로 하는 것이다 61
- 2. 지도 소그룹 5단계-계자문교회를 중심으로 62
- 가. 기도하라 62
- 나. 밀대밀 관계를 세우라 68
- 다. 전체 소그룹에서 함께 관계를 세우라 64
- 라. 초청을 준비하라 64
- 마. 목장초청관치 65
- 제 4 장 지도 소그룹으로서의 레포트 선교팀 70
- 제 1 절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화코드와 교회문화의 접목 70
- 1. 건강의 추구 70
- 2. 친밀성의 증대 71
- 3. 역동적 증거 71
- 제 2 절 국내 레포트 교회의 한계-안산 '꿈의 교회'를 중심으로 72
- 1. 레포트를 통한 불신자의 유입이 저조하다 73
- 2. 관계성 요구에 대한 부담감 74
- 3. 레포트교회 기념을 통해서 새안산교회가 누린 효과 74
- 제 3 절 지도 방향의 전환-레포트 선교팀 75
- 제 5 장 레포트 선교팀의 운영과 교회의 변화 78
- 제 1 절 목회자의 강력한 확신과 미전제시 78
- 제 2 절 레포트 선교팀의 조직 81
- 1. 기존 동교회 조직의 경미 81
- 2. 특별위원회 구성과 레포트선교팀의 결성 82
- 3. 예산 편성 83
- 4. 교회의 지원 규정 84
- 제 3 절 레포트 선교팀의 활동과 미래적 전망 85

- 1. 현지 활동상황 85
- 2. 미래적 전망과 계획 86
- 3. 레포트 선교팀을 통한 지도전략의 핵심 포인트 88
 - 가. 증거온 레포트 경험과 더불어 지도마인드가 중요하다 88
 - 나. 레포트 현장에서의 과정적 관계 형성 88
 - 다. 교리설 명식 지도자제 89
 - 라. 목사와 친히지게 만들어라 90
 - 마.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라 91
 - 바. 정적인 소그룹도 만들어라 92
- 4. 레포트 선교팀을 통한 지도의 성과 95
- 제 4 절 레포트 선교팀을 통한 교회의 내적인 변화 97
 - 1. 교인으로서의 자부심 강화 97
 - 2. 연합 레포트활동으로 드리는 총동원 지도역비 98
 - 3. 방관형 교인들을 교회생활로 유도 101
 - 4. 목사에 대한 친밀감 및 유대감 강화 102
- 제 5 절 레포트선교팀을 통한 목회적 활동의 평가 108
 - 1. 장점 104
 - 2. 주의할 점 105
- 제 6 장 결론 107
- 부록 110
- 참고문헌 188
- Vita 1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십여 년 동안 기독교 서점가에는 두 종류의 책들이 목회자들의 관심을 끌 어 왔다. 하나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회의 위기를 분석한 책들이요, 또 다른 하나 는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성장의 핵심적 전략으로서의 소그룹-셀그룹, 암파, G-12, D-12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었다.

상이하거 보이는 이 두 종류의 책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상하리만큼 서로 닮아 있음을 보게 된다. 현실적으로 서구세계 및 한국교회는 미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며, 아울러 전통적인 교회성장의 방법만 가지고는 이미 교회 의 성장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유럽의 적지 많은 교회들이 이미 지속적 인 교회성장의 해법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현대 교회들이 자꾸 들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 답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기독교 공동 작업한 '2005 한미준-한국 기독 리서치'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먼저 교회 내적인 문제이다.

최근 10년간 한국 기신교인의 교회생활 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대도시에 있는 교회의 경우 지적수의 50퍼센트 정도가 출석하 고 있다는 밀접적인 통계와 비교해 볼 때에 40퍼센트 가까운 교 인들은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예배출석은 아주 저조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석보다 결석이 더 많은 교인

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다.¹⁾

두 번째로는 교회 외적인 문제이다. '2005 한미준-한국갤럽 리서치'는 미종교인들을 통해 본 종교별 이미지 평가에서 기신교의 경우 교세 확장, 헌금 강요, 종교 지도자의 자질, 영적 문제 허담 저공 등에서 모두 불교와 천주교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²⁾

특히 기신교에 대한 미종교인들의 불만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인근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지 물어본 결과, 84.6퍼센트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미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활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 그러나 미기신교인들이 인근 교회에 갖고 있는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없다'가 0.8퍼센트여 불과하고 '모름/무응답'이 87.8 퍼센트로 특별히 불만/불편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조사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만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그 어떤 타종교보다 대사회적 선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부정적 이미지가 큰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일부 소수교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들이 미스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 의해 널리 확산,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둘째는 지역 교회가 자신이 하고 있는 좋은 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기업에서도 저조 자체보다 브랜드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중요시한다. 바야흐로 현대의 기업은 모든 분야에서 이미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가 좋으면 매출도 늘고 순이익이 증가하듯, 한국교회도 이미지로 주도하고, 이미지로 부흥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⁵⁾

1)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리포트* (서울: 두산노서원, 2006), 27.

2) Ibid., 44.

3) Ibid.

4) Ibid.

5) Ibid., 45.

교회 조사에 관한 이러한 자료는 다음의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착시효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역비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출석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둘째, 교외에 대한 소속의식이 줄어들면서 출석자들은 그저 출석만 할 뿐 교인으로 등록하려고 하지 않으며, 나이가 출석하지 않는세대도 교적에 올라있던 이념적인 교인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셋째, 정기적인 출석자들도 과거보다 출석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⁶⁾ 넷째, 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뻐하고 실천해오던 정도의 방법이 이제 더 이상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대한 이유는 대개 시대적인 사상의 흐름과 추세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보다 우려되는 사실은 대다수의 현대 교회들이 이러한 시대적 경조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에디 깁스(Eddie Gibbs)는 이러한 현상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문화를 지구성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하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약화되고 무너지는 경조들을 보고 있다.'⁷⁾

그렇다면 에디 깁스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현상이다. 획일화와 합리주의가 지배하던 모더니즘이 지는 허저럼 사라지고 바야흐로 떠오르는 허저럼 현대세계를 미추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다양성속에서 기성 넘치는 행복을 추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도 다양해져서 이제는 동서양의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들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문화적 코드 속에서 당연하게 용인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사람들은 동적(動的)인 이슈로서 건강, 즐거움, 친밀성, 행복 등을 추구하는 한편, 정적(靜的)인 이슈로서 의미성, 성취감, 만족감 등을 각각의 기성 넘치는 기호 속에서 다양한 통로들 통해 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려는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 있으며, 역동성을 상실한 권부한 모임만이 있는 곳이며, 세상의 문화들 마귀 문화라 단죄하는 곳이며, 나이가 기인의 행복과 유익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6) Eddie Gibbs, *NEXT CHURCH: 미래목회의 9가지 드림드*,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원, 2004), 14.

7) Ibid., 16.

지 교회를 대형화시키려는 이기적 이슈들을 위해 희생의 감수를 요구하는 막대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뭉치를 더러가는 교회들은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보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교회들은 흥미 없는 교리설명식 구역집회를 고집하고 있으며, 역동성을 상실한 지루한 예배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쳐다보는 거리적도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새 신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방식으로 교회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래적 전망을 밝게 가질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지혜로운 목회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화적 코드 안에서 사람들에게 육체적, 영적인 행복의 통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교인들의 즐겁고 건강한 삶을 다양한 방법의 제시를 통해 도와주는 열린 목회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문화들 기원하는 일과 밀접상통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이전 친밀성이 회복되는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그룹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소그룹을 이용한 이웃과의 적극적인 관계형성을 유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전도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기원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본고는 포스트모던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친밀성, 건강과 행복추구 등과 같은 시대적 이슈들을 기독교가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지혜롭게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한 주거음과 보람있는 의미성들을 찾아내어 현대인을 행복함으로 인도해주는 기독교문화의 한 모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고민하려고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대의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뭉치에 처한 현대 교회로 하여금 각급의 뭉치를 극복하게 하는 한편, 나아가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이루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려는 취지에서 쓰였으며, 그 가능성을 현대 문화의 코드를 능숙하게 읽고 대응하는 열린 목회적 자세에서 추진해 나가는 소그룹 사역과, 소그룹 사역의 일환으로써 레포즈 선교팀의 효과적인 전도활동에서 부분적으로 참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문의 이론적 전거에 있어서 현대사회의 문화담론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전이해를 간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원한 학문적인 주제이므로 본고는 다만,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목회적 기수와 자세를 기원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2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인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왜 현대 교회가 존속을 고민하게 될 정도로 뭉치를 가져 왔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한 교회의 효과적인 목회전략은 곧 새로운 세력다임의 한 형태로서의 소그룹 사역임을 지적하려고 한다.

이어서 3장은 교회성장 전략으로써의 전도 소그룹의 이론 및 실제적인 활동방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교회 중 가장 건강한 전도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NCD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제자를 교회의 소그룹 전도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4장부터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코드와 가장 잘 맞는다고 여겨지는 레포즈 선교팀을 통한 전도 소그룹에 대해 설명하게 되는데, 왜 레포즈 선교팀을 통한 전도가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레포즈 선교팀의 운영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여기서는 레포즈 선교팀에 대한 지원과 목회적인 운영을 통해 얼마만큼의 전도 효과를 거두고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레포즈 선

교단을 통한 목회적 활동들-리포즈목회-을 평가하면서, 6장에서 전체 논문이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제 2 장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 교회

본 장에서는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을 살펴며,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교회가 경험하는 위기들을 알아보고,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효과적인 목회전략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의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소그룹 사역임을 밝히려고 한다.

제 1 절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용어 사용은 문맥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론적인 연구가 목적이 아니며, 단지 현대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배경과 특징을 간략하게 짚어 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1.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포스트모던'이란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던은 글자 그대로 모던, 즉 근대화 관련된 말이다. 근대란 대략 16세기 이후의 과학 기술과 계몽사상에 근거한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양식이 지배하는 시대를 말한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던이란 이차 과학과 이성으로 특징지어진 근대를 떠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포스트모던을 '탈-근대'로 번역하는 이유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인데, 전자가 주로 사상적 경향을 지시하는 말이라면, 후자는 그 사조가 지배하는 시대를 의미한다.⁸⁾ 사실상 이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흐름중 하나로써 문화화 원리, 신학, 그리고 대중적인 생활양식의 등 사회적변에 걸쳐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용어가 등장한 것은 스페인 작가 오니스(Federico de Onis)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소설* 중에서 예술 분야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약간의 반발 경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⁹⁾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처음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출현을 밝혀낸 사람은 역사가자인 아돌프 토인비 경이었다. 1940년대에 토인비는 세계문명의 등장과 몰락에 관한 권위있는 연구에 착수했는데, 역사와 당대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토인비의 통찰력은 놀라울 만치 예언적인 것이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및 냉전의 서막이 시작되는 동시대를 보면서, 서구 문명의 퇴조와 중산층 부르주아의 몰락, 합리적 세계관의 토대상실로 서구와 대서양(大西洋)권의 지위로 특징지어지는 모던의 시기가 동양과 태평양(太平洋)권 부상에 의해 새로운 시기로 옮겨가고 있다며 다분히 예언적이고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를 예언하였다.¹⁰⁾ 전쟁을 통해 나타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망과 수치, 그리고 이국심을 부추기던 정부의 권위주의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 등이 다가 올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인 길을 열어 준 것은 니체사상이다. 니체철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바, 그는 권리인식의 근원이요 윤리규범의 준거였던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모든 근원을 해체하여 허무주의의 환관을 놓았다. 이러한 니체의 무신론은 반인간주의적, 부정적 허무주의와 파괴적 냉소주의, 그리고 미합리주의를 낳게 된다.¹¹⁾

이제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1960년대에 예술, 건축, 사상의 영역에서 나타난 반(反)-근대 작업에서다. 어떤 문학 평론가는 모더니즘의

8) 신국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합회, 2002), 13.

9) Craik Van Gelder, "Postmodernism as an Emerging Worldvi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1991), 412.

10) 참고, Mark C. Taylor, *Errand: A Postmodern s/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25-26.

11) 최정음,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론," *포럼역사문화연구* (1994), 81.

대부인 엘리엇(T. S. Eliot)이 죽은 해인 1965년을 포스트모던의 기점으로 제시한다.¹²⁾

건축가인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프루이트 이고(Pruitt-Igoe) 주택 단지의 폭파 해체시간인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32분을 그 기점으로 잡기도 한다.¹³⁾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의 대학가에서 벌어진 밀턴의 사건을 그 실마리로 본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대학들에서 베트남 전쟁을 거부하며 일어났던 반전 데모가 한 가지 예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이들은 특히 프랑스에서 학생 운동으로 파리의 대학이 점거되었던 1968년을 기점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확산되었던 점을 지적한다. 이와 비슷하게,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는 1965년 당시의 강력 한 반-문화 운동을 포스트모던이라고 부른다. 이런 대학가의 운동은 전 세계 지성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이 급진적으로 변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 근대 세계의 해체가 가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⁴⁾

그 외에도 동구 공산권의 자유화 운동이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당시 서구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나 공산권에서는 역설적으로 붕괴의 징후가 미쳤다. 그것이 바로 소련군의 체코 침공, '프라하의 봄' 사건이다. 그리고 90년대의 베를린 장벽 붕괴사건도 결국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모던으로의 전환점을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국인 아우슈비츠 학살 사건, 또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보는 지적도 있다.¹⁵⁾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어휘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의 말이다. 그것은 건축에서 시작해서 문학비평과 철학을 거쳐 문화화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었다. 문학 비평가나 문화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점차 새로운 문학과 문화의 추세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말은 한층 빠른 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했다.¹⁶⁾

12) Jerome Mazzaro, *Postmodern American Poetr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0), 8.

13) 신국민, *포스트모더니즘*, 15.

14) Ibid.

15) Ibid., 16.

16) Gene Edward Veith, Jr. *POSTMODERN TIMES: A Christian Guide to Contemporary Thought and Culture* (Wheaton: Crossway Books, 1994), 236.

이렇게 볼 때,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사조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문제보다는 어떠한 역사적 원인과 배경 하에서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전체적 문화 현상으로 이해된 포스트모더니즘을 파악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고 보여진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 세계가 근거로 삼고 있는 유희적인 기초를 거부하고 파괴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은 부정적인 표현이 더 어울려 보인다. 계몽주의 이후 근대 세계는 인식의 주체로서 자아를 강조하고, 이 세계의 객관성을 전제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합리성과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한 근대 세계의 확신을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관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가.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

사고하고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확신은 근대 세계를 출현시킨 근본적인 토대들 이루고 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세계의 토대들 이루고 있는 자아에 대한 확신을 문제 삼는다. 자아는 세계와 대립된, 세계를 초월한 주체로서 세계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인식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자아는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중세기에 유지되었던 신의 존재와 권위에 대한 비판이 근대 세계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듯이, 자아에 대한 근대의 확신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모던 세계의 출현과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¹⁸⁾

데카르트에서 시작하여 칸트를 통해 완전되고 폐허화와 허물로 이어지는 근대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사고하는 주체로서 세계를 그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고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당연히 지식의 참됨을 보증하며, 진리의 확실성에 대한 최후의 관점자 역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고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자아는 자기

17)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0), 75.

18) Ibid., 76.

이외의 모든 것을 인식과 지식의 대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근대이후의 믿음과 신화를 거부한다. 그래서 자아의 확실성으로부터 모든 지식의 가능성을 주장한 근대 이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관점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데카르트 이후의 관점에 따르면, 자아는 세계를 초월한 위치에 있어서 이 세계를 객관화할 수 있고 이 세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를 초월한 세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저하게 세계 안에서 세계의 영합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²⁰⁾

이로써 인간의 이성은 쉼 자리를 잃게 되었다. 건강한 이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갖게 된 근대 이후의 인류 문화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포스트모던 세계에서는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포스트모던 인간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1) 혼란점

자아에 대한 확신으로 스스로를 신격화 시킨 만큼 당당하던 믿음이 무너지면서, 포스트모던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인간 서로에게로부터,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가기 시작한다. 이는 깊은 소외감이며, 군중 속에서 또는 파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포스트모던 인간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며, 미관적 허무주의에 접근해 들어가게 된다. 사회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의 몰타이며 지속적으로 실패함에 따른 신뢰의 붕괴이다.²¹⁾

(2) 인생의 의미에 대한 회의

근대이후로 모더니즘의 영합을 받는 사회에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 자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면 타당한 확고

19)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77.

20) Ibid., 77.

21) Michael Green, *알부르스파의 만남 그 이후 (After Abbas)*, 유영국 역 (서로사랑, 2004), 295.

한 신념체계가 허체되고 무너지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은 더 이상 그들의 희망을 담보할 가르침과 공간을 잃어 버렸다. 이전에 믿어 오던 세계관이 깨지고 인생관이 와해되는 시대 속에서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은 또 다른 세계관 및 인생관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인간 자아는 더 이상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파생적 존재이다. 인간의 말도 자아나 기인의 주체화는 독립되어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이 관계의 그물 속에서만 그 의미를 지닌다. 즉 인간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화 역사화의 담론과 권력관계에 의해서 그 의미와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의 부산물이 되어 버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주체성 비판의 사고는 주체의 죽음, 자아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반영이다. 이제 모더니즘 시대의 유산인 자아경체성과 자아중심주의는 하나의 신화가 되어 버렸다.²²⁾ 그 결과, 인간의 정신세계(주체적 자아의식으로서의 이성)에 대한 믿음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종말을 고했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상실된 자아의 허전함을 달리기 위해 프로이트(G. Freud)의 무의식(Libido)의 이론을 도입하여 이성적 자아가 아닌, 욕망적 자아를 중시하게 된다.²³⁾ 그리고 이 욕망적 자아는 필연적으로 육체로 그 관심을 돌려 육체의 가치를 정신보다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세대들에게서 보이는 감정적, 감성적, 함락적 문화구조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여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힘과 구조속에 함몰되어 버린다. 더 이상 인간은 데카르트의 명제인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생각되어지는 존재'로 격하되어 버린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던 인생의 의미는 이제 필저히 부인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허체되어 버린 자아의 모습은 소미적이고 감각적이고 함락적인 인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인간관은 '절망적 회담주의', 혼돈과 무질서의 주체 없는 주관주의다.²⁴⁾

22) 김명환,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신학』, 무명무심학, 1992년 8월호, 86.

23) 정광식,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무명무심학, 1994년 3월호, 176.

24) 최정음,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론』, 87.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는 저들의 함락적 퇴색성을 비난하고 경계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심층 깊숙이 내지된 저들의 불안감을 위로하고 소망을 선물하기 위해서 저들의 문화속으로 들어 가서,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저들의 손을 잡아 주는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객관적인 세계상의 몰락

근대이후로 인간들은 이성을 활용하여 세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지닐 수 있으며, 그 지식을 이용하여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이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상에 대한 관점을 거부한다. 객관적인 세계상을 거부하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하여 힘 권리와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결정된 것과 확정된 것은 이 세계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의 추진자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상가들이 거론된다. 갈브레이스(Galbreith)라는 경제학자는 2차 대전 이후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규정하였고, 과학자인 덴마크의 하이젠베르크(Heisenberg)는 '불확실성의 원리'를, 쿠르트 괴델은 '불완전성의 증거'를,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의 원리'를, 토마의 폰은 '괴리다임'을, 존 화이트 아벤트는 '과학의 다다이즘' 등의 이론을 들고 나와서 뉴턴의 물리학이나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확실하다고 증명했던 근대과학의 결정성과 확정성의 사고방식을 깨뜨렸다.²⁵⁾

오늘날 지구촌 상황에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실재, 모든 인간의 관심사를 하나로 묶어 주는 보편타당한 세계관 및 힘 권리란 없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 각기 자신들이 경험한 세계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²⁶⁾ 이제 우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실재들'로 구성된 다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언어와 경험이 다른 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신념과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세계의 실상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25) 김명환, 『현대철학과 탈현대적 흐름』, 무명무심학, 1991년 7월호, 97.

26)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80.

이 부분에서 갖게 되는 논의의 핵심은 근대적 인식론과 존재론, 그리고 윤리 토대의 상실, 다시 말해서 권리와 도덕의 문제에서 공통적 토대, 또는 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는 다양성이 역목이 되어, 모두가 자신의 범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분위기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지류를 발견하게 된다.

(1)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설명한 불확정성과 미결정성의 논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장이 바로 다원성과 상대성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화적 특징 중 한 가지는 한 국가, 지역, 사회 내에 다양한 세계관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이 다양한 환경과 시각 속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과 정신적 안목에 따라 세계관과 문화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가 이 시대의 특징인 것이다. 넓은 의미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 토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서속사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다. 그것은 공동체가 어떤 의미에서건 믿음이나 행위의 경형을 공인하거나 지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 신앙을 절대적 진리로써 고백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무식과 교만과 독선으로 여겨 금기시한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진리에 호소하거나 양식 또는 양심에 호소하는 전통적인 복음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²⁷⁾

이 시대문화는 따라서 어떤 제약도 없이 상대적인 가치관이 존중받으면서 이전에는 전혀 보편적 가치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들-역미니즘, 동성애, 마약, 전위예술, 성의 해방 등-이 대중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2) 개인주의 성향

이 시대를 특징짓는 소위 대중문화의 부상은 '젊은 신세대'의 출현과 맞물려 있

27) 신국일, *포스트모더니즘*, 29.

다. 신세대란 미국의 'X세대'나 일본의 '신인류',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N세대'와 같이 경제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성장한 세대를 말한다. 바로 이 신세대가 대중문화의 주역이요 주된 소비자이다. 또 이들은 문자 미치보다 영상 미치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영상 세대라고도 불린다. 현대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칼라 TV와 컴퓨터 화면, 그리고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와 교양적 지식과 오락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영상문화의 시대이다. 이러한 영상중심의 문화생활은 사람들을 감정중심적, 기성 및 감성지향적, 자유로운 자기표현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변화시켰는데, 특히나 이들에게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들은 '내 감각대로, 내 기성대로,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대로써 기성과 다양성이 이들의 주권심사이다. 이들은 데카르트의 말처럼 '생각하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소위 '끼'로 존재하는 세대이다. 과학과 이념 중심을 벗어나 개인의 기성적인 감성이 중시되는 것이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이며, 신세대의 감성 중심적 문화는 바로 포스트모던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더욱이 이러한 감성 중심의 문화는 교육학계에도 새로운 열광력을 발휘하여, 과거의 이성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감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IQ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감성 지수인 EQ까지도 학교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세대들에게 과연 전통적인 교회성장의 방식인 대중적도 집회와 같은 방법이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유효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롭고 창의적인 교회성장 및 리더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오늘날 교회 앞에 주어지게 된다.

(3) 경협의 중시

모더니즘은 주로 고독과 무관심, 그리고 형식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원천적 행위와 참여를 강조하면서, 창조적인 참여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그 경협의 공유를 매우 중요시한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포스트모던 예술작품에서 많이 보

28) 신국일, *포스트모더니즘*, 119.

이는데, 여기서는 주어진 텍스트를 누가 읽는 것이 아니다. 저자와 독자, 배우와 관객이 서로 구별 없이 같이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한다. 예술은 시간, 죽음, 청중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이 예술은 독자나 관객으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참여하여,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불확실성에 기초한 포스트모던 텍스트는 언어나 참여와 행위를 유도한다. 예술작품의 텍스트는 늘 새롭게 쓰이고 수정되고 답변되어지고 연출되어지기를 원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는 구조나 작품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며, 존재와 의미보다는 작용이 중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유롭고 가벼운 임의성과 우연성 그리고 오답성은 지금까지 모더니즘이 형식을 통해 추구해 온 질서나 조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밀접성이나 보편성에 대한 밀접의 반작용이다. 이 특징은 예술이 영원불변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이며 가변적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²⁹⁾

바로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모던 사회의 신세대는 과정으로써의 현실을 중요시한다. '현실'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쓰이고 있는 오늘의 삶속에서, 항권자나 추종자가 아닌, 참여자와 행위자로써 포스트모던 신세대들은 수많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보여주는 자와 보는 자가 서로 구별 없이, 창조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서로 공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상호소통과 경험과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시키면서 교회성장의 활판으로 삼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목회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헤체주의, 또는 파편화

이 단어는 구성 또는 건설이라는 의미의 컨스트럭션(construction)에 부정의 의미가 담긴 데라는 접두어를 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이것은 단지 파편을 의미하는 디스트럭션(destruction)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구조물을 구성 원리로부터 헤체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원지하게 풀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³⁰⁾ 이처럼 포스트

29) 김복동, *이탈 환산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정의를 위하여 :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442-448 보라.

30) 김명환, *21세기와 개혁신학 : 포스트모더니즘과 개혁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998), 111.

모더니즘은 총체성, 전체화의 조화, 통합 및 종합을 거부한다. 이 현상이 파편화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합보다는 단절, 질서보다는 혼돈, 총체성이나 종합보다는 헤체나 분리를 더 중시한다.

이와는 반대로 근대는 이성적 지구성의 시대였다. 그것은 이성이 중심이 되어 중세 세계관의 붕괴에 따른 질서의 분열을 극복하며 세계를 지구성하는 건설 기획이었다. 반면 포스트모던의 헤체는 근대의 이성적 구성을 원어 내는 것이다.³¹⁾

시대 구분으로서의 포스트모던도 근대의 헤체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말을 역사상 시대 구분에 처음 사용한 아놀드 토인비에 가서 찾을 수 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은 그 말기에 밀접의 자포자기 현상을 보이며 창조력을 잃고 도피주의와 망황에 빠진다고 했다. 또 무엇이고 무분별하게 용인하는 혼란주의와 무비판적 관용에 젖어든다고 말한다. 그런 사회의 특징은 구심점 상실, 불안, 미이성적 자세와 파편화이다. 토인비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동구권의 헤체에서 잘 예시되었다.³²⁾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헤체이나 마르크스처럼 역사와 사회과정에 대해 전체화하려는 시도는 망상이라고 본다. 이들은 총체성을 거부하면서 언어게임, 다변화하는 시간, 인간의 주관, 사회에 대한 파편화를 강조한다. 그것은 역사적인 '아방가르드 운동'(Avant-Garde)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아방가르드는 통일의 헤체를 원했고, 작품의 연속성과 자유성을 고의로 의문시하거나 항법적으로 파괴하고자 했다.³³⁾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파편화된 이미지를 속에서 이들의 결합을 통한 하나의 의미를 지구성하기보다는 단절시키고, 질서보다는 혼돈을, 총체성이나 종합보다는 헤체나 분리를 더 추구하고 있다.

다. 거대 담론(meta-narrative)과 질리의 거절

거대 담론이란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전체적 구조를 짜는 사상적 체계인데 이에 대한 불신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으로 드러난다.³⁴⁾ 예컨대 세계는 이 세계에 대한

31) 신국민, *포스트모더니즘*, 132.

32) Arnold Toynbee, *역사의 연구 II (A Study of The History)*, 김기원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9), 256-257에서 인용.

33) 김명환, *21세기와 개혁신학 : 포스트모더니즘과 개혁신학*, 112.

34)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82.

객관적인 지식의 가능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건설되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나 문화를 지배하는 거대담론은 언제나 존재했다. 하나의 거대담론-음대한 이야기, 신화일수도 있다-이 힘이 다하면 새로운 거대담론이 역전에 힘을 행사했던 이야기를 대체했을 뿐, 인류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기준이 되는 이 음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모던 세계는 근대이후로 인간의 희망과 잠재력, 그리고 그 절을 통한 미래적 가능성을 설교하는 거대담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현대의 신화-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도 전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은 지금까지 표준으로 여겨져 온 갖가지 주장이나 가치가, 사실은 지식과 힘의 행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 해 온 지배계층이나 집단의 관점이었음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진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이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객관화된 진리의 보편타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아가서 포스트모더니즘이 평가하는 진리라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지배자나 집단, 또는 사회가 자신들의 지배논리를 정당화하여 타인 및 다른 사회를 다스리는 억압의 논리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주의, 계국주의, 기독교적 관점, 그리고 나치즘에서 관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억압적 거대담론이 진리로 강요되어 세계 대전과 같은 비극적 역사의 현실을 양산해 내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의 상징인 이 같은 거대담론에 대한 거절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서양, 희인, 남성, 필살, 성직자, 성역화된 권위적 기독교의 관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운동, 환경운동, 포스트 식민주의 등은 직접, 간접으로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³⁶⁾

이제까지 근대사회 이후로 기독교가 이성 만능주의, 과학에 입각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대담론에 맞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했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어떤 거대담론도 신뢰하지 않는 세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36) 이문규,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82.

것이다. 더욱이 권위의 상징인 교회와 성직자의 설교를 신경질적으로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함의해 말이다.

라. 영토의 변화와 존재 방식의 변화: 삶의 자리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이어왔으려고 하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 및 IT분야다. 초기 IT혁명은 80년대를 전후해 발생한 컴퓨팅 혁명으로 대표된다. 2단계 IT혁명은 네트워크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회구석구석에 확산된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정보공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3단계 IT혁명은 전자 공간 속에 들어갈 내용, 곧 콘텐츠를 창출했다. 디지털 경제, 전자정부 서비스·원격교육·인터넷 방송·전자도서관·가상공동체 등의 출현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가 등장하고 지적재산권 제도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디지털 경제와 사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4단계 IT혁명은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을 융합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제 3의 공간을 창출하는 단계다. 냉장고, TV, 오디오세트, 청소기, 주방세트 등 가정의 전자 제품들뿐만 아니라 목욕탕, 거실, 지붕, 도로, 가로 등까지도 지능화, 정보화, 인터넷화된다. 초소형 컴퓨터와 휴대폰이 초고속 무선 인터넷과 결합하고 수백 메가톤급의 전송속도를 낼 수 있는 초고속 홈네트워크 시대가 온다.³⁷⁾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의 팔목할만한 발달은 인간의 삶과 존재방식마저도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지구촌의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및 IT기술에 아주 익숙한 세대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관계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이 신세대를 가리켜 'N세대'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존재방식의 자리인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중 자아경제

36) IT(information technology)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정보통신 용어. 정보기술은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미디어·정보통신·행정통신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무형기술을 아우르는, 즉 간접적인 가치 창출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따라서 업무용 데이터, 음성 대화, 사진, 동영상, 멀티미디어는 물론, 아직 실현하지 않은 형태의 대체까지 포함하며, 정보를 개발·저장·교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37) 하원규, 김동환, 최남희, '21세기 아젠다: 제 3공간의 등장과 전자공간의 역사,' *BT News* 전자신문.

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우선 가상성(virtual reality)을 들 수 있다.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버추얼 리얼리티-아바타-를 만들어 내는데 그들은 성별조차도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육체가 목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이 공간은 전자적 공간이므로 육체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컴퓨터 앞의 인간은 컴퓨터 '안' 혹은 '뒤'의 '자신'에 접속되어 그곳의 가상공간을 통한 경험, 모험, 흥분, 욕망 등을 본인의 것으로 갖게 된다.³⁸⁾

이런 가상 공동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한다. 그것은 익명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절친하기도 한 가상적 현실이다. 그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정보와 증거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다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관심에 따라 새로운 자아를 표현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역할이 어느 정도 한 경되어 있는 상황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육체의 구속성이 없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또한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통해 주체를 구성한다. 실제 공동체라는 개념은 구성원들의 고정되고 안정된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데, 인터넷상의 공동체들은 이런 전제를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분리하고 격리하는 사회적 인습에 구애받지 않고 낯선 사람과 접속한다. 성, 나이,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거의 금기 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쉽게 친분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성 및 다중인격성, 그리고 다양한 자아의 표현방식 등은 포스트모더니즘 신세대로 하여금 이전에 교회에서 해왔던, 도그마의 단조로운 주입식 교육이나 확립적이고 밀합적이며 구속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도무지 참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제 2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위기

모더니즘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역반응으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존재 및 도그마에 대해서, 나아가 교회가 주장하는 모든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 지배구조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오늘날 교

38) Gibbs, *NEXT CHURCH: 21세기 교회의 9가지 드림*, 29.

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기들을 안겨 주고 있다.³⁹⁾

1. 무신론 주장

모더니즘 세계관의 신관(神觀)은 무신론(無神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에서도 신관은 무신론이 주류를 이루긴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즉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신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신론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신도 절대성, 독점적인 권위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범신론이나 자연주의적 유신론(범지신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종교적 신론이 있어서도 상대주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이다.

범신론에서 신은 초월자가 아니다. 세계 자체가 신의 몸이며 세계정신이 신의 정신이다. 신은 무시간적이며 언제나 전체적인 하나이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명상과 합일의 관계이다. 개별적 사물에 대한 분별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신'이며 '모든 것이 하나'라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신인합일의식을 가지는 것이 곧 해답이며 구원이다.

자연주의적 유신론으로서의 범지신론은 곧 과정 신학의 신관이다. 여기서 신은 우주의 영혼이며, 전 포괄적인 경험의 밑거름이고, 우주들 밑거름으로 만드는 작용자이다. 그 신과 세계의 기본적인 관계는 자연적인 실재의 모습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관계는 신의 의지에 근거한 독단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창조력은 그 신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유한한 존재들에게 대등하게 있다. 그 신은 모든 유한한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신이 홀로 전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들은 선행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므로 신이 우주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의 창조적이고 비타적인 전능성은 무제한적이지 않은 것이다. 신은 독점하고 있지 않으며 독점할 수도 없게 된다.

이처럼 과정적 세계관이 긍정됨에 따라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와 동양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두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신인합일의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 뉴에이지

39) 김명환, *21세기와 개혁신학: 포스트모던 신학과 개혁신학*, 88-94에서 요약.

40) 김명환, *포스트모던 신학과 한국신학*, 113-114.

운동이 번성하게 되었다. 뉴에이지 사상은 신관에 있어서 범신론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비롯되는 다원주의와 범신론은 기독교 신관과 권리관과 구원관의 유일성을 포기하도록 저술 도전을 하고 있다.⁴¹⁾

포스트모더니즘의 신관은 세속주의를 낳는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자율성(Homo Autonomus)을 우상화, 절대화하는 것이다.⁴²⁾ 세속주의는 무신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 사람을 앉혀 놓는다. 물질이 윤리적 판단기준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허무주의 세계관과 세속주의 세계관은 이 시대의 모든 절망과 미미와 고독의 원인이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의 자리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하루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역사의 부정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서구적인 역사 개념을 허차한다. 이제까지의 역사는 이성적 질서 속에 구성되어 희망찬 미래를 함하여 제기되는 로고스 중심적인 세계관속에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서구의 로고스적 사고는 역사의 과정이 이성과 질서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로고스적 역사 이해를 대신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복잡성화의 역사이해를 제시한다. 여기서 역사는 더 이상 문자적이 아니라 문학적이다. 아리아드네의 뿔줄처럼 미궁에서 빠져 나오는 상상적인 언어의 구상(構想)이다.⁴³⁾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주의는 과거 모든 양식의 무작위적 조립, 무작위적 문체 언급의 유희를 말한다. 이러한 역사주의에 의한 역사의 말소는 역사성의 뒤희를 의미한다.⁴⁴⁾ 이 이 역사성의 뒤희는 의미사수의 화해로 인해 초래되고 의미사수의 붕괴는 시간성의 붕괴를 가져온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성이 빈곤하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공간과 시간에서는 전체 세계가 탈현실화 된다.

포스트모더니티에 따르면,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줄거리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전보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성이 역사를 지배하므로 원인과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역

41) 안경석, *세계관을 본질학* (서울: 조이 선교회 출판부, 1998), 67.

42) 정성구, "관인주의 세계관," *신학자담*, 1992년 봄호, 120.

43) Taylor, *Brinx: A Postmodernist's Theology*, 26.

44) F. Jameson, *포스트모더니즘론: 포스트모더니즘-후기 자본주의 문화논리*, 정경호, 감내의 역 (서울: 도서출판 티, 1989), 166.

사는 단절과 불연속의 과정이다. 각 시대의 역사에는 어떤 방향도 없고, 그렇다고 역사에 어떤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다. 여기서 역사의 의미는 부인된다. 나아가 역사는 저추장스러운 장식물에 불과하므로 역사는 무시하여도 좋거나 부정되어야 할 그 무엇에 불과하다.⁴⁵⁾ 이와 같이 역사의 정보화 환전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반역사주의적이며, 비판적이다. 역사는 아무런 종착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역사의 종말이란 무한한 방향의 시작일 뿐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이며 회의적인 역사이해로써 교회는 더욱 열정적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가 변화를 환아, 권리와 예경과 섭리가 살아있는 창조의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3. 권리의 부정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권리를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또는 권리를 담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구실로 보아서 늘 의심하고 파괴하려 한다. 이는 들은 바 복음을 의심 없이 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와 극히 대조적인 자세다. 따라서 모든 권리의 이면에 감추어진 숨은 의도에 대한 의심을 부추기는 이런 사조는 로마의 학제나 근대 과학과 철학의 뒤희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권리와 가치와 존재의 객관적인 실재를 모두 부정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 거대한 질서나 경계와 같은 질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이란 그 완전한 표현을 '의과사건'에서 성취하고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이 의하면, 권리는 전혀 객관적으로 있지 않다. 뒤희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그 의미는 열려진 채로 끊임없이 다양하게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거대담론 같은 권리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부정되고 성경이 부인되고 권리의 가르침인 교리가 허차되는 곳에서 자연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이제 하나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종

45) F. Jameson, *포스트모더니즘론: 포스트모더니즘-후기 자본주의 문화논리*, 168-169.

교집합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초월적 가치나 구원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 있어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 죽음의 흔적만을 남기게 될 뿐이다.

4. 가치와 윤리의 상대화-종교다원주의 -

역사 속에서 장구한 세월동안 형성되어온 심오한 가치와 진리를 헤쳐 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더 이상 어떠한 절대 가치와 윤리의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경이론, 또는 사회나 인간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준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나 윤리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선악과처럼 금단의 열매란 없다. 마귀가 하와를 꾀서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했듯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부터 모든 가치와 윤리는 상대화되며, 진리는 상대화 되고 거룩한 규범과 절대적인 규칙 같은 것은 더 이상 없게 된다. 기독교 자리에 힌두교가 들어설 수 있으며, 또한 불교가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의 목상이 마치 기독교의 기도와 유사한 것으로 주장되어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종교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열린한 합주를 부인하는 그 속성상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다원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자인 쾨니터(Paul F. Knitter)는 타종교에 대한 입장들의 차이를 분류하기를 보수적 복음주의의 진영은 비타주의로, 진보적 에큐메니칼 진영은 포용주의로, 종교다원론적 신종심주의는 다원주의로 구분한다.⁴⁶⁾ 다원주의는 원저한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므로 다원주의에서 모든 종교는 궁극적 실재인 하나님을 반영하는 역사적 문화적 산물들이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문화적, 역사적 주권에 의해서 구성된 하나의 현상으로 상대화시킨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볼 때, 기독교는 부두교나 라마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이다.⁴⁷⁾

결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관속에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의 도그마도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46) 권광식,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비판,' *무교회 신학*, 1994년 2월호, 178.

47) Ibid., 180.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에 호소하는 기독교 적도 및 선교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기독교 신학은 밀턴 은총 속에서 타종교에도 하나님이 주신 부분적인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기독교가 타종교와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능성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불완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유의하면서, 타종교의 가르침과 주장에 기독교의 주장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불완전한 진리를 완전히 하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선택과 다가섬의 노력이 필요함을 늘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5. 허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진리와 가치의 객관적인 의미를 헤쳐하려고 시도한다. 그러한 헤쳐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부정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과 기독교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또한 이성적 보편성과 존재의 가치까지도 부정하므로 현대인들을 헤쳐적 허무주의로 몰아간다.⁴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헤쳐주의 안에는 공동체성을 무시한 극단적 개인주의, 무관심의 자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주관주의와 낭소주의가 있다.⁴⁹⁾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고, 자아의 인격성이 부정되고, 역사의 목적이 부인되고, 법 진리와 지식이 부인되는 곳에서 의미 있는 역사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끊임없는 오류 과정의 유희적 놀이만이 전개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다.

6. 사회공동체의 붕괴

절대자인 신의 죽음을 선언한 니체로부터 내려온 헤쳐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상대주의를 주장해 다양성과 함께 자유방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고와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 윤리적 미증악속을 무너뜨리면서 윤리적 허무주의와 삶의 무경부상태를 가져온다. 이러한 헤쳐적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정적 열망은 나아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사회의 관계적 기반이 약해진다. 이러한 헤쳐적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에서 주체가 상실되

48) 김명환, '21세기의 사회적 변동과 교회의 대응,' *교회사상*, 1996년 5월호, 50.

49) Ibid., 51.

고 진보성이 부인되므로 사람들의 기억의지가 약화된다. 사회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총체적으로 기억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권위와 기량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 변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⁵⁰⁾

중극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실체가 부정되고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사회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공동체가 무너지면 기인도 살 수 없게 되며, 이것은 곧 공동사회의 해체로 이어진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정의 파괴이다.

소위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스화핑'-남편과 아내의 교환 성행위-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파생된 가정의 파괴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이던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한 이혼 부부들도 가정의 가치나 이상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 해체주의에서는 가정의 가치나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경부, 무경부주의 같은 반사회적인 이슈들이 국가공동체를 흔들어 흔단스럽게 만들고 있다.

7. 현실적沮거움에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및 다원주의는 경제사회에도 그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으며, 그 현상으로는 정교도적인 근면, 성실, 절약정신이 약화되어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소비지향 생활태도가 강해지고 있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문화적으로는 감각적 심미문화의 번창, 기괴한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신성모독적이고 윤리의식이 결여된 영화와 드라마의 흥수, 현실과 허구를 혼동케 하는 광고와 영상미체 등 대중문화와 예술계만이 흐르는 무형식과 해체주의, 주관적 감각주의와 같은 것들이 바로 포스트모던적 현상들이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정적 흐름 속에 함치된다면, 현대인들은 종교적 무기력, 문화적 심미주의와 감각적, 피다적 정신문화 속에서 점점 퇴폐주의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레더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지적한 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주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싸구려 상업문화와 소비문화, 함다, 오락문화로 이끌어 가짜 행복감에 빠지게 하여 역사와 현실이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⁵¹⁾

50) 김명환, '21세기의 사회적 변동과 교회의 대응,' 179.

51) Fredric Jameson,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김복동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요컨대 성경적 세계관을 떠나서 담배, 과식, 알코올중독, 약물, 마약 등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적 현상인 뉴에이지 운동은 마약 사용을 허용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성경적 세계관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적 굶주림과 악한 자존감 및 가치관의 부지를 마약이나 불건전한 오락, 유희와 같은 육체의 쾌락으로 극복시키려는 것이다.⁵²⁾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절대성은 상대화되고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온갖 사교(邪敎)들이 동서에서 일어나 현대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성종교에서부터 사교에 이르기까지 무슨 종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양의 심미사상, 불교, 힌두교, 선불교, 점성술, 마술, 요가, 희희교 등 무슨 종교든 자기의 적성에 맞도록 선택해도 좋고, 이 종교들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뽑아서 적절하게 융합시켜도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 산하에 들어있는 각종 종교들은 대개 심미적이고 마술적이다.⁵³⁾ 이처럼 허탄한 신화를 좇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현대인은 본과 색스와 마약을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추구하게 된다.

8. 욕구의 변화

가. 일상담론 욕구

(1) 이벤트 지향

일상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가장 쉽게 표출되는 통로는 축제와 의례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의 축제와 의례는 사라져 가고 새로운 형식의 축제/의례가 '이벤트'라는 형태로 전통적인 축제/의례를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념일이나 축일 등에 다양한 행사들 통하여 가까운 사람들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들간의 정단의식을 공유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축하모임 형태가 다양하게 정착할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뒤편타인데이에 짝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긴 신

263.

52) Jameson,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264.

53) 홍지모,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종종교,' *불교 문화*, 1996년 11월호, 124.

중 기념일인 '부력 데이'-자장면 먹는 날-라든가 8월 8일에 갖는 '삼겹살 데이', 연인들끼리 사랑을 확인하며 5월 14일에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 데이', 5월에 사랑을 확인한 남녀가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6월 14일에 입맞춤하는 '키스 데이', 또한 7월 14일이 되었을 때, 연인이 주워 지인들이 사랑을 공개하며 은계품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주고받는 '실버 데이', 그리고 11월 11일이 모이는 '빼빼로 데이' 등이 이와 관련된 신종 기념일들이다.

(2) 불거리 지향

요즘 우리들은 텍스트에 근거한 사고의 시대에서 그래픽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속화할 것이며 이미 요즘세대 미디어 신세이서널리즘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점점 자극어의 의존성이나 면역성이 증가함으로 지속적으로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을 추구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장르파괴적인 엔터테인먼트의 등장으로 다양한 '불거리' 메뉴가 나타날 것이다.

밀레로 요즘 음식문화에서 보이는 '퓨전음식'의 유행, 그리고 TV합승 오락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기고 콘서트'나 '웃찾사' 같은 프로그램이 기존 오락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연극, 음악, 코미디, 드라마 등의 장르를 넘나들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 자아 표현의 욕구

이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는 것으로 관계성의 측면에서는 클럽형 관계 지향, 대상 측면에서는 미니아화, 그리고 행동 측면에서는 참여/퍼포먼스 지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클럽형 관계 지향

서구 사회의 노동여건이 한국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2006년 7월부터 한국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7년 현지 정착화 되어 가고 있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생활패턴의 변화들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 즉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서 그동안 생활의 중심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밀(직장)가경 외에 '제 3의 부문'이 확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맞물려서 인간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고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나 관심에 따라 모이는 '클럽형 인간관계'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럽형 인간관계는 전통시대의 개인적 관계, 산업사회의 계약적 관계와는 달리, 가입이나 탈퇴, 의무화 부담 등을 모두 기기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나 규범적 속박으로부터 상당한 자유로움을 누림과 더불어 계층, 계급, 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제러다임적 관계들 의미하는 것이다.

이 클럽형 관계에서 발견되는 모임은 포탈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는 카페나 클럽 같은 것인데 예를 들자면, 싸이월드에서 기호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1촌 모임'이나, 또는 '다이어트 모임'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거나 특정 연예인을 위한 '팬클럽'과 '안티 팬클럽' 등이 있다.

젊은 N세대의 경우, 심층속에서 만나는 친구관계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교제하는 친구가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날 아주 자연스런 풍경이 되고 있다.

(2) 미니아화

특화된 관심이나 능력이 사회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을 추구함으로 존재와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관심의 분야도 주권에 따라 다양화할 것이며 갖가지 분야에서 많은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나올 것이 예측된다.

본 논문의 저자가 사역하던 서울의 연동교회만 하더라도 압력등산을 즐기는 산악팀과 미용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들의 모임인 미용선교팀, 그리고 한지공예팀과 테니스 및 축구 동호회가 있으며, 이밖에 겨울철 스포츠인 스키 및 스노보드팀과, 수상 스포츠인 윈드서핑팀, 저드보드팀, 저드스키팀, 웨이크보드팀, 그리고 여행 마니아들로 구성되는 생지 순례팀 등 다양한 마니아 그룹을 묶어 주는 소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마니아 그룹들은 아마추어 전문가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며, 그들 자신이 또한 전문가적 자질을 습득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교회생활의 역동적 변화에 기여들

하고 있다.

(8) 참여/퍼포먼스 지향

네트워크의 발달과 가상공간의 확장으로 육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스스로의 참여와 퍼포먼스를 통한 활동으로 객체체험의 만족을 얻고자하는 경향이 확대될 것이 전망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노래방이 공전의 히트를 친 것처럼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는 이른바 프로슈머(producer)⁵⁴⁾가 활성화 되고 DIY 활동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⁵⁵⁾

제 8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목회적다

지금까지는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만을 주로 살펴면서 부각시키고 미관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포스트모더니즘 속에는 부정적인 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전의 세계, 즉 모더니즘의 오프로 인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목회사역에 있어서 지혜롭게 분석하여 채용할 수만 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오늘날 위기들 더러가고 있는 목회현장에서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은 사람들을 획일화하고 권위적으로 억누르던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모더니즘이 맹신하던 절대적 이성과 과학기법의 한계성을 지적한 과학과 이성의 새로운 이해,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모더니즘의 낙관의식을 비판하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공헌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학과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적 정황에 대한 적응력을 자각하게 만들고, 가치와 윤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종교에 대한 새로운 요청, 도그마가 아니라 성경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돌아가는 기독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다

54)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남들이 제작하거나 상업용으로 제작한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인 동시에 스스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이용해 콘텐츠의 제작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55) 류승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공동체,' *광주광 생명*, 1997년 봄호, 28.

양성과 관용성을 수용하여 교차연합을 추구시키는 등의 압력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56)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헌은 모더니즘 세계관의 외곽점과 부당함을 드러냄으로써 근대화 작업 속에 숨어있는 억압, 지배, 착취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이 모더니즘의 양대기둥인 기계적 세계관과 과학 절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대안으로 제시한 관계적 세계관, 다원주의 세계관⁵⁷⁾ 등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교회의 목회사역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긍정적 측면에서 포스트모던적 다원주의는 어느 누구도 힘의 논리와 강제수단으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나눔을 통한 교제는 자기가 가진 고유의 것을 표현하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열람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회사역의 방법적 원리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또한 현실적 삶의 과정 속에서 늘 밖으로 '열려 있는 자아'는 다양한 관계맺음 속에서 헤쳐낸 자아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내용, 다양한 구성 방식, 다양한 비움의 방식과 다양한 경험의 공존이 목회 현장에 허용될 수 있다.⁵⁸⁾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목회화 기독교 교육이 있어서 열람미체가 교육공학적으로 도입되며, 구도자들에게 '학습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풍부한 학습경험이 제공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가 인정되고 중요시되는 문화논리이므로, 이전처럼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환경에서 피교육자가 한 가지의 역할을 책임지게 하여 스스로 주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⁵⁹⁾ 즉 각 사람을 격려하고 학습흥미를 유발시켜서, 이론보다는 학습현장의 실제장면을 중시하며 토의, 토론의 방법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관심사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세계를 확장

56) 김명환,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1997년 11월호, 67-68.
57) Ibid., 61.
58) 참고, 목명태, *후 현대주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4), 108-109.
59) Ibid., 110.

시켜 가는 등의 관계와 참여지향적인 포스트모던 방식의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중극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등이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의 영향에서 오늘의 교회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무희적, 교육적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무희적 과를 세워야 교회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1.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승부하라.

포스트모던시대에 거의 모든 기성교 교파들에 걸쳐 교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다른 종교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상당수의 서구인들이 이슬람, 힌두교의 뉴에이지 운동, 불교나 토착 아메리카의 신비주의 신앙, 드루이드교화 이교도 신앙 등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에 끌리고 있다.⁶⁰⁾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출석률의 급격한 저하가 반드시 포스트모던시대의 특징인 서속문화의 영향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오늘날 서구사회 속으로 이슬람, 힌두교, 유교, 도교와 불교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라 그들이 믿는 종교도 수입되는 등 인구이동 변화에 따라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무슬림과 힌두교인들의 출산율은 평균 출산율보다 높으며, 이 종교들은 기존 기독교 교인들의 전환이나 교회 정원이 없는 사람들의 회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⁶¹⁾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성장하는 타종교가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변화의 코드를 정확히 읽고 대처한 결과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밀레로 지난 10년 이래로 한국에서의 불교의 급성장은 뉘로부터의 권위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자기수양을 함으로써 종교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참선의 홍보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오늘날 불교종단 차원에서 해외관람객들에게 '산사에서의 참선 체험'이라는 관광상품까지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다.

60) Gibbs, *NEXT CHURCH: 미래무희의 9가지 드림드*, 20.

61) Ibid.

마이크 레벨은 *교회의 죽음 (The Death of Church)*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변화하는 문화의 힘을 이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힘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변천은 거대한 변화의 조류에서 교회가 마비될만한 격변이다.'⁶²⁾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한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시장-지역의 거주자와 사회의 문화적 코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리 추구에 민감한 자들을 위한' 예비를 통해 미기독교인들의 주의를 끌려는 전략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있어서 최고-방법, 서비스, 시설에 있어서-를 강조하면서 느긋하게 접근한다.

이전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견해야 하는 전리에만 집중하려고 했지, 그 대상인 미기독교인들에게 별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더구나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헤아리고 채워 주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라일 샐러가 말하는 '새로운 종교기력'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가진 전리와 더불어 포스트모던사회의 문화코드를 읽기 위한 노력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좀 더 미기독교적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종교기력의 주인공들은 일부 교회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소그룹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상당부분을 위임하면서 교회조직의 새로운 감성을 꾸준히 실천하려고 한다.

대개의 경우 구도자에 민감한 어떤 교회들은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갖고 밀하지만, 실상 그들 옆에는 좀 더 급진적인 세력이 포스트모더니즘적 변화의 메시지와 라이프스타일을 가미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교회들이 눈여겨 보아야만 할 것이다.⁶³⁾

이들 교회들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라일 샐러는 이들을 '새로운 종교기력'이라 불렀으며, 도널드 밀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묘사했고, 조지 헌터(George Hunter)와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신사도(New Apostolic)'라고 하여 강조점

62) Mike Reele, Mark Schuk, *Death of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6), 23.

63) Gibbs, *NEXT CHURCH: 미래무희의 9가지 드림드*, 21.

들은 조금씩 다르다.⁶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들이 제공하는 도전과 자극에 반응하면서, 미저 있는 전통교회의 지도자들은 저들의 활력과 대중적인 인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브라이언 맥라렌(Brian McLaren)은 이렇게 강조한다.

유흥성 있는 패러다임 적용은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최상의 전략이다. 새로운 것을 유흥성 있게 적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들은 기꺼이 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이 죽으면 거지에서 내려야 한다.⁶⁵⁾

2.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

최 문화와 종교의 중심을 자처하던 서구사회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심을 동양의 종교로 급속도로 돌리고 있는 것일까? 이는 오늘날 기독교인 이든 아니든, 서양 문명의 영적 공허감과, 어느덧 체념해버린 기독교의 영적 생활에 대한 불만과 단식이라고 보인다. 사회의 가치관과 권위 있는 권리가 무너져 내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아마도 영적 생활에 대한 갈구는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존재이며 기인이든, 집안이든, 문명인이든, 미개한 지역의 주민이든,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을 비롯하여 기독교에 염증을 내린 신자들이라고 해도 새로운 세계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교회를 아마도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새로운 종류의 교회는 그들의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충족시켜 줄 교회이며, 그들을 부활하고 악의에 자 있고 생기 없고 무기력한 종교가 아닌, 건강하고 활력 있으며, 진실된 정신을 고양하는 교회여야만 할 것이다.⁶⁶⁾

예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공동체적이고 가족적이고 사회적인 꿈('하나님의 나라' 라는 집단 이미지로 형상화한)을 제시한다. 그것은 미단 기독교인들의 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력으로 넘치고, 용서로 연결되고, 축하 소리로 떠들썩하고, 복음적 가르침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진실

64) Gibbs, *NEXT CHURCH: 미래목회의 9가지 드림드*, 21.

65) Brian McLaren, *저 권력편의 교회 (The Church on the Other Side)*, 이순영 역 (낙은출판사, 2002), 27.

66) Ibid., 13.

하고 희망을 주는 공동체의 꿈이다.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은 혼자만의 증거를 위해 각자의 하프를 연주하면서 구름 위를 떠다니는 가벼운 천사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복되대는 거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신나는 사회, 공동체의 열광으로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다.⁶⁷⁾

사람이 있고 증거음이 있고 건강한 꿈이 있는 진실한 공동체야말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교의 사역이다. 생명에 의해 세워진 세상의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이며, 선교에 의해 선교 안에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 즉 생명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곧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로 이어져야만 한다.

8. 세상문화에 들어가 누룩역할을 하라

오늘날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놓여 있다. 이 세계는 영적으로 거의 진공상태이고, 그 결과 후광한 영적 황과 포도주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있다. 이 세계는 교조주의와 교권주의에는 적대적이지만, 생기 있고 살아 있는 황에 대하여는 그 후광한 종자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다.⁶⁸⁾ 지금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 신선한 황과 포도주를 동양의 종교들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들 동양의 종교들이 그 진공상태를 완전히 메워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 다원화된 포스트모던 사회를 향해 교회가 영향력 있는 영권(靈權)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격리된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나와 미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바, 교회의 장이름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그들은 '교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교회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교인들을 향해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자기 이웃들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인들을 세대화 '동 떨어진 언어'나 '경건한 전문 용어'나 사용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로 생각한다.⁶⁹⁾ 또한

67) Brian McLaren, *저 권력편의 교회*, 44.

68) McLaren, *저 권력편의 교회 (The Church on the other side)*, 232.

69) George Hunter,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생길까?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서울: 서도사망, 1997), 105.

그들은 교인들이 음악, 예술, 건축양식에 있어서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자기들의 전통에만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미아냥거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과 저자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장이문들이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고 사회학적인 것이라는 도널드 리가브런의 관찰을 재확인하게 된다.⁷⁰⁾

이런 장이문을 교회로부터 나와 자발적으로 걸어 버린 것들을 우린 교회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마틴 루터는 가장 초창기 개신교의 원리를 라틴어 성경과 미사를 버림으로써 기적하였다. 루터는 성경을 그가 섬긴 사람들의 통속적인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루터 교회들은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당대 대중음악을 사용하는 독일 찬송을 환전시켰는데, 심지어는 독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좋아하는 리주검의 음악까지 사용하는 독일어 찬송을 환전 시켰다. 루터의 목적은 사람들의 음악을 통하여 성경 메시지를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었다.⁷¹⁾

예소디스드(감리교)는 토착원리를 더욱 확대시켰다. 존 웨슬리와 칸스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문화에 적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더 '삼스럽게 되기로 합의하였고' 불신자들의 현장인 논밭과 읍내 광장들에서 설교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밀한 가정들에서 잠겨 노래하고 알고 있던 곡조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차존(예비당)들을 위한 건축 스타일을 창조하기도 하였다.⁷²⁾

위의 경우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교회는 사회의 문화들 등지고서는 교회 본래의 목적과 사명인 빛, 소금, 누룩의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손을 잡아 줄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면, 오늘날 교회의 성장은 거의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사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사회의 문화구조 내에 흡수되어 버려선 안된다는

70) George Hunter,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106.

71)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2 (New York: Harper & Row, 1963), 721.

72) John Wesley, *The Character of a Methodist: The Walks of John Wesley* vol. 8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9), 340.

것이다. 어디까지나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는 누룩과 소금의 사명을 통해 사회의 문화를 변혁시켜야지 교회 자신이 오히려 변혁의 대상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 그리고 누룩의 밀한적인 특징은 그것들이 자신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섬김의 행위들을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허무주의를 살아있는 가능성과 소망의 문화로 변혁시켜야만 한다.

4. 공동체를 구축하라

포스트모던 시대의 공동체는 권위주의가 통용되지 않는 시대다. 이는 사람들이 위로부터의 강압적인 명령이나 지식적인 태도로써 믿하기도 않는 공동체나 사역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 리더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인들을 따라오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김점옥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분명히 구분지 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⁷³⁾ 그에 의하면, 권위란 일을 수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주어진 합법적 권한인 반면에, 권위주의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위아래의 억압적이고 밀한적인 구조를 통해서 권위를 개인적으로 남용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권위의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후 10:8).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권위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 즉 지도자의 권위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권위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성과 만나게 되는⁷⁴⁾ 것이다.

권위는 공동체성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팀(공동체성)은 지도자의 권위(리더십) 안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임무가 주어지는 입체적 관계성을 의미한다.⁷⁵⁾ 교회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책임을 되도

73) 김점옥, *공생경하는 ?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174.

74) Ibid., 175.

꼭 많은 구성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봉사를 여든 들어 공동체성을 소개하자면, 인천시 은혜교회(합동장로교단)의 경우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내의 봉사영역이 정해져 있다. 계단 청소의 경우 팀장은 있지만 팀원은 각각 계단 손잡이는 누가, 첫째 계단은 또 누가, 두번째 누가 담당한다는 식으로 봉사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각의 구성원은 자신이 담당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 및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새 가족실의 경우도 마차가 지다. 거처를 총책임지는 팀장(리더)이 있지만, 팀원 각자는 식탁보, 의자항석, 꽃꽂이, 망향제, 간식, 바닥청소 등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계절 별로 비치 및 관리할 알아서 정하게 하는 등으로 책임과 리더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과 당회원들도 각자 자발적으로 맡은 구역이 있어서 매일같이 교회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공동체로 인해 활력이 넘친다.

저자가 섬기던 연동교회의 경우, 자연환생적으로 모인 레포츠 및 자발적으로 모인 성경공부 팀들이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교회는 담당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모임의 영적 성숙을 돕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그룹 공동체가 견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목표로 더욱 활력할 수 있도록 비허하며 도와주고 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환생적으로 소그룹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대감도 강하고 활동 및 사역들도 역동적으로 점점게 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5. 생활 속에서 영감을 미치는 영성을 계발하라

1995년, 하미 옥스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책에서 오순절 교회의 급성장에 차이를 보냈다. 그는 사실 1965년에 *상속 도시들* 통해 종교의 사멸을 예언했으나 오순절 계통 교회들의 성장과 회복을 보면서 입장을 바꾸었던 것이다. 사실 영성, 또는 성령운동은 21세기 교회의 회복을 알리는 부흥의 증거임에 틀림없다.⁷⁶⁾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성이 급속도로 식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성장) 한국 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

75) 김경옥, *공생경하는 ?교회 이야기*, 174.

76) Ibid., 184.

하면, 교회의 질적 성장 8가지 요소 중에서 '영성'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보고는 현지 한국교회의 침체와 영성의 침체가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⁷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의 밑바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영성운동은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에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바, 그 대표적인 신(新)영성운동 프로그램이 바로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운동이다. 여기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그들의 삶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은 사랑과 섬김과 교제의 나눔 가운데 경험하게 되며, 이를 지속적인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고 유지하게 도와주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자가 시무하던 서울 연동교회는 아가페아 트레스 디아스(Agapea Tres Dias)라는 영성운동 프로그램을 2007년 12월 현재 약 9년째 운영해 오면서, 교회 분위기를 밀신하고,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밀꾼들을 많이 발굴하여 세울 수 있었으며,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영성운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별로 책임을 맡겨서 순조롭고 신속하며 은혜로운 밀의 진행과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

트레스 디아스 운동의 기원⁷⁸⁾은 스페인 내란과 제 2차 세계대전의 격동과 고향에서 텅 빈 교회와 영적 공허감, 그리고 밀체의 소망들이 퇴색되어 버린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신앙심이 흔들린 소수의 소그룹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크리스천 헌신활동의 지도자이며 마조르카(Majorca) 섬에서 남자교인들을 대상으로 부흥활동을 주도하고 있던 후안 에르바스(Juan Hervas)주교와 순례여행을 주도하고 있었던 에두아르도 보닌(Eduardo Bonin)이 이러한 신앙의 소그룹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서로 같이 하며 신앙담구 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의하였다. 이러한 작은 신앙모임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그들은

77) 김경옥, *공생경하는 ?교회 이야기*

78) 트레스디아스 매뉴얼(2005년 판) 참고.

주말마다 신앙의 은둔지에 모여 그리스도인의 모험적인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이며 리유니언 그룹(Reunion Group)을 통한 교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러한 신앙의 은둔지를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꾸르치오(Cursillos de Cristiandad)라 불렀으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은둔지의 신앙생활은 리유니언(reunion) 그룹의 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처음에 꾸르치오 운동은 남자에게만 국한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의 내전을 경험한 스페인 교회 안에서는 종전 후 거의 남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궁극적으로 이 운동의 목적이 교회를 활성화 시키자는 데 있었으므로 프레스 디아스 운동은 마침내 스페인 남자들을 교회 속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프레스 디아스인 당시의 꾸르치오 운동은 1950년대 말까지 스페인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텍사스에서 훈련중이던 스페인 공군소속 몇 사람이 리유니언 그룹모임을 갖던 중 미국에서 처음으로 꾸르치오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그 후로 스페인어로 실시한 이 꾸르치오 운동은 곧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으며, 1960년대 초기에 영어로 실시한 최초의 꾸르치오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기성교도들이 8일 동안 열리는 위크엔드(Weekend)행사에 참여하게 되자, 이 영성훈련이 기성교도들에게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행사가 되게 하자는 의견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부터 대두되어, 급기야 이 운동은 초교파적인 프레스 디아스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초교파적으로 실시된 최초의 프레스 디아스 위크엔드는 1972년 11월 25일 뉴욕의 뉴버그에서 개최되었다. 로마 가톨릭 꾸르치오에 기성교도로서 참가하였고 프레스 디아스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Dave McManica)이, 이 최초의 초교파적 프레스 디아스의 초대 렉터(Rector)가 되었다.⁷⁹⁾ 여기에서부터 프레스 디아스는 뉴잉글랜드,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로 퍼져 나갔다. 1980년 7월 11일 미국 전역의 프레스 디아스 공동체는 마침내 전체 프레스 디아스의 연합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날 프레스 디아스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

79) 지도자 및 감독자를 가리키는 스페인어로 모놀라 페신도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프레스 디아스에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페신도 지도자를 의미한다.

는 프레스 디아스 단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이미 한국에도 경동 프레스 디아스 매뉴얼을 적용하는 공인된 프레스 디아스 조직이 18개나 존재하는 등 프레스 디아스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명실 공히 한국 및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초교파적 영성훈련 운동이 되었다.⁸⁰⁾

마지막으로 이 운동의 특징은 사람의 교제 속에서의 깊은 영성적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보다 깊은 관계를 갖는 동시에, 생활속에서의 리유니언 그룹모임을 통해 뜨거운 영적 감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성교 밀착에서는 프레스 디아스에 대해 이단시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원죄를 품은 교회에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봉사화 정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6. 사람을 목회 프로그램화 하라

예수님은 사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요 21:15,17). 실제로 미국침신도목회자 협의회의 영민 스테인브론 회장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목상하는 가운데 침신도 사역자 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다.⁸¹⁾

미국 새소망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의 담임목사인 데일 켈러워이 목사의 목회 철학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목회'이다. 그는 묻는다. 무엇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가? 무엇이 수천수만 기로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 만한 소망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가? 우리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 가고 있다. 이런 질병의 대부분은 그들 삶에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대치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⁸²⁾

요즘 사회에서 교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 '예수 믿는

80) 참고, *프레스 디아스 매뉴얼*(아가피아 프레스 디아스 2005년 판). 이 운동이 도입된 이래, 한국에서만 약 100만 명 가량의 프레스 디아스 경험자들을 배출했다.

81) 김경옥, *공생공하는 ?교회 이야기*, 196.

82) Ibid.

능력이 더해.' 그럼 이런 소리는 어느 경우에 자주 듣는가 >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없는 모습과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하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사랑 없는 자리에서 세상은 실망하며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소(嘲笑)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워져 가는 교회들은 사랑을 회복해야만 생존할 수가 있다. 사랑은 설교를 들음으로써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삶의 자세는 아니다. 사랑은 훈련이며, 사랑은 지속적인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며 덕목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사랑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예 사랑을 목회 프로그램화 시켜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양식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사랑 없는 전례를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전례는 능력도 없다.

예수님은 최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셨고(마 22:37-40) 바울은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가 품으로 미유된다면 사랑은 권역이다. 권역이 없는 품은 죽고 역적이 사랑이 없는 목회도 만드시 역계 되어 있다. 사랑 없는 성도를 사역에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사랑 없는 지도자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랑이 목회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 목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랑의 파도를 타야 되는 것이다.⁸³⁾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갈등과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도록 돕고, 사랑의 인간관계에 의도적으로 헌신하도록 도우며, 신실하고 민감하게 이웃과의 사랑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열성으로 무장을 하고 교인들끼리 상호간에 그리스도의 품을 세워 나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야 한다.

7. 소망을 확신시키는 설교

현재 한국교회만을 놓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기업형 대형교

83) 김경욱, *급성장하는 ?교회 이야기*, 196.

회들이 지속적으로 수적인 면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커갈 수 있었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에도 성장하는 교회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고 보인다. '2005년 한미준-한국갤럽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들이 교회를 미루하여 종교를 선택하는 우선 고려기준은 다음과 같다.⁸⁴⁾

<표 1> 한국인이 종교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

결과	개신교인(884명)	불교인(954명)	천주교인(112명)
거리가 가깝다	36.4퍼센트	19.2퍼센트	165,741.1퍼센트
설교 설법 강론이 좋다	21.8퍼센트	11.9퍼센트	7.1퍼센트
가족이 다닌다	17.9퍼센트	37.6퍼센트	25.0퍼센트
아는 사람이 많다	6.7퍼센트	5.4퍼센트	4.5퍼센트
모태신앙(어릴 때부터 익숙)	6.3퍼센트	9.9퍼센트	8.0퍼센트
종교기관의 활동내용을 보고	2.6퍼센트	1.1퍼센트	8.0퍼센트
개인적인 도움을 받아서	2.3퍼센트	1.7퍼센트	2.7퍼센트
저자권련, 성경공부, 교리배움	1.6퍼센트	2.3퍼센트	0.9퍼센트
크고 유명하니까		1.5퍼센트	4.5퍼센트
시설이 좋아서		0.1퍼센트	1.7퍼센트
기타	2.7퍼센트	4.2퍼센트	2.7퍼센트
모름, 무응답		0.1퍼센트	0.6퍼센트
계	100.0퍼센트	100.0퍼센트	100.0퍼센트

이상의 조사를 결과로 놓고 볼 때 개신교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선택 요인은 '거리가 가깝다' 36.4퍼센트, '목회자의 설교가 좋다' 21.8퍼센트로 지리적 요인이 교회 선택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나 범당과는 달리 개신교 교인들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선택의 기준은 목사의 설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대형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수만 시대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대단지를 가까이에 끼고 있으며 동시에 목사의 설교가 좋은 경우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98년 조사와 비교⁸⁵⁾해 볼 때, 목사의 설교가 교회선택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포스

84) 한미준-한국갤럽, *한국교회 이해리포트*, 208.

85) Ibid., 209.

드모던 시대의 교회성장 요소 중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설교는 '가족' 요인이 범당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 주었고, 천주교의 경우는 '거리' 요인과 '가족' 요인, 그리고 '성당의 활동 내용'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교별로 교회, 절, 성당을 선택하는 요인이 다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목사의 설교를 이처럼 중요시하는 기성교의 기대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설교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아야만 할 것 같다.

치유상담가인 H. J. 클라인쉬은 미국 목회자가 500명의 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경우,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상처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통계들 얻었다.⁸⁶⁾

- 정신 건강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25명
- 알코올중독-24명
- 신경 분열증 환자-50명
- 신경성 증후군 환자-100명
- 경미한 신경 쇠약-115명
- 개인 신앙, 또는 결혼 문제로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70명
- 정신병으로 입원한 사람-6명
- 자살 기도-1명
- 심각한 혐의(강도나 절도)-8명

클라인쉬은 이 외에도 자기 회의, 죄 의식과 분노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 통계에 합산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한다. 결국 5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중 400명 이상은 심각한 정신 장애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소망이다. 급성장하는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100퍼센트 소망을 불러넣는 설교였다. 설교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화수를 치게 하거나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는 메시지였다.⁸⁷⁾

86) 김경옥, *급성장하는 ?교회 이야기*, 211.

8. 과정지향적인 전도를 실천하라

NCD 연구팀에서 교회에 등록된 14,000명에게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이며,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낯선 사람에게 전도되어 오는 경우는 1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 했다.⁸⁸⁾ 전도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전도는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NCD에서 전도 소그룹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밀회성 전도가 아닌 관계적 과정 전도이다. 복신자가 교회까지 오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복음의 제시보다는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더욱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NCD는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를, 몇 번이나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혹은 교회에 가자는 진지한 초청을 몇 번이나 받았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평균 7번이라고 많은 이들이 대답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전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지하게 초청할 때 전도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⁹⁾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전도는 밀대밀로 하기보다는 소그룹 단위로 여러 사람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 주며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공동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임을 배우게 된다. 즉 전도는 전도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할기까지 소그룹 멤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제 4 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소그룹사역

자연적 교회성장으로 알려진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6기 대륙의 32나라에서 다양한 교회들(1000여 교회 이상)을 선정하고 조사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장하

87) Ibid., 211.
 88) 정진우, *경도소그룹이 무한관우* (도서출판 NCD, 2002), 40.
 89) 정진우, *경도소그룹이 무한관우*, 44.

고 성장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교회가 소그룹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⁰⁾ 사실상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 각국에서 소그룹 목회를 통한 사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소그룹 문화의 저자 로열 코미스키는 이러한 소그룹의 연구를 통해서 소그룹만이 오늘날 교회의 역동적인 성장을 가져온다고⁹¹⁾ 지적했는데, 실제로 아래와 같은 소그룹(셀)교회들이 동시대에서 놀라운 목회성공을 거두고 있다.⁹²⁾

첫째, 런던 익투스 교회(London Ichthus Christian Fellowship)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과 신학을 전공한 로저 포스터(Roger Forster) 목사가 1974년에 함께 공부하며 교제하던 10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기적한 이 교회는, 1995년 현재 300개의 셀과 80여 개의 회중으로 성장하여 3,000명 이상의 활동적인 교인들을 가진, 영국 기성교회들 중 두 번째로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의 아비장(Abidjan) 침례교회로 아프리카 아이보리코트의 수도인 아비장에 세워진 이 교회는 1975년에 로버트(Dion Robert) 목사가 기적을 시작했으나 1988년에 이르러 온전한 셀 교회로서의 전망이 이루어졌다. 그는 기적 당시부터 셀 그룹을 교회가 정착시키는 문제로 고심해 왔으나 주변의 전통적인 교회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셀그룹 목회를 기원해 왔다. 1988년 당시 688명이던 교인의 숫자는 불과 8년이 지난 1991년에 이르러 무려 23,000명으로 성장했으며, 그 후 7년이 지난 1998년 현재 8,000개의 셀과 120,000명의 교인을 가진 대 교회로 성장했으며,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 수많은 지 교회들 갖게 되었다.

셋째, 랑콕소망교회(Hope of Bangkok)로 호주의 멜버른(Melbourne)에서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불교의 나라인 태국으로 돌아와 랑콕에서 대학교수를 지내며 캄캄한 사역을 하던 크리앙삭(Chareonwonsak Kriensak) 목사가 교수직을 사임하고 목회에 전념하면서 세운 이 교회는 현재 수백 개의 셀과 6,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했다.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양을 도적질한 교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 교회

90) Christian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The ABC's of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유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4.

91) Joel Komiski, *셀그룹 문화, 박명환 역* (서울: NCD, 2000), 31.

92) 최신대 권(奎)신자 사역훈련원 편, *계 4차 셀 교회 개관 권재환스(2002)*, 내용 중에서 요약.

의 통계에 따르면 교인들 중 85퍼센트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

넷째, 싱가포르 신앙공동체 침례교회(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로 웨일스 신학대학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로런스 콩(Lawrence Khone) 목사가 1986년에 800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기적한 이 교회는 처음에는 그저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출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인 1987년에는 1,300명의 교회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교회성장 경험 가운데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보다 강력한 개인적인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함께 모든 교인들을 사역자로 가동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교회는 교회성장학자이며 동시에 셀 교회 전문가인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 Jr.)를 협동수석 목사로 모시면서 그의 자문을 받고 교회들 지로 격화함으로써 셀 교회로의 전격적인 전망을 이루게 되었다. 1998년 당시 400여 개의 셀과 6,000명 교인으로 성장한 이 교회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9년 현재 1,000개 이상의 셀과 10,000명 이상의 활동적인 교인들을 가진 대 교회로 성장했다.

다섯째, 산살바도르 교회(San Salvador Church)로 엘살바도르(El Salvador)에 위치한 이 교회는 1990년대 중반 현재 4,500개의 셀 그룹에 50,000명의 교인들을 가진 대 교회로 성장했다. 이 교회는 주 2회의 셀 모임을 가지는데 첫 번째 모임은 화요일 저녁에 가지며, 두 번째 모임은 토요일 저녁에 가진다. 화요일 모임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토요일 모임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화요일 저녁의 교육시간은 토요일에 있을 전도들 위한 준비모임으로서 이 양자는 상호 활력을 불어 넣는 훌륭한 보완관계를 지니는 모임들이다. 이러한 열적 활력은 성장하지 않는 결별에 걸린 교제의 문제(어떤 이는 이러한 모임을 밀키어 코이노니티스(Koinonitis)라 한다)를 해결해준다.

여섯째, 베다니 세계기도센터(Bethany World Prayer Center)로 미국 뉴올리언스의 베이턴 루지(Baton Rouge)에 위치한 베다니 세계기도센터는 래리 스톡스틸(Larry Stockstill)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88년에 담임목사에 취임했으며 1998년에 이르러 셀 교회로 전망하면서 54개의 셀로 시작한 사역이 5년 후에는 540개의 셀 그룹과 무려 6,000명의 대교회로 성장했으며, 12명으로 구성된 목회자 팀을 가지고 있다. 풀러 신학교의 교회성장학자인 찰리 화그너는 그에게 '가정 셀 그룹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밀콤포, 나이로비 등대 교회(Nairobi Lighthouse Church)로 케냐의 나이로비에 위치한 이 교회는 도널드 매스니(Donald Matheny)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1998년 당시 1,200명의 출석교인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는 1994년에 이르러 수 교회로 전환하여 그로부터 4년 후인 1997년 현재, 450개의 수과 2,500여 명의 출석교인을 가진 교회로 성장했다.

여윌채, 버클랜드 침례교회(Berkland Baptist Church)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위치한 버클리 대학교 부근에서 1980년에 폴 김(Paul Kim) 목사 부부가 기척한 이 교회는 처음에는 각종 저자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교인들을 원저히 훈련시키는 일을 통해 준비과정을 거쳐 1992년부터 수 교회로 구조를 전환하기 시작하여 1999년 현재 전 세계에 14개의 지교회(보스턴, 오글랜드, 산호세, 새크라멘토, 샌니안드로, 로스앤젤리스, 시애틀, 뉴욕, 서울, 타시켄트, 암마티 등지)를 기척하는 대 교회로 성장했다.

아홉채, 목산침례교회로 1986년에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기척한 이 교회는 2년 후인 1988년에 김현원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함으로써 수 교회로서의 기초를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했다. 미국 남 침례교회의 전형적인 교육목회 모델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목산교회는 199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 교회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 후 4년이 지난 지금 한 기의 지교회를 기척하고 60여개의 수과 600여 명의 헌신된 교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수 교회로 성장했다.

열채, 브리즈번 교회(Brisbane Christian Outreach Center)로 1970년대 중반에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시작된 기독교전도센터(Christian Outreach Center) 운동은 수 그룹 교회운동으로서 호주 전역의 수십 기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브리즈번에는 4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 이러한 성장은 25년 안에 이루어졌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이다!' 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열한채, 성 마리아 침례교회(St. Mary's Baptist Church)로 호주 시드니(Sydney) 서쪽 산자대에 스카보로(Les Scaborough) 목사가 기척한 이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 전체를 복음화 하는 일을 떠났다. 정부에서 20에이커(24,000평)의 땅과 200만 달러의 건축비를 지급하여 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도록 협조했다.

열두채, ICM 선교교회(International Charismatic Mission)로 남미의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교회로서 담임목사인 세자르 카스테야노스(Cezar Castellanos)는 8년간의 감동 끝에 목회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다. 하지만 1983년에 모든 교인들을 수 리더로 성장시키는 미전에 사로잡혀, 그 밑에 몰두함으로써 8명의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여 200명의 잠재적 리더들을 양육했다. 1990년 당시 70기였던 수 그룹이 4년 후인 1994년에 1,200기로 성장했으며,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수 그룹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1996년 한 해에만 4,000기의 수 그룹이 10,500기로 급성장했다. 이 교회는 1998년 6월 현재 24,000기의 수 그룹을 가지는 초대형 수 교회로 성장했으며 2000년에는 50,000기의 수과 500,000 명의 교인들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그룹의 모델들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진 게츠(Gene Getz) 목사의 소그룹 사역은 교제와 교회기척이라는 특성을 강화시킨 형태이며, 서던캘리포니아의 라이먼 콜먼(Lyman Coleman)은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성경 속에 이입시켜 보도록 하는 독특한 질문과 함께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 데일 겔로웨이(Dale Galloway)는 소그룹 안에서의 돌봄에 강조점을 둔 TLC(Tender Loving Care)라는 소그룹으로써 좋은 성장의 모델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국 쥘스턴의 서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는 내적 치유와 목장의 세포분열에 초점을 두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

제 3 장 교회성장 전략으로써의 전도 소그룹

본 장에서는 위에서 소기한 소그룹의 사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후, 특별히 교회성장의 가장 큰 동력인 전도활동에 있어서 소그룹 사역이 어떻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제 1 절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기서는 현대사회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특징 중의 하나인 소그룹 형태의 모임을 교회성장에 적용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도행전과 로버트 타 헤스데베스의 소그룹 이론을 중심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그룹이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소그룹의 구성요소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충분한 고려가 없이 시작할 경우 그 그룹은 표류하게 될 것이고, 구성원들은 불만감을 갖게 되며, 그룹 내의 갈등이 생겨 결국 그 소그룹은 와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시작 전에 회원들 간의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 소그룹은 관 전기된다고 볼 수 있다. 소그룹이 형성되는 형태는 대개의 경우,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동결점만으로 취급할 때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관심을 갖고 그룹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시, 공간적으로 가까워 접촉이 용이한 근접성이 있을 때, 외적

인 매력에 있을 때, 그리고 연령,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적성, 능력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⁹³⁾

특히 초대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나타났던 성경속의 소그룹⁹⁴⁾을 살펴 보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암묵, 예배, 공동체적 교제, 전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4가지의 요소를 본고는 교회성장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소그룹의 구성요소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암묵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혀 힘썼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힘씀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의 소그룹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는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암묵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히 소그룹 사역에 열심인 교회들은 귀납적인 성경연구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관해 진술한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회복된다. 이 방식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건전한 교리에 기초한 신앙을 갖도록 하며, 자신이 신봉하는 신앙의 핵심을 실행에 옮기게 해 준다.⁹⁵⁾

소그룹 성경공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각자가 발견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처법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각자가 자기 생활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생활을 다 열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사된 자기의 삶의 진실을 서로 진실하게 나누는 데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공부 방식은 칸스 뤼슬리가 사용한 플레스 미팅에서 볼 수 있는

93) 김정훈, "장교적 소그룹을 통한 교회개관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원, 1987), 17.

94) 참고, *개혁 개혁신앙 심우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사도행전 2장 42-47절.

95) K. Arthur, *귀납법적인 성경연구방법*, 김정섭, 직복순 역 (서울: 프리셀드, 1987), 9.

데, 그가 제시한 방법론을 보면, 첫째, 사람들은 민주일어 한번 만나 그들의 실수를 고백하고,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둘째, 한 그룹의 인원은 5명-10명 정도가 좋다. 셋째, 찬양과 기도로 모임은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각 구성원들은 지난 시간 이래로 그가 겪었던 시험과 구원의 손길들에 대해 서로 나눠야 한다.⁹⁶⁾ 이처럼 소그룹의 성경공부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 있지 않고 서로의 삶을 진실되게 함께 나누는 데 있다.

나. 예비

앞에서 칸스 뤼슬리가 제시했듯이 찬양과 기도는 소그룹 활동의 합좌와 오여가다. 소그룹 모임들이 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주 평범해지기 쉬우며 기독교적인 소그룹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다. 소그룹의 모임에서 이처럼 뤼로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이 예비인 것이다. 초대 교회가 있어서 그들의 예비는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 대한 올바른 반응의 결과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들의 삶에 적용해 갈 때,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지식은 늘어가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도 자연히 이루어져 갈 것이다.

다. 공동체적 교제

열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힘쓰는 압력과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비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리는 교제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속감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에 대해서 갖는 마땅한 의무나 사랑의 헌신과 같은 감정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감정에서 출발된 공동체적인 삶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게 되며 온전한 의성으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⁹⁷⁾ 첫째는 서로 나누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과의 공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서로 통용하는 것이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소그룹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함한다. 즉, 초대교회는

96) Ahland Ann, *소그룹 지도를 통한 심방운동*,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6), 196.

97) Garry Kanne, *개척운동의 시작과 진행*, 임종모 역 (서울: 나침반사, 1986), 43.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 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공동생활에서 과부들과 굶주림에 고통한 형제들에게 기부물 통하여 필요를 서로 나눠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나눔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 온 새 신자들이 사 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라. 전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존지하는 것은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사랑과 능력을 널리 퍼서 사회화 기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분의 통로이다. 초대교회 소그룹은 선행을 행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넘어서 교회밖으로 그들의 열람력을 꺼쳤다.

이와 같은 전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성경으로부터의 비움에 대한 순종과, 자신들이 신앙을 통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이 소그룹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 구성원들간에 사랑, 그리고 나아가 회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 소그룹을 유지시켜 주는 요소들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구성의 요소가 각기 별기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긴밀한 상호 연관성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함하여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2. 로베르타 헤스테베스의 소그룹 구성요소

유명한 소그룹 인도자인 로베르타 헤스테베스는 소그룹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8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좀 더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⁹⁸⁾

위의 정의는 다음의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⁹⁸⁾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은 강요된 모임이 아니다.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을 소개하는 사람은 자의로 결정하여 참여하게 된다. 둘째,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다.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것보다 언어 외적인 것이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모든 의사소통의 90퍼센트는 언어 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소그룹은 '8명에서 12명이 모이는' 모임을 가리킨다. 모임의 인원이 12명을 넘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므로 그 모임은 역동성을 잃게 된다. 소그룹 참가자가 밑급 명이 넘으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는 네 사람의 나누는 등으로 원래 모임을 더 작은 모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저 시간 안에 모임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모임이다. 그룹이 견고하게 된 다음에는 융통성 있게 모임 수 있지만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주 동안에는 반드시 매주 모임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소그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정확하게 명시된 목적이 없는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면 그 모임은 곧 흔들리게 된다. 소그룹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소그룹은 '발견'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그 무엇인가를 얻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구도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한다. 밑급째,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리다.

이상과 같은 소그룹의 개념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정의한다면, 그것은 '소그룹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⁰⁾

98) 채익석, 이상화, *결장관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18-19.

99) 채익석, 이상화, *결장관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19-20.

100) Ibid., 20.

8. 교회에서의 소그룹의 기능

소그룹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만남과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한 방법으로 최선의 성서적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서 참된 심금이 교회 안과 밖에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소그룹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한 소그룹의 기능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갈 수 있겠는가?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교회에서의 소그룹 기능을 그가 주장한 FLOCKS(101) 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¹⁰²⁾

가. 교제(Fellowship)

소그룹이 가지는 강력한 기능중의 하나가 교제이다. 그것은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과도 동일한 것이며 교회의 본질로서의 코이노니아화도 이를 같이 한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현대 교회들이 미하여 필동한 교제를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교회 소그룹에서의 교제는 코이노니아의 경험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종류의 교제로써 사원상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 어떤 종류의 공동체화도 독특하게 구분 짓는 기능을 한다.

교회 소그룹의 영적 활력은 구성된 상호간의 진정한 관심에 근거한 심오한 자원의 영적 교제에 있는 것이다.¹⁰³⁾ 구성된 서로가 자신의 소그룹에서 귀중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서로에 대하여 자신을 기쁨하게 되며, 이처럼 자신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쁨성이 토대를 둔 교제에서는 소그룹 모임이나 기타 형식을 갖춘 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형식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구성된 전체 또는 일부의 식사, 캠프, 다과를 나누기 위한 방문, 구성된 상호

101) FLOCKS란 소그룹의 기능을 기억하기 쉽게 명어의 단어 첫 글자를 합성시킨 것으로 Fellowship, Leadership, Outreach, Care, Knowledge, Salt 등을 가리킨다.

102) 박명원, '가정 셀 그룹 교회에서의 셀 그룹 구조와 기능,' *복음파 살론*, 1994년, 153-66.

103) John MacArthur, *삼부리 모방론*, 정의성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총연합회, 1987), 19.

간의 품앗이, 소그룹이 함께 사회봉사의 기회를 갖는 것 등과 같은 일들이다.

나. 지도력 기원(Leadership)

소그룹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구성원들의 지도력을 기원하는 데 있다. 이 말은 소그룹 구성원들 중 특정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지도력이 기원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소그룹 교회가 굳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구조를 추구하는 이유도 바로 모든 교인 각 사람을 지도자와 사역자로 기원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구성원의 지도력 기원은 원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소그룹을 통한 지도력 기원의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은 소그룹 자체의 계속적 분열을 목표로 또 다른 지도자를 기원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그룹 교회들은 각 소그룹의 지도자에게 예비 목자들 훈련시킬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리아더는 새로운 목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모든 목자들의 일차적 책임'이라고까지 말한다.¹⁰⁴⁾

이러한 인련의 훈련은 목자가 사역하는 모든 것을 인련이 볼 수 있도록 그룹 함상 동반하는 일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사역에는 그룹 모임을 계획, 불신자를 방문, 지도 소그룹이나 취미 활동 그룹에 들르는 일, 지친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룹원의 양육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¹⁰⁵⁾

다. 전도(Outreach)

교회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소그룹이 사용하는 전도 전략 중 다른 전도방법과 독특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대상자에 대한 그룹방식의 접근이라는 점이다. 전도 소그룹이 구도자를 접촉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세 사람이 같이 한 구도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전도를 위한 계획을 함께 구상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있다. 중요한 점은 전도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미리 복음을 소개하는 서두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04) MacArthur, *삼부리 모형론*, 33.

105) Ralph Naver, *센리야*, 박영환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68.

어느 때인가 전도대상자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전도 소그룹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구원 간증을 조심스럽게 나눔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 마지막 준비를 한다. 그가 복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복음에 대해 갈급함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소그룹을 통한 전도의 방법이다.

빌 홀(Bill Hull)은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일에 자주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실패의 원인이 주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자를, 곧 지생산 할 줄 아는 제자들을 비출려 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¹⁰⁶⁾

지생산이단 구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기본 전략이라는 점에서 소그룹에서의 전도 소그룹은 그와 같은 열매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 여겨진다.

라. 돌봄(Caring)

소그룹이 가지는 또 다른 독특한 기능은 구성원 각자에 대한 기별화된 돌봄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리아더는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세상에 구세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였다고 말한다.¹⁰⁷⁾ 나아가 그는 돌보는 일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한다.¹⁰⁸⁾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둘째로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일, 셋째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상담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훈계하고 충고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이 없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사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양육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구체성이 결여된다면 실질적인 기쁨이나 의존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짐으로써 양육인에 대한 피양육인의 신뢰 및 기대감과 지도력 인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양육이단 사랑의 콘택스트

106) Bill Hull, *목회자가 깨닫아야 할 교회가 산다*, 박정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17-18.

107) MacArthur, *삼부리 모형론*, 75.

108) Ibid., 75.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물론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기인의 영적 성장과 양육사역을 목표로야만 한다. 주님을 영접한 새 신자가 그의 영적 순례의 길을 걸기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밀면의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밀면이 안내하고 도화주는 밀이야말로 제자로 성장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성장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 성경 공부(Knowledge)

소그룹으로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룹 다이내믹스가 성경공부에 적절히 활용되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인의 삶에 연관되도록 돕고 훈련시킨다는 의미이다. 소그룹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모든 소그룹 활동의 중심이며, 아울러 이것은 기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의 성경공부는 양보할 수 없는 결정적 요소인 것이다.

또한 소그룹에서의 성경공부는 특정한 교지를 사용하되 주중에 각자가 공부하면서 받은 축복을 나누는 밀과, 지난주일 목회자의 설교를 적용중심의 토의형태로 진행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치는 동시에 추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중심의 토의만을 행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성경공부는 기인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경건 서적을 읽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밀은 소그룹의 목자나 밀대밀 관계의 양육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바. 봉사(Salt)

소그룹의 또 다른 기능은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기원하도록 하는 데 있다. 소금이 짠 내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소그룹은 구성원들에게 섬기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그룹을 통한 섬김의 사역은 교회 내에서의 경우, 각종 봉사를 소그룹별로 감당

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후의 식사를 소그룹 별로 당번을 정하여 담당케 하거나 청소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섬김은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필요를 돕고 충족시켜 주는 것 등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특별히 교회 밖을 향한 섬김의 기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밀은 사회의 어떤 필요에 대해 소그룹 단위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그리고 지적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의 기회는 늘 교회에 다 미칠 것이 아니라, 소 그룹별로 자주 가정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생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밀에 있어서 소그룹은 그 크기나 결속력 때문에 전체 교회보다 기동력이나 융통성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교회와 소그룹의 기기의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을 해야 할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밀려로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정의, 환경문제, 성도덕, 청소년문제, 농촌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문제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다.

제 2 권 전도 소그룹을 통한 교회성장

여기서는 소그룹을 원저적으로 교회성장과 연결하여 전도소그룹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해오던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전도소그룹을 통해 점점게 믿음생활을 하는 동시에 한자씩 교회성장을 이루는 제자를 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적 코드가 맞는 리포트들 통한 목회사역에 대해 생각을 가져 보고, 한국에서 최초로 목회현장에서 리포트 기념을 도입, 적용한 바 있는 새 안산 리포트교회-현지는 안산 땅의 교회로 기념-의 사례를 보면서, 리포트목회의 가능성이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전도에 대한 오해

가. 전도는 나와 '관계없었던'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행한 전도의 방법은 거의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도였다. 성령으로 감동된 헌신된 교인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던 '전도특공대' 역시도 전도지나 후보를 통해서 낯선 사람이나 관계가 전혀 없는 아파드를 찾아다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NCD의 조사를 토대로 설명한 바 있지만, 전도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관계가 있는 친구나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선후비 등을 통해 교회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⁹⁾ 더구나 요즘 낯선 사람에게, 그것도 사전 예고 없이 무례하게 방문한 불청객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 소그룹을 통해 전도대상자를 공동으로 경하고 기도하면서 의도적, 적극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는 가운데 끈질기고도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NCD는 강조하고 있다.

나. 전도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논리적으로 성경말씀-복음-을 증거하여 전도대상자를 감동시키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하도록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이는 대중전도 집회와 개인 전도방법 모두에 있어서 하나의 불문유처럼 전례처럼 내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전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경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특별한 전도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전도기술훈을 습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¹¹⁰⁾

그러나 NCD는 전도의 효용성 측면에서 축회 전도나 밀회성 복음제시 보다는 전도 소그룹을 통해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대상자의 필요를 채워 주고, 나아가 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전도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인 복음제시보다는 전도대상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실천이 그를 교회로 이끌어 내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¹¹¹⁾

109)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이야기* (도서출판 NCD, 2006), 41.

110)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목회한다*, 18.

111)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이야기*, 42.

다. 전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한번에' 하는 것이다

밀한적으로 전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를 받아서 한번에,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불신자에게 전도지를 읽어 주거나 전도집회에 참석시키면, 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입되어 단번에 회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²⁾ 때문에 전도를 한다고 하면 단 한 번의 시도도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믿게 된다. 그러나 NCD의 설문 조사 결과, 밀한적으로 7번 이상의 진지한 초청이나 전도를 받았을 때, 전도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 졌다.¹¹³⁾ 그러므로 전도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로 기정하는 작업을 선행하듯이, 복음이라는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전도라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과 도움을 주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서로의 관계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과정 전도'의 방법이다.¹¹⁴⁾

그러나 이거의 전도방법은 옥토를 먼저 만들기 보다는 엉망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NCD는 강조하고 있다.

라. 전도는 혼자서 밀대밀로 하는 것이다¹¹⁵⁾

전도는 밀대밀로 하는 것보다 덩으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다. 전도 소그룹의 핵심은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을 때도 혼자보다 여럿이서 함께 도우며 밀할 때 힘들지 않고 효과적이듯 전도도 똑같다. 관계를 맺고 사랑과 섬김으로 옥토를 만들 때도 혼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관계를 맺을 때, 불신자의 마음이 더 빨리 열리게 된다.

사실상 불신자를 입장에서 한 사람의 전도자가 접근해서關懷 주고 전도하면

112)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목회한다*, 17.

113)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이야기*, 44.

114) Ibid., 44.

115) Ibid., 49-50.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섬겨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 공동체를 교회로 보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친해지는 동안 불신자들은 교회공동체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점차 없어지고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교회까지 오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므로 전도는 혼자서 밀대밀로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섬기고 관계를 맺어서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사귀게 해 줘야 한다.

2. 전도 소그룹 5단계-제자를 교회로 중심으로

NCD의 전도 소그룹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모든 건강한 전도 소그룹에는 전도와 번식을 경험하는 4가지의 공동된 순환주기가 있는데 기도하기, 관계 세우기, 함께 추수하기, 번식하기가 그것이다.¹¹⁶⁾ 다음은 한국 NCD의 교회성장 모델로 자주 소개되는 한편, 역동적인 전도와 번식을 일으키는 전도 소그룹의 실행을 제자를 교회의 전도 소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가. 기도하라

1단계는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단계다. 우리가 돕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초청을 하면 전도하려는 대상자가 인정상 한두 번은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들이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생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전도대상자의 영혼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위한 기도 문화가 자리잡을 때 그 교회는 불신자를 위한 문이 열려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부흥한다.¹¹⁷⁾ 간혹 성질이 급하거나 행동적인 교인들이 이 불신자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행동만을 앞서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가 없다. 초청감치까지는 아는 사람이라도 몇 달 더리고 물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교회에 정착시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에서 팀원들은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난 후, 서로의 기도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이를 서로에게 확인하고 나누면서 기도를 쉬지 말고 전도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116)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목회한다*, 22.

117)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이야기*, 121.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 밀대밀 관계를 세우라

2단계는 전도대상자 중 1-2 명을 만나서 관계를 세우는 과정이다. 소그룹 예비에서 2단계를 시작할 때, 반드시 1단계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도 되고 다음 과정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기회도 된다. 그 다음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가능한 전도대상자가 정해지면, 팀원들은 각각 전도대상자와 최소한 1주일에 1번이라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¹¹⁸⁾ 이것이 곧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인데 이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다.

2단계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실천한다.¹¹⁹⁾ 첫째는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영화나 연극 관람도 하고,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도 하고 가족끼리의 만나기도 한다. 즉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관계를 세워 가는 것이다. 힘으로는 전도를 하지 않지만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도 농사의 한 과정이니 만큼 만나는 것도 분명히 전도의 한 과정이 됨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따뜻하고 친절하게 또한 칭찬과 격려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세워 나가도록 노력한다.

둘째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다. 찾아 보면 도울 일이 많이 있다. 큰 도움보다는 마음이 담긴 작은 도움들이 그들을 감동시킨다.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갈 때 운전을 해 준다든지,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다른 자녀를 돌보아 준다든지, 짐치를 담아 나누어 준다든지 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쌓아 가는 것이다. 핵가족 시대의 현대인들은 바쁜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요즈음은 아이들의 옷이나 신발, 장난감, 책들이 너무 비싸고 금방 작아져 못쓰게 된다. 이러한 것들도 교회나 소그룹 내에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서로서로 나누어 주면 금방 가까워질 수 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중한 우정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가라는 것이다. 참되고 진실 되게 사귀며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118)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이야기*, 122.

119) Ibid., 123.

있도록 그들의 감정계좌를 사람으로 채워가야 한다.¹²⁰⁾ 아울러 소그룹 팀원들은 적도 대상자를 상대로 언제 어떻게 만나서 구체적으로 관계를 세워 나갈 것인지를 서로 발표하며 협력을 준비해야만 한다.

다. 전체 소그룹에서 함께 관계를 세우라

3단계는 함께 관계를 세워 가는 과정이다. 2단계에서는 적도대상자와 밀대밀로 만나서 섭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소그룹원이나 교회 성도 중에서 자신의 적도대상자와 연관이 있는 성도와 함께 만나서 섭기며 관계를 갖는 것이다. 섭기고 돕는 데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쉽고도 효과적이다. 이때 함께 가는 성도는 될 수 있으면 적도대상자와 어떠한 것이라도 연관이 있어서 한 번 만나면 금방 대화가 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다. 가령 예를 들면 고함의 갑대든지,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자녀의 학년이 같아도 좋고, 남자들이면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군복무 경력, 학교 등 어떠한 것이라도 연관이 있는 성도와 함께 가면 금방 친구가 되고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섭겨 주면 대부분의 적도대상자 들은 감사히 하며 서로 확실한 관계를 세워 가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적도하려고 성급하게 서두른 것은 없다.¹²¹⁾

확실한 옥토를 만들기 위해 한 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만나고 돕고 교제하면서 친첵히 친첵한 친구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적도하는 사람이나 적도대상자도 너무 즐겁다. 득불장군식으로 혼자 찾아가 길가나 돌밭과 같은 마음의 낯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며 함께 마음을 터놓고 서로 도와주면 적도가 고되거나 힘들지 않게 된다. 내심 적도를 하려는 목적은 있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는 않으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친첵하고 따뜻하게 필요를 채워줄 일이 있으면 기꺼이 채워 주는 것은 우리의 밀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부담 없이 활아들이며 고마워하고 감동할기 때문에 적도가 부담되거나 어렵지 않다.¹²²⁾

120) 정진우, *적도소그룹이 목회관우*, 26.

121) 김동현, *제자들교회 적도소그룹이야기*, 124-125 절리.

122) Ibid., 126.

라. 초청을 준비하라

여기서도 역시 먼저 3단계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결과가 어뵤는지 돌아가며 발표한 후에 4단계를 시작한다. 4단계는 다음 단계에 있을 목장 초청관치를 준비하는 단계다. 그동안 관계를 세워왔던 적도대상자들을 소그룹 모임에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른 바 '열린 소그룹예비' 를 드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 관계를 세워어도 불신자들에게 직접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관 안 나오고 부담스러워 한다. 어쵸면 지금까지의 좋은 관계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경점다리로 각 소그룹이 초청해서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경점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 4단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다음 2가지다.¹²³⁾ 첫째는, 초청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과 섭김을 소그룹 모임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점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공동체다'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이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점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원제하게 섭김을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섭긴다. 또한 찬양과 초신자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 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초청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 간첵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장 초청관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4단계에서는 소그룹 리더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장 초청관치의 장소와 시간, 준비할 사람 등을 토의하며 준비할 것을 분담하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초청할 적도대상자를 만드시 찾아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경중하고 자연스럼게 부담 갖지 않도록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섭김을 쵸서 준비해야 할 것은 간중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목장 초청관치의 섭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123) 김동현, *제자들교회 적도소그룹이야기*, 128.

마. 목장초청잔치

저도 소그룹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단계가 바로 목장초청잔치다. 이는 그동안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을 들인 저도대상자가 교회에 나와 믿음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4단계 동안 기도하며 섬겼던 저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공동체로 초청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¹²⁴⁾ 사실 불신자들은 교회나 교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보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거의 모두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목장초청잔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사랑의 공동체요,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잘 보여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한다. 그리야만 교회까지 순순히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목장 초청잔치는 원저희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준비하고 진행해야만 한다. 먼저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여자 목장은 주로 점심때, 남자 목장은 주로 밤 시간에 하게 된다. 장소로는 주차를 하기 쉬운 아파트 같은 곳이 가장 좋다.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면 4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목장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초청할 저도대상자들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초청하게 된다. 그리고 5단계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초청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준비를 하고 실행하게 된다.¹²⁵⁾

(1) 장식

초청잔치가 열리는 장소-주로 아파트의 거실-을 청소는 물론이고 아담답게 꾸민다. 출입문과 벽에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문구와 여러 모양의 장식을 하고 꽃꽂이와 화분 등을 교회나 다른 가정에서 빌려오기도 한다. 교회에서는 식사 현수막을 목장마다 제공하고 천장에 초청된 불신자들의 이름을 적은 종선 등으로 장식을 한다. 초청잔치에 참석하는 저도대상자들은 가볍게 식사나 하고 이야기나 나누려

124) 김동현, *제자들교회 절도소그룹이야기*, 129.

125) Ibid., 130-137에 나오는 제자들교회의 목장초청잔치를 정리해 둔 것임.

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경성스럽게 장식된 모습을 보고 자신을 환영하며 경성을 쏟은 장식이 감동을 받는다. 이러한 장식같은 일은 드레스디야스를 경험한 교인들의 경우 아주 효과적으로 능숙하게 준비할 수 있다.

(2) 식사

초청된 저도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오고 막대한 시간이 되면 한두 명 정도가 아직 안 왔더라도 식사를 시작한다. 식사를 준비할 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내용이나 양보다는 감동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풍성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간단하나마 경성을 다해 자려 놓은 음식을 보고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주로 김밥, 샌드위치, 초밥, 약밥, 떡 종류, 각종 과일, 주스, 다양한 차 등으로 준비하되 예쁜 작풍처럼 모양을 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목장 식구들은 모두 주인의 위치에서 저도대상자들의 식사를 돕는데, 초청된 손님들이 마음껏 감동하며 식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주도록 한다.

(3) 게임 및 노래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졌을 때에 바로 게임에 들어간다. 식사를 빨리 마친 손님들이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아직 식사를 다 마치지 않은 사람이 조금 있더라도 게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도록 하여 최대한 기다리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게임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서너 가지 정도 준비한다. 그리고 그리 미치지 않는 생활필수품이나 신앙용품들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다가 미리 보여 주고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여 마지못해 따라하던 사람들이 한두 번 하고 나면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삼까지 타게 되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진다. 이때 목장의 기존 식구들은 함께 게임에 참여하면서도 최대한 초청된 분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노력한다.

게임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하나가 되면 이제 노래를 부른다. 주로 찬양이지만 불신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 관한 전전 가요를 불러도 좋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노래를 몇 곡 더 부르자며 분위기를 유도한 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나 '졸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신', '축복송' 등을 10

여 분 부른다.

(4) 간증

이날의 핵심은 역시 간증이다. 먼저 간증자를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온 지 1년 이내의 객분이 없는 성도들을 뽑는다. 무엇보다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첫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좋다. 이처럼 간증자 선정에 특별한 마음을 쓰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간증하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잖구나' 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다.

간증자는 간증문을 반드시 기록하게 한다. 시간도 5분에서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직접 쓴 간증문을 사전에 목사에게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10분을 넘게 되면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불신자들은 지루해하게 된다. 그리고 간증의 내용들은 사실 특별한 것들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소지를 찾아 예수 믿고 달라진 평범한 자신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를 기르며 살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늦게 되곤 해 도회주지 않는 남편이 밍고 원망스러웠지만, 예수 믿고 나니 감사로 바뀌게 되고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생겨서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등의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간증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고 훨씬 더 공감을 하게 된다. 소그룹원과 간증자들은 간증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목자의 축복기도

간증을 마치면 즉시 목자가 마지막으로 축복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초청된 불신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식구들과 하는 일을 위해 복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준비된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더 이상 뭉들이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배웅을 한다. 더 지체하면 할수록 은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임에 대해 어떡했느냐고 물어볼 것도 없다. 선물 안에는 예쁜 카드에 축하의 말들이 정성껏 적혀 있다. 집에 가서 선물을 뜯어보며 카드에 담긴 사랑의 말이 한 번 더 감동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 후 그들을 다시 한 번 찾아간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사들이 쏟아진다. 감사와 감동의 말들과 더불어 이전에 가졌던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견도 털어놓게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결심을 드러내게 된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것처럼 친절하고 포근하다면 나도 교회에 다니겠다.'

초청된 불신자들은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으면서 기존성도들의 표정을 살핀다. 그들이 은혜받는 것은 초청관치의 내용보다도 성도들의 찬사같은 표정과 사랑의 섬김 때문이다. 결국 사람에게서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마자가지로 사람을 통해 감동과 은혜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는 언저나 미소를 머금은 표정관리가 중요하다.

이상은 한국 NCD협회가 추천한 모범사례로서 '제자들교회'의 저도 소그룹의 활동 및 저도방법이다. 본 논문의 저자는 제자들 교회의 소그룹 저도방법을 참고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 교회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회 교회는 언저나 교회의 문화 속으로만 사람들을 끌어 오려고 하는 것일까?'

고기를 잡으려면 강이나 바다로 나가야 하듯이, 많은 양을 찾기 위해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관계의 친밀함을 발전시키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관계성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동교회 활동'이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으로 각광받고 있는 동교회 활동은 대개의 경우, 워미 내지는 레포즈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들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건전한 동교회들 만들고, 이들 지원하고, 선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증거운 저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제 4 장

전도 소그룹으로서의 레포츠 선교팀

앞서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현대세계의 주도적인 문화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세상의 중심자들과 구도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성장하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소그룹 주도화 교인관리에 역점을 두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본 장에서는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코드와 교회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강력한 교회성장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한다.

제 1 절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화코드와 교회문화의 접목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코드를 교회문화에 접목시키려고 할 때,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 다음의 세 가지 코드를 교회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 진다.

1. 건강의 추구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거대한 관심중 하나가 건강문제에 귀결되어 있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만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밍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의식주 하나하나에도 몸이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을 따져 가며 선택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작자 건강에 좋은 식재료, 의복, 가구, 건축재료를 연구 개발해 내면서, 자신들이 출시한 제품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를 선전하는데, 많은 정미와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있으며, 삶의 증거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포츠 활동'등에 동호인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도적어도 이러한 포스트모던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맞춘 새로운 감각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2. 친밀성의 증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위로부터의 권위와 명령, 집단적인 규제와 소속감을 거부하면서도, 취미와 뜻이 같은 동류집단과의 친밀성 및 헌신도는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해야 할 수 없이 다양한 동호회 그룹들을 생생히 내고 있는 배경일 것이다. 이러한 밀연의 현상들은 창조 이래로 변함없이 사회적 동물인 현대인이 오늘날 그들의 삶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친밀성이 고도로 강화된 소그룹 활동들이 잘 기뻐지고 준비된 교회들이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교회가 등록한 교인들이 오래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해서'이다.¹²⁶⁾

3. 역동적 증거음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과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지를 잘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TV나 매체들을 통해 보이는 광고들이다. 현대 광고의 특징은 진지함이나 심각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감각적인 재미와 증거음을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순간적인 판단과 흥미

126) 연동교회 2000-2006년 새 가족 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900명의 새신자 중 남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퍼센트가 '새 가족에 대한 교회의 관심부족'을 꼽았다.

유란이 광고를 기뻐하는 주안점이다. 심지어 TV광고의 경우 단 몇 초안에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광고는 효과에 있어서 실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즉 주저움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는 것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생활 및 관심의 패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 및 제도적 접근도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심분 이해하면서 수립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주저움과 흥미를 느끼는 것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는가? 물론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레포즈 선교팀'의 운영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 중에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코드를 읽고 건강함과 친밀성, 그리고 역동적인 주저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레포즈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를 알아 보는 한편, 이러한 방향성이 교회성장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다.

제 2 절 국내 레포즈 교회의 한계-안산시 품의 교회들 중심으로

현재까지 한국의 교회 중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삶의 현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레포즈' 기념을 실재로 목회 속에서 응용하려고 시도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안산 '품의 교회'-이전 명칭은 '새 안산 레포즈교회'-가 유일하다. 비록 지금은 교회 명칭을 바꾸었지만, 이전 교회의 명칭에서 보이듯이 이 교회는 레포즈라는 기념을 목회 속에 들여오는 국내 최초의 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우 유명한 교회가 되기도 했다.

품의 교회의 처음 명칭은 '새 안산 교회'(1998)로 당시 안산시 본오동에서 4명의 신자로 계획된 교회인데, 2000년 현재의 신도시 종교부지(안산시 고잔동)로 이전해 오면서 교회명칭을 '새 안산 레포즈교회'로 기명하면서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당시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시설 속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만드는 등 상당히 신선한 목회 감각으로 주변의 시선을 끌어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2006년에 교회명칭을 '품의 교회'로 다시 기명했는데, 이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미적에 입각한 결정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레포즈목회의 한계성을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목회적인 방향 전환을 한 것이기도 하였다.¹²⁷⁾ 그렇다면 새 안산 레포즈

교회의 레포즈목회 실험은 어떤 면에서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1. 레포즈를 통한 불신자의 유입이 저조하다-어쨌든 교회 아니냐?

새 안산 레포즈교회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6년 동안 레포즈목회를 실험했다. 교회 안에 수영장을 만들고 헬스장을 구비하는 환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시설이용비는 주변의 레포즈 시설보다 50퍼센트 저렴하게 책정했으며, 교회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약 6년 동안 5,000명 가까운 불신자가 회원으로 등록하여 교회의 레포즈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교회는 불신자 회원들을 '레포즈성도'라고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레포즈시설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는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다. 5,000명의 회원 중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불신자는 약 200명으로 4퍼센트 정도의 제도성공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인천 주안교회 총동원 제도주일의 제도성공률의 평균치 70퍼센트¹²⁸⁾를 한참 밑도는 실패스런 수준이며, 밀탄교회의 총동원 제도주일의 제도성공률의 평균치인 15퍼센트¹²⁹⁾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다.

감각적이고 앞서가는 목회방법에도 불구하고 품의 교회-당시의 새 안산 레포즈 교회-가 레포즈를 미기로 한 제도활동에 있어서 이처럼 저조한 제도실적을 보인 이유는 분명하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유인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교회로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의 레포즈 시설은 이용비가 저렴하고 부담이 없으므로 이용은 하되, 그 맘은 레포즈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로 유입되는 경우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127) 김학중 목사와의 방문 인터뷰, 2007년 2월 20일.

128) 인천 주안교회(나경민 목사 시무)의 1996-2006년 동안 총동원주일 통계치. 주안교회의 경우 총동원제도주일 이전, 이후에 각각 목사강함이 5번씩, 총 10번 이루어지는데, 봄가을에 걸쳐서 약 20번 정도 교구목사의 강함을 받게 함으로써 총동원제도주일의 성공률을 한층 높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129) 한미준-한국전법, *한국교회 사례리포트*, 140.

2. 관계성의 요구에 대한 부담감

교회의 레포츠키셀을 이용하는 불신자들-레포츠키셀-은 대체로 오랜 동안 멤버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¹³⁰⁾ 왜냐하면 레포츠키셀을 통하여 교회의 등록시키려는 교인들의 열정적인 전도경쟁 때문이었다. 교회의 레포츠키셀을 이용하는 자들도 부담이 되었는데, 교회의 등록까지 시키려고 의식적으로 접근해오는 교인들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신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외부에서 하는 것이 더 쉽고 불신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불신자들과 처음 관계를 만들어 갈 무렵에는 가급적 전도의 의도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한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레포츠키셀을 이용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의도가 너무 쉽게 노출되어서 오히려 전도를 위한 관계형성이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새 안산 레포츠키셀은 2006년부터 아예 교회명을 '꿈의 교회'로 기명하면서 목회방침에서 레포츠키셀을 삭제하고 그것을 다만 상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8. 레포츠키셀 기념을 통해서 안산 '꿈의 교회'가 누린 효과

오늘날 꿈의 교회가 이룩한 교회성장은 그 속도면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수준이다. 1998년에 4명으로 기적한 교회가 2007년말 현재 주일출석하는 장년만 12,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것은 2000년에 안산시 고장동의 종교부지로 이사하면서 레포츠키셀이라는 신기명으로 목회방침을 세우고 성장연전을 가동했을 때, 그 성장의 추진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과 빠른 속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이전의 해인 1999년의 장년출석인원이 1,000 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무려 8,000 으로 급속히 증가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레포츠키셀을 통한 전도는 상당히 미미했으나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신선한 환상과 감각적인 목회방법의 구상 자체 만으로도

130) 5000명의 레포츠키셀들은 평균 2개월 정도 멤버십을 유지했다. 2007년 2월 꿈의 교회 레포츠키셀 인터뷰.

교회성장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보여진다.

실제로 '새 안산 레포츠키셀'로 교회기획 2기를 맞아 한참 열심히 교회성장을 위한 전도의 노력에 학자를 가하고 있던 2000년 당시, 교회 안에 레포츠키셀을 갖추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교회홍보가 되었으며, 주변교회로부터 교인들의 수령이동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현지 꿈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학중 목사에 의하면, 당시 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이 매우 쉽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교인들은 전도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도 힘든 복음이나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어요'라는 한마디 말로 엄청난 전도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³¹⁾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레포츠키셀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당시 꿈의 교회로 하여금,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켜어 있는 교회, 보수적이지 않고 열려있는 교회, 대중적인 교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교회의 성장모습이 다음의 표에 잘 나타나 있다.¹³²⁾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과거의 전통적인 목회기법에서 답답한 새로운 환상까지 만으로도 이와 같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레포츠키셀의 구상을 적극적인 목회기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실천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 성장의 효과는 이보다도 훨씬 빠르고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 8 절 전도 방향의 전환-레포츠키셀 선교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산 꿈의 교회가 명목상으로는 '레포츠키셀'을 전면어 내세우고는 있지만, 레포츠키셀 활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방향성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³³⁾ 전도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전략은 올바르게 세우긴 했지만, 결국 전도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이제까지 교회들이 시도하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기 때

131) 꿈의 교회 인터뷰, 2007년 2월.

132) 참고, 부록 1.

133) 새 안산 레포츠키셀의 레포츠키셀을 통한 새 신자 등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교회에 등록된 3000명의 새신자중 불과 0.5-0.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문이다. 교회 안에다 수영장 및 헬스시설을 갖춰 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회의 체육 시설에 미하면 시설의 규모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공공 체육시설에서도 비용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현실에서 굳이 교회라는 부담스럽고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회원이 될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교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고 교회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안산 땅의 교회의 성장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 교회의 성장이 불신자들이 대한 주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타교회에서 이전 해오는 신자들의 수평이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대형교회들에서 두드러지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안산 땅의 교회역시도 독특한 목회마인드인 기인한 대(對)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특별히 누렸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교회는 이제까지 기독교의 문화내지는 그 내용 속으로 세상 사람들을 손짓해왔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주도방법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패턴은 주도를 위한 모든 행사들이 언저나 판이 확은 듯이 교회 예비당안에서 실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낯설음과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¹³⁴⁾은 미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갖는 경서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오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를 확립하자'는 섹폭한 안티 기독교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적반하장적인 사회 경서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모든 교회들이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해도,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대중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주도 프로그램 내지는 집회를 열어 보지

134)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 봉사하러 갔던 분당 샘물교회 소속의 젊은이 23명이 이슬람 극우파인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두 명이 처형되고 나머지 21명은 40여일 만에 귀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안티 기독교 운동이 표면화되고 본격화 되었다.

만, 사실상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오기 보다는 타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비밀 미지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의 주도방법이 달라져야만 한다. 방법뿐만 아니라 방향도 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낯선 세상의 문화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셨듯이, 교회도 이전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제들과 친구가 되고 제들을 만나주고 교제하면서 목적이 있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의 저자가 서울 연동교회에서 처음 구상하여 실시하고, 동천교회에서 목회의 주력 마인드로 양성하고 있는 레포츠 선교팀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문화적 코드화도 잘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황금어장인 사회화 문화를 함하여 주도의 방향성을 지킬정할 수 있고, NCD에서 강조하는 주도를 위한 적극적인 관계형성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인들 입장에서든 전통적으로 답답한 교리적인 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보다는 회의식¹³⁵⁾없이 인간의 기본 욕망 중에 하나인 놀이문화 속에서 목사의 지원을 받으며 즐겁게 교제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 주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 설명 없이도 단순히 함께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주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교인들에게 주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5) 보수적인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놀이 및 유희와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회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레포츠평의 운영과 교회의 변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레포츠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레포츠평 운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레포츠평의 활동내역 및 지도성과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레포츠평이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제 1 절 목회자의 강력한 확신과 비전 제시

동물에게 있어서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본능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인간은 철학과 사상에 의하여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본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선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1 세기가 열리면서 들어 다채롭고 다양한 열풍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이 호소하는 것은 현대사회 속에 험담하는 수많은 광고들의 가장 강력한 노점수이기도 하다. 우물쭈물하고 싶고, 더 낫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들은 사실상, 모든 인간들의 사고의 지층을 형성하는 본능이다.

이러한 이치는 목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보여진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인간의 본능의 단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낫고 싶은, 열렬히 낫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사람들을 하여금 교회에 찾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인간의 열적-내면적-인

본능을 자극하면서 기독교 홍보라든가 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본고가 주장하는 레포츠평도 사실은 이러한 본능의 기반위에 서있다. 밀집이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인 요한 후이징하(Johan Huizinga)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대한 한 연구*에서 '인간은 유희의 동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³⁶⁾ 그는 이 저서에서 '놀이하는 인간'을 말한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사회화되고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성장과 계발을 하게 되고 사회화가 완성된다는 것이다.¹³⁷⁾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놀이문화의 가장 가치적인 형태가 바로 레포츠평 동호회 활동이다. 나아가서 이 동호회의 멤버십은 웅만한 사회 조직보다 강력한 유대감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참여와 클럽형 소규모 관계-미니아-를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코드와 취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2006년에 동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기 전, 연동교회에서 약 8년 동안 레포츠평을 운영하면서 레포츠평을 통한 지도마인드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10년여에 걸쳐서 지도-새 가족부 사역만 전문으로 해 오던 저자에게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지도는 결국 만남의 문제다. 교리를 설명하든, 교회를 소개하든 간에 우선은 만남이 전제될 때 지도가 되는 것이다. 강력한 열성을 가진 성도는 밀집적 만남에서도 지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는 NCD가 강조하는 것처럼 만남의 반복 속에서 생기는 관계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도는 목적이 있는 만남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만남의 목적이 미리 간파될 때, 지도를 위한 관계형성은 저음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를 위한 만남은 자연스럽게수록 좋으며, 가끔적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과 지도대상자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일수록 적합한 환경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레포츠평 활동을 하는 장소만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쉽고, 관계형성하기 쉬운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자는 연동교회에서 8년 동안 레포츠평을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레포츠평을 통한 지도에 눈을 뜨게 되었고, 더구나 이러한 지도방법이 이제껏 경험해보던 지도보다는 훨씬 쉽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136)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대한 한 연구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김윤수 역 (서울: 까치문화, 1998), 23.
137) Ibid., 24-25 참고 정리.

되었다.

저자가 2006년에 서울 중랑천변에 위치한 동천교회로의 부임을 결정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교회가 레포츠목회를 하기엔 이상적인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랑천 주변은 각종 레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었고, 도봉산이나 용마산도 지척에 있었으며,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했다. 둘째로는 교회 청빙위원들이 목사의 레포츠목회철학을 수용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목회철학이었지만, 이것이 청빙위원들로 하여금 교회성장을 위한 엄청난 지리적 이점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에 이러한 목회적 구상들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교인들의 거한적인 생활수준이 아직 먹고 사는 밑에서 여유를 가질 만큼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기획이 되는 대로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쉽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현대교회의 성장에 얼마나 큰 위기이며 장벽이 되는지를 이해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운동하기 좋은 가을이 시작되면서 '중랑천을 점령하자'라는 다소 공격적인 구호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거도를 위한 레포츠목회의 비전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실행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정했다. '더러오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가서 함께 놀아 주세요.'¹³⁸⁾

'물론 시작부터 레포츠선교팀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는 없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시작해야 우리가 내리고 그 조직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선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레포츠 자원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 키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것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 타기', '목사님과 함께 하는 조깅모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도봉산 등경', '목사님과 족구들' 등과 같은 레포츠 모임들을 유도하여 시작하면서 점차로 교회 안에 레포츠모임들이 결성되고 활성화되면서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 이르러 되

138) 이점에 있어선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나가서 놀라고 하면 인간의 본능상, 교인들이 자칫 레포츠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정도의 훈련과 레포츠활동의 목적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하며, 가끔씩 목회자와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

었다.

제 2 권 레포츠선교팀의 조직

여기서는 현재 동천교회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목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포츠 목회의 핵심사역인 레포츠선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레포츠선교회의 조직과 준비, 그리고 예산편성 및 목회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기존 동교회 조직의 경미

예외란 것 없이 각 교회마다 레포츠활동을 즐기는 마니아 그룹은 어디든 있기 마련이다. 동천교회에도 이미 '킥볼(kick ball)팀(족구동아리)'과 '배드민턴팀', 그리고 '바이크(자전거)모임'이 있었다. 그러므로 레포츠 선교팀의 시작은 이들 기존 레포츠 동아리 조직들을 잘 경미함으로써 누구든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담임목사의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담임목사의 성향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목사가 이러한 활동들을 즐기고 좋아해야 적극적으로 득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목사는 아무리 이 목회성과에 대해 확신하고 있어도 추진력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레포츠팀을 목사가 홍보하고 또한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만 있다면, 그 팀은 금방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담임목사가 한 달에 한 팀씩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면, 기존의 레포츠동교회 조직이 후광한 레포츠선교팀으로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서 교회의 레포츠선교팀이 말 그대로 선교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큰 틀에서 각 레포츠선교팀들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하며, 각 팀마다 담당 목회자들을 세워서 레포츠조직이 단순히 동교회화 되지 않게 하고, 진정한 선교팀으로 활거러 나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도와 목적의식의 명료화를 계속 강조해 주어야만 한다.

요즘은 작은 교회라도 전임 전도사나 혹은 교육 전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각 레포츨선교팀들을 관리하고 영적으로 지도해주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 특별위원회 구성과 레포츨선교팀의 결성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조직구조상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경우, 예외 없이 '공동의회-당회-제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교회들 구성하는 각 기관들부터는 각 교회들이 교회의 형편과 시스템에 맞게 자유롭게 조직구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측 교단의 경우를 보면, 제교회가 다시 위원회화 작부, 그리고 각 팀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천교회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먼저 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관리위원회, 예배위원회, 지경위원회, 지단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조위원회로 구성된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레포츨선교팀은 이 중에서 기획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다.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수시로 미팅을 가지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담임목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코드를 맞추는 한편, 각 위원회 및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득하고 이견을 조정하거나 중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기획위원회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전제적이고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모든 제 교회부서들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동천교회의 경우, 기획위원회가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레포츨선교팀을 전 교회차원에서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레포츨선교팀의 팀장들이 모두 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전체를 보는 시야 속에서 레포츨선교팀의 활발한 운영과 지원을 적극 돕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포츨선교팀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선교위원회 산하 국내전도부에서 이루어지는데, 레포츨선교팀은 이 국내 전도부에 소속된 한 팀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편제는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레포츨선교팀을 나름대로 특수화시키고 레포츨선교팀의 리더(팀장)들로 하여금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근거(典據)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레포츨선교팀의 팀장들만큼 담임목사와 많이 만나고 대화들 나누는 교인들은 없으며, 이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의 목회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협조하는 사람들도 없게 된다.

부록 8은 동천교회의 기획위원회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교회가 보고된 레포츨선교팀의 결성에 대한 최초 기안내용이다.¹³⁹⁾

8. 예산 편성

모든 조직이 공식화되기 위해서 꼭 명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조직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연동교회 레포츨팀의 경우는 회원들의 희미와 위촉된 고문들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담임목사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목사의 주도로 기획되고 실행되어 졌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저자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동천교회는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각 레포츨선교팀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금으로써 팀들의 조직이 보다 수월하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레포츨선교팀의 지원을 위한 예산항목은 선교위원회의 국내전도부 내에 소그룹 선교활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해 놓았다. 거기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는 레포츨선교팀의 존속감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레포츨선교팀의 운영이 기대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전도미를 소그룹 선교활동미로 전용하여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처음부터 레포츨선교회의 운영예산을 크게 책정할 경우, 아직 이해가 부족한 함존직들이나 노년층에 속한 교인들의 반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책이었다.

모든 레포츨은 성격이 다르고 장비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밀급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지만, 밀급적으로 구성인원이 약 20명 정도인 레포츨선교팀의 경우 원년의 예산책정은 200-300만원 정도면 무난하다. 물론 다다익선(多多益善)이긴 하지만 예산이 넉넉하면 모든 운영을 교회의 지원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밀 빠진 득에 문 붓기 식으로 되어 자칫 어려운 문제가 봉착

139) 이 기안은 2006년 5월에 당회와 제교회에서 레포츨선교팀 결성에 대한 브리핑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부록 8를 참고하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서 동천교회는 현지 7기 레포즈선교당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으며, 증액이 필요한 만큼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국내전도비 예산 1억5천만원안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

4. 교회의 지원 규정

교회의 레포즈선교당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연성과 더불어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하는 장치가 있다. 바로 레포즈선교당에 대한 교회차원의 지원규정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원규정이 없을 경우, 책정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 각 레포즈선교당마다 모든 장비를 교회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모임에 필요한 비용-예를 들면, 차량세외비, 식음료비, 입장료, 각종 티켓비용 등-을 모두 교회지원에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천교회의 경우, 레포즈선교당의 창단이 모두 담임목사와 긴밀한 협의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단에 필요한 불요불급의 비용, 그리고 전도를 위한 행사비용만 교회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다음은 레포즈선교당에 대한 교회의 지원규정이다.

첫째, 각 레포즈선교당은 창단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구입시 예산을 청구할 수 있다.¹⁴⁰⁾

둘째, 각 레포즈선교당은 전도에 필요한 경우와, 전도활동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때, 이를 근거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각 레포즈선교당은 전도상황의 실적에 따라 차별로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전도실적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교회의 지원은 없으며, 해당 레포즈선교당은 회원들 자체의 회비로만 운영할 수 있다.

넷째, 레포즈선교회 연합헌신대회¹⁴¹⁾는 교회의 지원을 받는다.

다섯째, 각 레포즈선교당의 기본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신청된 예산에 대한 지원 여부는 선교위원장과 담임목사가 최종적으로

140) 참고, 부록 2.

141) 레포즈선교회 연합헌신대회는 현재의 교인여부, 교회등록, 대대헌식에 관계없이 모든 레포즈선교회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동천교회는 교회등록 이전이라도 교인들과 함께 레포즈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레포즈성도'라 부른다.

검토하여 판단한다.¹⁴²⁾

제 8 권 레포즈 선교당의 활동과 미래적 전망

이 부분에서는 레포즈목회의 핵심사업인 레포즈선교당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향후 레포즈목회의 미래적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기로 하였다.

1. 현지 활동상황

동천교회에서는 현지 다음과 같은 팀들이 레포즈선교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족구를 즐기는 키클 선교당, 조깅선교당, 비드민턴선교당, 인라인스케이딩을 즐기는 에스라인 선교당, 자전거 모임인 바이크선교당, 문학기행을 즐기는 시인과 나그네선교당, 사진 및 동영상 제작을 즐기는 포토선교당, 중랑천 클린운동을 벌이는 맑은샘선교당, 등산모임인 산내들선교당 등 총 9기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도 잠거나 바둑모임들이 있지만, 이들 모임은 전도적 목적에 관 부합되지 않는 관계로 선교당에서 제외를 시켰다. 각 레포즈선교당들은 주중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로 금요일과 주말에 집중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초기수를 요하는 레포즈선교당-예를 들면, 바이크팀이나 비드민턴팀, 그리고 에스라인팀은 주중에도 자주 중랑천에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주말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한 것은 동천교회의 경우 지역적으로 레포즈선교당들을 운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관 경미된 중랑천 고수부지와 독항길은 온갖 스포츠 기탄시설물들이 관 갖춰져 있으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친교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곳 만큼 크고 좋은 황금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곳이 황금어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속된 열역일 수도 있다. 실제로 중랑천 일대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수백 기어

142) 예산의 신청내용이 레포즈선교당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가 최종판단의 중요한 근거다. 예를 들면, 그것이 전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레포즈선교당의 운영 및 환경을 위해 불요불급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르지만, 아무도 이곳을 거도의 현장으로 눈여겨보지 않고 있다. 동천교회 레포츨선교팀은 거도의 황금어장인 중앙천에서 주말을 기해 밀착해 모임을 가지고 그 밀대를 점령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주말에는 중앙천 어디든 가든지 동천교회 레포츨선교팀들이 함께 주기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밀단 모임이 시작되면, 함께 운동하자고 데려 온 이웃이나 현장에서 만난 초보자들을 초청하여 기초기술들을 가르치는 한편, 음료수와 간식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함께 레포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물론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라든가, 예수 믿으라든가 하는 등으로 부담을 주진 않는다. 그저 동천교인들과 함께 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환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면 충분하다.

그럼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웃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가? 평균적으로 꾸준히 한 달만 친교를 나누며 함께 운동을 주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게 되고 이미지가 좋게 변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저절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교회에 낯설어 하는 레포츨성도들을 예비로 초청하기 위해 동천교회에는 '레포츨선교팀 연합헌신예비'라는 것이 있다. 최대한 불신자들이 낯설지 않도록 열린 예비로 기획되고, 레포츨성도의 자격으로 예비에 참석하고 특송을 함께 연습하여 부르면서 교회의 첫 예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¹⁴³⁾

2. 미래적 전망과 계획

현대사회의 교회들은 저조한 교회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목회방법론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레포츨선교팀을 통한 거도 및 교회성장의 환성화도 그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성장은 부담을 갖고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거도방법이나 교회성장의 비결이 내 교회에서도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143) 레포츨선교팀 연합헌신예비는 격월로 행해지고 있으며, 준비하는 특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과 같이 밀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찬양을 선곡한다. 그리고 예배시간엔 동명상으로 자신들의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예배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임을 느끼게 하는 한편, 예배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끌어 가준다.

중요한 것은 교회생환의 절적인 문제다. 교인들이 건강한 기쁨과 행복을 맘이 경험하게 될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것이 거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된다.

현재 동천교회의 레포츨선교팀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임자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중앙천 종합 레포츨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동천교회 레포츨선교팀의 회원으로 참가하거나 활동한 모든 회원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물론 교회에선 상당한 수준의 상품들을 걸고 지원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를 통하여 두 가지들 기대하고 있다. 첫째는 활동하다가 뜸하거나 교회등락 후 출석이 끊긴 레포츨 성도들을 다시 규합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중앙천에 교회가 주도하는 영적인 생명의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점차 중앙천밀대에서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천교회의 교인으로, 믿음의 친구로 만들어 나가려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동천교회의 경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문화센터의 조직이 상당히 단단한 면이다. 현재 문화센터 회원은 이 분기 별로 약 650-700 명 정도인데, 앞으로는 레포츨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홍보해서 문화센터와 레포츨선교팀간에 긴밀한 협조 및 유대관계를 갖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 안산 레포츨 교회의 경우, 교회의 레포츨시설을 이용해서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유인하는 거도방법을 택한 것인데 반해서, 동천교회는 밀한인들이 모이는 생환 공간으로 레포츨라는 동결의 문화코드를 갖고 접근하여 함께 주기고 운동하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거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교회에 대한 밀한인들의 생각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거도의 효과가 강력한 것은 저자의 방법이 아니라 후자인 것을 그간의 거도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신자화하고 거자화시키는 데에는 역시 성경공부나 제자훈련같은 검증된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레포츨선교팀을 통한 거도는 어디까지나 1차적인 방법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8. 레포츨선교팀을 통한 지도전략의 핵심 포인트

가. 주저운 레포츨 경험과 더불어 지도마인드가 중요하다

레포츨선교팀은 그 열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지도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지도에 대한 열정이나 미련 없이 시작되는 레포츨팀은 활격하고 성장하면 활수록 점차로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그만큼 레포츨가 사람들을 이끄는 미련이 크기 때문에, 심한 경우 레포츨팀이 주일예비를 태먹고 운동하기 위하여 야외로 나가는 경우도 비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천교회는 설교시간에 레포츨선교팀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지도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에서 강조를 많이 해도 믿음이 약한 평신도들은 자유로운 레포츨 활동에 대한 미련을 쉽게 끊어 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동천교회는 목사와 교육 지도사들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한 기 이상의 레포츨선교팀 열적 지도자로 비정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모든 팀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고 있다.

모이는 회원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주저로 해서 기도하게 하니, 불신자들도 눈에 띄만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나. 레포츨 현장에서의 과정적 관계 형성

첫째, 식사와 운동을 중심으로 교제하라. 지도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동시에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형성을 위한 투자가 아주 지체롭고 분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레포츨선교팀의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포츨선교팀의 지도를 위한 관계형성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유는, 이미 지도대상자의 필요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동천교회 레포츨선교팀이 주저 사용하는 관계형성의 방법이다.

둘째, 초보자를 도와주기.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서투른 사람들은 보다 나은 기술을 알려주려고 할 때, 상당히 고마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항어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능

숙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 레포츨선교팀에 소개하기.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밀행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도를 내세우지만 많은다면 생각보다 쉽게 초보자들이나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을 교회 레포츨선교팀과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넷째, 음료수와 간식 나누기. 격한 운동 뒤에 시원한 음료수나 커피 한잔 나누는 것은 의외로 사람들을 빨리 가깝게 만들어 준다. 또한 밀정한 거리를 돌아오는 운동일 경우 반환점에서 잠깐 간식타임을 가지면서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보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때와 잠시 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간식타임이야말로 지도를 위한 과정적 관계형성의 황금기회라 할 수 있다. 이때 동천교회 레포츨선교팀은 새로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만남과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특별히 그에 대한 칭찬은 필수조건이다. 외나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보다 빨리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봉사와 교제를 위한 음료수를 구입할 경우, 가끔적이면 중앙천 노점상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노점상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나아가 저들이 동천교회에 대해 좋게 말해 주는 등의 광고효과도 아울러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¹⁴⁴⁾

이처럼 먹거리로 섬기고 교제의 중심으로 섬겨주는 것이, 다음 모임을 약속하고 함께 레포츨활동을 떠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었다.

다. 교리설명의 지도자적

동천교회 레포츨팀의 궁기사항중 하나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지도를 위한 교리적 설명을 하거나 성경을 소개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도의

144) 동천교회레포츨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대개 노점상처럼 중앙천에 상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는데, 여기서 헌트를 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노점상들의 도움을 받았다. 첫째는 우리 팀에 와서 기술을 배우면 잘 가르쳐 준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팀에 대해서 좋게 자랑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회원들을 확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의해 종종 이러한 시도가 생기곤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거의 모든-불신자일 경우에-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불편함을 불러 왔으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밑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동천교회 레포츠선교팀의 지도 방법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나누며 부담없이 재미있게 교제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함께 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레포츠선교팀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도록 해주는 이것이 회원들의 주된 사명이며 지도의 지도를 위해 회원들 기인에게 할당된 사명의 몫이다.

그러다 보니 레포츠선교팀의 회원들은 사실 지도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저 자기들이 좋아 하는 운동을 마음이 통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맘껏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자동적으로 저들이 먼저 우리 팀과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며,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먼저 물어오게 된다. 관계의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들을 연결시켜 적야 하는 대상 선정이 매우 중요해 진다.

그러나 이때도 회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각 레포츠선교팀마다 영적 지도자로 목회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이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 동시에 영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해 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회원이 교회에 출석할 마음을 결심하려고 할 때, 담임목사가 그 레포츠선교팀에 와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그와 관계를 만들고 관심을 가져 주면서-필요하다면 기도도 해주고-교회로 인도해 준다.

라. 목사와 친해지게 만들어라

레포츠선교팀에 들어 온 새 회원이 교인으로 등록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목회자만큼 강한 지도 마인드를 품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새 회원이 들어오게 되면 목회자는 관계형성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 사람이 호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새 회원에게 목회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만 한다. 유달리 교회에 대해서 반감, 또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가능한 한 목회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거나 어릴 적에 교회생활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가족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레포츠선교팀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는 것이 좋다. 후자의 경우엔 오히려 목회자가 직접 챙겨주고 섬기면서 관심을 가져 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견 되는 것을 맘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단 목회자의 신분을 알고 나서도 가까워진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울러 교회등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평신도 보다는 목회자가, 그리고 부교역자 보다는 담임목사와 관계가 형성될 경우에 교회등록이 많이 이루어졌다.

마.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라

레포츠선교팀은 그 목적이 단순히 교인들간의 친목도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새 회원들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으면, 그 팀엔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레포츠선교팀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많은 교회 밖의 회원들을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천교회의 특징적인 레포츠목회도 실험적인 성격의 밑줄이 깔렸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밀집이 전문적으로 레포츠목회를 시도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실험과 경험 끝에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레포츠선교팀에 새로운 회원을 충원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레포츠종목에 있어서 밀한 동호회원 중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레포츠선교팀의 밀원으로 끌어 들이는 일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담과 지혜를 가지고 치밀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동천교회가 사용하는 방법은 실력이 검증되거나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을 발굴하여 레포츠선교팀의 훈련감독으로 초청하는 일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레포츠선교팀의 운동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추종하는 밀원이 한꺼번에 레포츠선교팀으로 유입된다는 것

이다. 동천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기업형 기도'라 부른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도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 영입된 훈련감독은 담임목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남다르게 배려해 준다.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특별한 교제를 갖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분명 플러스가 되면 되었지, 결코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새로 초빙된 감독들은 나름대로 식다른 자부심과 미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정적인 소그룹도 만들어라

레포츠선교팀을 중심으로 목회방향의 가닥을 잡아 가면서 다소 어려웠던 것이 운동을 주기기에는 이미 나이가 든 교인들의 한판이었다. 젊은 목사가 화석 나이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하마평들이 쏟아졌고, 종교개혁도 교회의 중직들이 여기에 맡아 허당이 되어서 처음 레포츠선교팀을 가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누구나가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정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었다. 이 기도팀은 주로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독서모임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으며, 팀명 칭도 고상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시인과 나그네' 라고 명명했다.

(1) 여행

여행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으로 나뉘는데, 둘 다 주로 성지여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에도 총회에서 지정한 성지답사 코스가 있으므로, 주로 이를 활용했으며, 오가는 길에 먹을거리와 온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다양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음으로 해외여행은 '기업형 기도'를 목적으로 적당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이것은 문화센터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가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물론 해외여행 코스도 성지코스가 많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나, 성지순례라고 하면 불신자들은 참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여행의 명칭을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명하였다.

동천교회가 최초로 시도한, 기도를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이 '이집트 답사단' 모임이었다. 이집트 여행은 밀한적인 역사적 의미도 많지만, 성지 또한 상당히 많은 곳이다. 문화센터들 통해 지역사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석달 전부터 준비 모임에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집트 현지에서 이수담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기체류 선교사님을 통해 약 2주 동안 오로지 이집트만을 살살이 감상하면서, 밀한 여행사들을 통해서도 가보기 힘든 장소까지 돌아보는 '말 그대로' 이집트 답사' 여행을 했다.¹⁴⁶⁾ 무려 2주 동안이나 교인들과 담임목사와 함께 여행을 하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으로 교인들과 함께 하게 된 밀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 졌으며, 다음 여행에도 꼭 함께 할 수 있게 허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집트 답사단¹⁴⁶⁾은 다음의 여행지를 함께 모색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여행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교회들 자주 찾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¹⁴⁷⁾

(2) 독서와 문학토론의 함

돈이 없고 비운 것이 많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관심,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활동이 바로 독서팀이다. 이 독서팀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독서팀은 교회잡고와 문화센터 홍보지를 통해 모집한다. 최초 모임에서 담임목사가 직접 함께 읽을 도서들 선정하여 소개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나치게

146) 카이로 공동모지 마을 체험(이집트 카이로에는 약 300만의 빈민들이 거대한 공동모지 마을에 모여 산다)과 모마시스에서의 수염, 크리스천들의 쓰레기 마을과 바퀴살을 짊어지 만든 거대한 동굴교회(모짜담교회)의 방문, 그리고 한번에 1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동굴교회에서의 집회참석, 귀족부엌 답사와 태초의 고요를 간직한 사막에서의 야영(사막의 밀수와 석암도 감독력이었지만, 나뭇 가지처럼 흔들리는 은하수 아래서 사막의 여우 배와 함께 보낸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이었다)등은 답사단원들의 주의 속에 모래도둑 남았던 특별한 경험들이었다.

146) 참고. 부록 4.

147) 이집트 답사단원으로 참석한 밀한인 20명 중,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18명으로 90% 라는 놀라운 기도성과를 한 번에 거둘 수 있었으며, 이들은 담임목사와의 감동한 회분으로 밀한교회 정략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어렵지 않으며 충분히 몰입하여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에 한달 가량의 시간을 주고 선정된 도서를 충분히 정도로 정독하게 한다.

그리고 정해진 날(D-day)이 오면, 함께 문학토론을 하기 좋은 장소로 함께 이동한다. 물론 사경상 기인적으로 화도 무항하다. 단 시간약속은 엄수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좋은 장소를 선정하는 밑과 반드시 담임목사가 리더가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밀한인들도 담임목사와 함께 심야문학토론을 한다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은 물론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천교회의 경우, 문학토론을 위한 장소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파티마 수녀원'을 이용하는데, 고요한 경적과 신미감을 유발하는 수녀원은 심야 문학토론을 위한 최적의 분위기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 된다.¹⁴⁸⁾ 수녀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문학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나누고, 독서를 통해 얻은 감동을 서로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실은 저도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서의 선정자체가 함께 모르게 종교성의 주제를 띄고 있으며, 목사가 토론회를 주지하면서 기독교가 갖는 종교적 의미와 교훈에 대해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위기가 무드되어 갈수록 밀한인들은 목사에게 기독교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호기심이나 의문들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기독교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독서 속에서 공감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누어 질 때, 목사가 그 내용들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간혹 눈물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훨씬 더 큰 호감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서모임에서 동천교회가 사용하는 도서들은 다음과 같다. 미우라 아야코의 *깊은 있었애*(정한문화사)와 *양치는 연못*, A. J 크로닌의 *성채*, 그리고 정연희의 *새 길이 넘겨나이다*(창해)와 같이 깊은 감동을 주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사고(思考)해 볼 수 있는 도서를 위주로 선정했다.

148) 물론 심야문학토론 장소로 수녀원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진다. 저자는 수녀원장과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4. 레포즈 선교팀을 통한 저도의 성과

레포즈목회를 동천교회에서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8년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니 성과니 하는 문제들을 평가하기엔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다. 아직 다듬고 정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시행착오들을 잘 극복하는 밑과 최소한 교인들의 80퍼센트 정도를 레포즈선교팀이 고정멤버로 참여시켜서 동천교회를 명실상부한 레포즈목회의 시금석으로 세우는 밑도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더욱이 교인들의 생활수준이 아직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먹은 만큼 본격적으로 레포즈목회의 비전을 펼쳐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¹⁴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미 목전(目前)에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동천교회는 1977년에 처음으로 개척해서 이제 31년이 지난 교회이며, 약 5년 전부터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내리막 추세에 있는 교회였다.¹⁵⁰⁾ 2006년 본 연구자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을 당시 장년교인은 대략 650명 정도였는데, 2008년 1월 현재 장년 출석교인이 평균 920명으로 약 2년 동안 41.5퍼센트의 성장을 이룬 셈이다.

눈에 보이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회자체의 변화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수년 동안 교회를 짓느라 왔던 지비의식과 분열, 직임자가 그리고 의욕상실 등과 같은 고질적인 저성장의 병폐들이 상당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또 이전의 회의들에서 보이던 고성이 수반된 공격적 발언과 비난, 험담하는 밑들이 잦아지면서 당회와 제직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수년 동안 보이지 않던 새 신자들이 매 예배시간마다 등록을 하고, 2달에 한 번씩 하는 새 가족 수료식에서는 35-40명이 새 가족 공부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서 교인들이 자신감과 의욕을 회복하게 됐으며,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새 가족 정착금이 무려 90퍼센트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¹⁵¹⁾

149) 동천교회의 장년교인 수는 2008년 1월 현재 약 920명 정도이다. 이중에 레포즈선교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율은 약 40퍼센트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레포즈란 용어 자체가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아직 삶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마파드들이 들어서고 많은 새 신자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교인들과 차별화가 되고 있으며 레포즈활동에 대한 감격한 욕구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150) 2004-2006년 3년 동안 150명의 장년출석교인이 감소하면 상황이었다.

151) 2006-2007년 2년 동안 등록된 교인은 모두 202명이고, 이중 177명이 현재 교회에 정착하여 믿음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천교회를 찾아오는 새 신자들이 떠돌이 교인이나 구경꾼-한 번 와서 답식하고 지나가는-이 그만큼 적다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새가족들 대부분이 레포츠선교팀과의 과정적인 관계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새신자들이기는 교회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교인들이 많을 수록 교회 정착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새신자들이 주검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레포츠선교팀의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10년 이상 전도부와 새 가족부 사역을 전문으로 하면서 한 가지 매우 특색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룹이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신자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전도는 매우 단순하고 부담이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교회를 오면서 갖게 된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그들과 관계하는 다른 불신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들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진 불신자들이 한번 구경하자는 식으로 교회에 인도해 오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레포츠선교팀에서 활동하는 동천교회 새 신자들은 불신자 이웃이나 친구들을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된 것이다. 교회오라는 부담을 주지 않고도 레포츠선교팀에 가입시켜서 함께 레포츠를 증기는 '레포츠성도'가 되게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천교회 레포츠선교팀을 통해 함께 운동하고 있는 레포츠성도의 수는 약 5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레포츠선교팀은 더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레포츠선교팀의 밀원으로 참여하고 더욱 다양한 레포츠선교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불신자들이 레포츠선교팀과 함께 운동하고 교제하면서 레포츠성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처럼, 언젠고 교회에 등록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전도의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천교회는 늘 풍성한 전도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인 레포츠 시즌이 시작되면, 동천교회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보다 훨씬 더 기대를 뛰어 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¹⁵²⁾

152) 2008년 봄 시즌을 대비해서 동천교회는 12개의 레포츠선교팀을 준비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전도대상자인 레포츠성도를 150명 이상 예상하며 기도하고 있다.

제 4 절 레포츠 선교팀을 통한 교회의 내적인 변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레포츠선교팀을 통한 레포츠목회를 주된 교회성장 전략으로 택하고 교회를 운영해 온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교회분위기가 밀신되었다는 것이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던 교인들이 이전 얼굴에 웃음을 되찾았고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밝아져서, 교인을 스스로가 뭔가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많은 새 신자들이 유입되면서 교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활동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었다.

1. 교인으로서의 자부심 강화

성장하는 교회와 정체하는 교회의 차이점은 교인들의 표정에서부터 나타난다. 전자의 교인들은 얼굴표정이 밝고 관대하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새 신자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태도도 상대를 비려하는 동시에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달리 말하자면, 새 신자들에게 초면부터 부담감을 주거나 혹은 다른 교회로 떠나갈까 봐 걱정하며 조바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이 교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된다.

반대로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새 신자들이 올 경우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경계심이다. 새 신자가 혹은 타교회에서 문의를 일으키던 문제 있는 교인은 아닐까 하는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기들의 수준과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태도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 있으니 상대항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식이다. 두 번째는 조바심이다. 이미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조만간에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온 새 신자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목사님 심방이나 교회의 계속추진을 강권하는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새 신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그 교회로부터 활질을 돌리게 된다.

손익하게 밝혀지면, 동천교회 역시도 2년 미만 제도 후자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담임목사가 새 가족부를 모아 놓고, 새 신자들에게 저들의 정보노출과 교회등록을 먹지로 강권하지 말라고 엄중히 당부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장안동 밀대 70여기나 되는 교회 중에서 동천교회만큼 성장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적극적인 대민봉사와 구제, 환한하고 전담적인 문화센터의 운영 그리고 중랑천 물린운동과 레포츠선교팀을 통한 교회의 대사회이미지 홍보전략¹⁵³⁾이 관 맞아서, 동천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도 많이 좋아지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아파트 단지 상가의 업주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새로 이사 온 전입자들에게 동천교회를 소개하고 추천해줘서 교회들 등록하러 오는 새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큰 몫을 하고 있는데, 동천교회가 주도하는 대민봉사 및 대사회 자원의 봉사가 점점 그 규모와 횟수를 더해 가는 데도,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오히려 동천교회 정도되면 이 정도의 일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교인들의 의식의 변화-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는 표시로서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연합 레포츠활동으로 드리는 총동원 기도예비

한국교회에서 총동원 기도주일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선택하는 대규모 기도 및 교회성장 전략이다. 그러나 총동원 기도예비는 사실상 대형교회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투입되는 예산과 준비하는 수고들이 미해서 매우 실패스런 수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형교회의 경우 우선 교회들 처음 찾은 불신자들에게 그 크기가 압도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난생 처음 접하는 대형 파워오르간, 관 훈연된 합창단(성가대), 청단의 합송 및 열상설미를 갖춘 초대형 실내공간에서 수천 명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초청된 불신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영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153) 레포츠 선교팀의 활동 및 사역은 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팀들이 총동원하여 중랑천 지킴이(중랑천 물린운동) 사역도 병행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 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함께 하는 새 신자들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서울 자치구의 구민회관보다도 못한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영적인 분위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총동원 기도예비의 가장 큰 단점은 단 한 시간의 예비만 가지고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성이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영적인 결단과 교회의 미적저서,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밀문처럼 몰려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총동원된 다수의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짧은 시간에 다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동천교회는 총동원 기도주일에 초청된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미적과 영적인 분위기 등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초청된 불신자들을 지루하지 않게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연합레포츠 총동원예비'를 기획하게 되었다. 다음은 2007년 가을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있었던 '연합레포츠 총동원예비'의 기획과 진행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2007년 동천교회 연합레포츠 총동원예비>

목적: 효과적인 총동원 기도주일을 위해 기획

준비: 8개월 동안의 태신자 걱정 기도 및 기도 프로그램 실시

+ 기도 프로그램(식사, 영화, 김장 돕기, 레포츠선교팀에 초청해서 함께 활동하며 관계형성하기)

+ 미사리조정경기장 예약¹⁵⁴⁾과 진행을 위한 T/F 팀 구성하여 차량동원 및 식사문제를 해결토록 위임

시기: 2007년 가을 토요일(16%) (정확한 일기예보 파악은 필수)

전체진행상황

154) 장소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져야 공간에 귀가하는 일이 적어지고, 여유롭고 쾌적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해야만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레포츠활동, 그리고 교인들과 새 신자들 사이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넓은 잔디마당과 6원도미터의 관 계비된 트랙, 그리고 시원한 민물호수를 품고 있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이런 의미에서 완벽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155) 아무리 사고가 개탄된 교회라도 주일예배를 야외에서, 그것도 레포츠대로 드리는 일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 + 교인들 수송: 관광버스 5대, 자유롭게 자가용 이용토록 허용¹⁵⁶⁾
- + 예비: 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순서자도 레포츠복장으로 예비 인도.
- 준비차량: 이차가요도 포함(과수원 길), 대중적 가스휠송(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 태어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선곡
- 설교주제: '완전한 건강과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¹⁵⁷⁾
- 8인 간증: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들 대표적인 모험사례를 발굴하여 간증
- 지도초청자들을 향한 축하이벤트¹⁵⁸⁾
- 광고: 운동공간, 식사에 대한 광고
- 축복기도

+ 식사: 대형 고기판을 대어,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밥, 무국, 감귤, 음료수 등을 간소하게 뷔페식으로 준비하고 초청된 지도대상자부터 식사하게 함(이때 목사화장로들이 요리사의 복장을 갖추고 몇 군데서 고기를 굽고 국물을 떠주는 일 등을 서비스하면, 분위기가 쉽게 달아오르고 교회를 홍보하는 데 효과 만점이다). 식사시간은 거의 무한정으로 서비스되므로, 운동중간에 와서 식사를 할 수도 있도록 비려히 준다.

+ 각 종목 별로 레포츠활동: 미사리조정경기장은 둘레가 5킬로미터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함께 운동하고 트랙을 돌면서 계속해서 지도대상자들을 소개하고 인사 나누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트랙 주위로 족구장, 베드민턴장, 농구장 등이 있으므로 교역자들이 수시로 찾아 가서 지도대상자를 소개하고 잠깐씩 함께 운동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포토선교팀은 담임목사를 따라 다니면서 지도대상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이메일로 전해주고 새 가족 등록시 액자에 담아 선물하도록 한다.

- + 종합레포츠경기대회: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 자전거 등 트랙경기

156) 새 신자들 초청하려면 죄책 가서 편안하게 모셔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도대상자가 있는 교인들은 필히 자가용을 이용토록 하고 교회에서 주차비를 대납했다.

157)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강과 행복의 주제를 통하여 복음으로 초청하도록 준비했다. 단 교리적인 문제는 지양했으며, 명과 육의 건강이 완전한 건강과 행복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158) 지도초청자들을 인도자와 함께 교구 별로 떨어져서 한 후에, 환명송 제창(아주 먼 옛날) 한 후에 한동안 인사 나누게 함.

지도인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앉아서 함께 응원할 수 있으며, 초청된 지도 대상자들은 별도의 경기를 미겨서 따로 시상한다.

단체경기는 팀별로 추천한 선수들이 상을 받는데, 주로 지도대상자들에게 시상되도록 비려히 준다.

- + 행운권 추첨: 상품의 질이 좋아야 한다. (MTB자전거, 후렛, 냄장고, 활가마니,

청소기 등으로 수준있게 준비)

- + 클럽 첫경리
- + 예회: 초청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먼저 나가도록 비려히 준다.

결과 및 성과: 교인들 70퍼센트 참여, 지도대상자 약 240 명 초청, 초청된 지도대상자 중에서 약 57퍼센트가 교회 출석하여 등록함.

일반적으로 총동원 지도주일을 통하여 등록하는 새 신자들 10-15퍼센트 정도 예상하는 것에 미하면, 매우 높은 결심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계와 보완점: 등록된 다수의 새 가족들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새 가족 성경공부실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보강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이 문제는 단기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8. 방관형 교인들을 교회생활로 유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늘 소극적이고, 잘 어울리지 않으려 하고, 예비드리는 일이 열심을 내지 않는, 소위 방관형 교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목회자들은 헌신적인 교인들보다 사실상 방관형 교인들에게 더 관심을 주고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동천교회에는 상당한 다수가 방관형 교인들이었고, 심지어 600 여 명의 저급 중 저급교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고작 80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방관형 성도의 문제가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레포츠선교팀을 중심으로 레포츠목회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보았던 것 중 하나가 방관형 교인들을 교회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교인들이 방관자가 되는 중요한 원인은 교회생활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레포츠험동을 하면서 열심히 주기도 운동을 했을 뿐인데, 교회에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니 밀척이조의 효과를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회생활이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생각되지 않고, 또한 가장 어려운 전도활동에 있어서도 함께 놀고 운동하면서 항상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말 그대로 '정 먹고 완 먹고'식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취미가 있기 마련이고, 좋아하는 운동이 있기 마련이다. 레포츠험회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요소와 방법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4. 목사에 대한 친밀감 및 유대감 강화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그리고 교회성장에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목회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밀저수일투족, 그리고 인격과 품성 등 모든 면들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담임목사와 가까운 교인들은 험사리 교회를 옮기려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만 멀리 이사를 가도 금방 교회를 바꾸어 버린다. 담임목사와 가깝다는 의미는 목사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목사에 대해서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이 담임목사와 강한 유대감까지 형성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더욱 단단한 교회성장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 중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교인들이 담임목사와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언젠가 바르게 목회 스펀들이 쫓기는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포츠험회에서는 이러한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담임목사는 여러 레포츠험회들을 순회형식으로 찾아 가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맘도 후리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또 처음 보는 회원과 인사도 나누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좋은 만남 수가 있는 것이다.¹⁶⁹⁾ 바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회활동이기 때문

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교인은 언저라도 목사에게 그들의 문제를 상의하며 현장에서도 기도를 받을 수 있다.

레포츠험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우리 목사님'이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레포츠험회를 함께 하는 '레포츠험성도'도 목사를 스스로 없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가깝게 여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레포츠험회에 있어서 중요한 전도의 자원이 되는 것이다.

제 5 절 레포츠험회를 통한 목회적 활동의 평가

인간이 생각해 낸 제도화 기법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때문이다. 레포츠험회를 주축으로 하는 레포츠험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목회방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물론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 목사와 교인들이 자칫 '놀이들 담하는' 사람들로 미쳐갈 수가 있다. 그러나 사회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종교마저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구태의연한 목회방법만 긍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사회와 삶과 종교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가 변함없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선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어우를 수 있는 다양한 목회방법을 기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레포츠험회를 목회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삼고 밀하는 목회자와 교회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레포츠험회의 성과를 비교해 가면서 평가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껏 미지의 목회사상을 열어 가면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토대로 레포츠험회 선교팀을 주축으로 하는 레포츠험회를 평가해 보

169) 각 레포츠험회에는 반드시 담당 교역자가 있어서 명적인 리더의 역할을 한다. 담임목사는 정황활동을 하듯이 매일 다른 선교팀을 순회하면서 함께 운동과 교제를 나누는데, 이것은 일반 교인들과 열게 가까워 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는 항상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목사임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가진다.

고자 한다.

1. 장점

레포츠클럽의 장점은 의외로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교회의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바뀌어 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지루하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 속에서 주기는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교회성장의 고민거리였던 전도의 문제를 생활의 현장에서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게 되었으며, 늘 풍부한 미래의 전도자원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인들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큰 소득이었다. 네 번째는 교인들과 담임목사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져서 상호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교회성장은 간단하다. 들어오는 교인은 많은데 나가는 교인이 적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하며, 이것은 상당부분 담임목사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효과다. 요즈음은 기업이건 상품이건 모든 아이템이 특별하거나 차별화되어야 관심을 끌 수 있으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레포츠클럽을 통해서 사회가 동천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눈여겨보게 된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교회 홍보효과를 불러 왔다. 중랑천에서 장사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동천교회를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것이다. 교인이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불신자의 소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알려지게 되면, 똑같은 봉사라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중랑천 물린캠프인을 열릴 때,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청소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런 모습은 지켜보는 많은 이웃들에게 '동천교회가 역시 다르다'는 생각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적인 교회로서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2. 주의할 점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레포츠클럽을 목회의 중심적인 축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장점인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 밖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신자들의 본능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낚시와 등산처럼 레포츠클럽은 그 안에 강력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경계해야 하는 속성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마치 양떼와 같아서 레포츠클럽을 즐기며 빠져 들어가는 것과 반미러해서 점차 교회와 믿음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위험성을 모르고 막 나가려는 경향이 점차로 두드러진다. 이렇게 되면 레포츠클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레포츠클럽이 되어 버린다. 레포츠클럽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교인들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레포츠클럽에는 열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교육 전도사들도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예비 및 전도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고 또 격려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하는 내용은 목회자의 성향 및 역량 문제다. 모든 목회와 마찬가지로 레포츠클럽은 반드시 담임목사의 책임과 지도하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목회의 승부가 걸려 있는 교회의 핵심적인 목회사역을 부목사들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포츠클럽에 대한 목회자의 열린 자세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목사의 운동신경, 스포츠에 대한 적응력과 주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만일 바로 위에서 열거한 내용 중 어느 조건이라도 구미되어 있지 않으면, 레포츠클럽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덧붙여서, 레포츠클럽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생소한 목회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대들 하거나 우려하는 당회와 교인들을 설득하며 이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레포츠클럽 중심사역으로 활용하는 레포츠클럽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교인들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내향적인 교인들이나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는 부정적인

만함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회의 교인비율이 노인들과 여성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레포즈목회를 거창위적인 목회방침으로 이끌고 나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레포즈목회를 하겠다는 강력한 미전과 의지가 있다면, 경제적 활동을 요하는 소그룹 모임과 별행히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교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서 모임이나 여행과 같은 소그룹 활동은 레포즈 활동에 준하는 강력한 유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단코 레포즈목회가 목회의 거부는 될 수가 없다. 단지 이는 교회의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생활하게 하는 동시에, 보다 쉬운 전도를 통하여 교회성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만 한다. 이는 마치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학생은 친구도 짝 사귀고 운동도 짝 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에 열심히 하고, 짝 하는 것이다. 레포즈목회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인들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양육하고 깨달음과 순종의 깊이를 더하기도록 교육하는 데 있어서 레포즈목회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교회의 목회현장에서 사용되어지던 목회의 방법과 기술들은 결코 무시되거나 폐기처분 되어질 것으로 오히려서는 안 될 것이다. 동천교회는 오히려 레포즈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평일 저녁에 성경공부 강좌를 더 늘렸고, 또 저자훈련 코스를 새롭게 강화하여 교인들의 신앙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위험성을 숙지하고 레포즈목회를 지혜롭게 시작해 나간다면 분명 교회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교인들에게도 보다 즐거운 믿음생활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이상과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원화된 사회, 문화, 종교적인 현대세계의 흐름가운데서 점차 그 설자리를 잃고 약화되고 있는 교회의 자리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회의 한 방법으로서의 레포즈목회를 레포즈선교팀의 활동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보았다.

한국교회 역사상 아마 지난 10년 동안 만큼, 교회성장에 관한 세미나들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되거나, 이러한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때는 없었을 것이다. 지난 수 년 동안 수교회라든가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G-12, D-12, 함파코스 등 수많은 강력한 교회성장 프로그램들이 교회성장이 정해되거나 확보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소개되고 가르쳐지고 있다. 이러한 목회성장 프로그램을 지교회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 섬기고 있는 교회현실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다른 곳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무턱대고 따라하다가는 대부분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회성장 세미나들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신앙모임을 열정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등록한 새신자들을 강력하게 교회교인으로 계속 붙들어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들 이루기 위해서 교회성장 세미나들은 강력하고 열정적인 성도들의 모임과 이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전도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렇다.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교인들이 흠어지지 말고 열심히 모여야만 된다. 그러자면 증거물도 있어야 하고, 은혜와 감동도 필요하며, 깊은 나눔과 교제도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의 모임은 마치 유행서에 나타나는 계명처럼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려는 경향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 그게 빠지면 마치 죄라도 짓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껴게 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임의 현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강력한 영향권에 들어간 현대인은 서구사회의 대표적인 거대담론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다. 이와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점점 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까지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믿어 오던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모두 상대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의 밀착현상은 가정과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로부터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형편이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성경말씀으로 붙들고, 교회나 교인들의 모임에 붙들어 두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워만 갈 것이다.

이러한 답답한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추이에 맞추어 나가려는 교회의 노력과 환상의 전환 없이는 21세기 교회의 교회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교인들이 업고도 주검겨, 부담 없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목회적인 방법으로서 레포즈선교팀의 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레포즈목회를 생각해 내게 되었다.

사실상 처음엔 단순하게 뭐와 같은 목적만으로 레포즈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했지만, 모임의 과정 속에서 레포즈소그룹 모임의 강력한 힘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원들이 별 생각 없이 친구나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레포즈를 주기면서, 놀람 만큼 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지켜 보면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환상으로서의 레포즈선교팀을 구상해 내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레포즈선교팀의 활동이 나름대로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자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가 교회 모임에 대한 환상의 전환을 통해서 교인들도 얼마든지 주검겨 믿음생활을 하고 교회활동 및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주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두 번째로 전통적인 전도방법의 한계성은 '교회 안으로' 국한되었지만, 레포즈목회에 있어서의 전도방법은 그 한계성을 '교회 밖으로' 풀리게 된 것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인다.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과, 교회 밖에서 놀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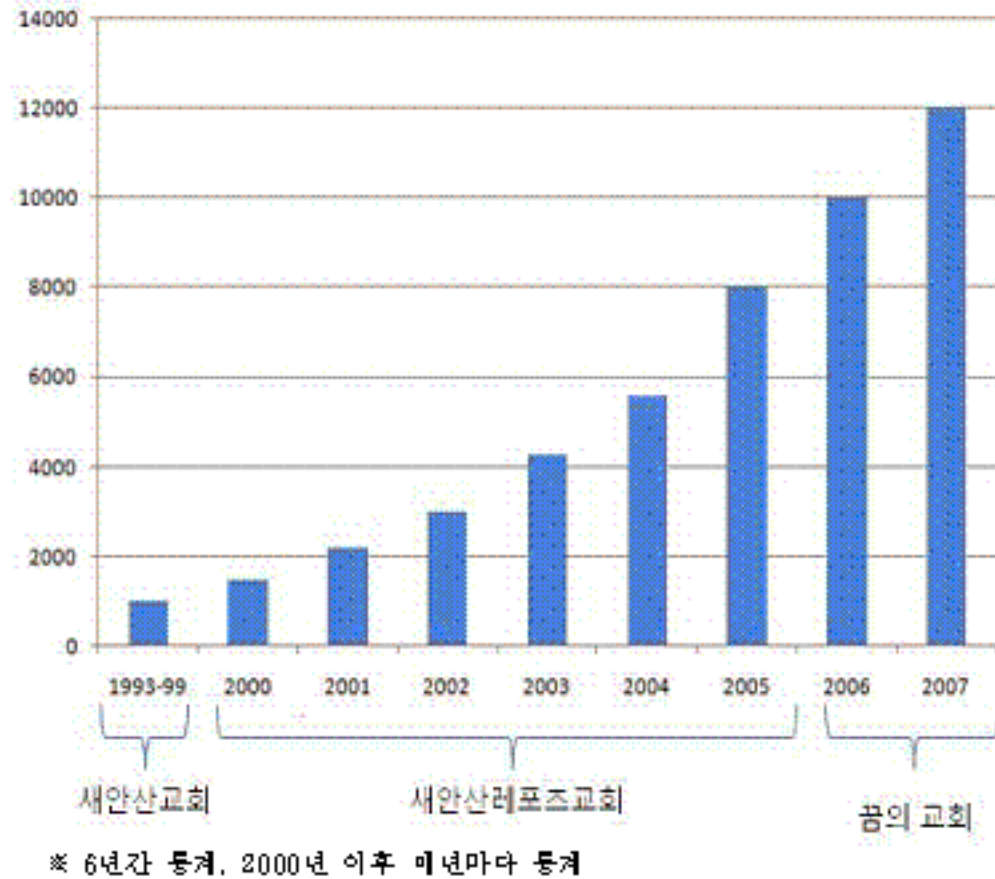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전도하기 위해 쏠아야 할 노력과 부담이 실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불신자들을 먹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불신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믿이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낯선 성경이나 교리공부로 부담주지 않고, 레포즈활동을 통하여 교인들과의 관계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갔던 것이 새신자의 교회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것 같다. 물론 레포즈성도였다가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들의 경우는 이미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새 신자들이 대한 양관 및 무관심과 홀로됨 같은 문제들은 동천교회의 경우에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이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환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다양하게 잘 준비된 목회방법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새로운 시대와 달라진 대중들을 향해 효과적으로 힘있게 파고들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가 교회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대의 문화장벽의 틈을 열어주고, 바야흐로 부흥 2세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에 저 2의 부흥의 돌파구를 어렵잖이나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 1

레포트목회개념 도입이후에 꿈의 교회 성장률 비교



부록 2

레포트선교팀 창단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선교팀명	예산지원 내용	예산지원 이유
킵팀(족구팀)	족구배드 8개, 족구공 5개	공동장비
에스라인팀 (인라인스케이 드팀)	프로훈련코치 강습비	훈련용 인라인스케이 드 20개 풀세트는 한 교인이 기증하여 규모있게 출범. 부상합지 및 2기생 지도를 위한 실력습득을 위해.
바이크 팀 (자전거 팀)	연습용 자전거 5대	주부들 자전거 강습이 전도로 이어지는 효과가 입증 되어서
베드민턴팀	플라임 볼(ball)	단시간 소모품이며, 공동문품의 성격 강함 값이 저렴함 상징적인 지원의 의미
시인과 나그네 (문학기행팀)	대형버스대여 (비용절감을 교회가 지원)	30-40명 이상의 이동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됨
맑은샘 지킴이 (Clean중랑천)	쓰레기 걸레, 미넨트, 햇빛가리개 모자, 작은 부삽	공공의 봉사 및 섬김의 활동이고 소속감 강화위해
조깅 팀	중랑천 단축마라톤대회 기획비용	대규모 기획전도 행사
포토팀(사진)	인화지, 퀴러임크	개인부담이 곤란한 공용문품의 성격 때문

동천 레포츠 선교팀 설립 및 운영안

● 설립추진되는 레포츠 선교팀

- 동천 등산 동아리
- 동천 키클 동아리(족구)
- 동천 줄라임 족(베드민턴)
- 동천 멀티 레포츠 클럽(수상, 육상, 구기 등)
- 동천 인라인 클럽
- 동천 시인과 나그네(문학과 여행)
- 동천 영상(카메라)

- (동천 조깅 & 맑은샘 지킴이 ☞ 내년연기)
- (동천 차양 ☞ 내년연기)
- (동천 포크마스/악기 ☞ 내년연기)

■ 산내를 선교팀 (등산팀)

○ 개요

■ 장단점

- 전 연령층 활동 가능, 가족단위 가능, 5-10인/30인 이상으로도 운영가능
- 회원 유치 및 운영내용은 가장 쉬우나 회원수가 많아지면 밀반조직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 계획, 준비, 인원좌약, 임대 및 행사진행 등 운영조직이 자칫 함대해 걸
- 버스 임대비용의 비중이 큼

○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 월 경기등산

- 월 1회 토요일 이용(1, 2, 7, 8월 제외)

○ 점심은 각자 지참, 음료수/간식 제공, 하산 후 식사 및 대화

■ 환경/건강관련 운동, 세미나

- 제주도부의 환경관련운동 연계 (예) 맑은샘 지킴이
- 공동 청소, 쓰레기용 미닐릭(표어부화) 나눠주기, 필요시 떡/모자 제공
- 연 1회 건강관련 세미나(유명강사 초청하여, 지역주민 참석유도)

☞ 기존 수차례 시행사례 있음

- 건강관련 기구세팅(젓마당/목상에 간단한 운동기구 몇 개 갖춤)

☞ 미동력 장비는 미치지 않음

○ 운영계획

- 당회 승인시 2007년도는 3-4회 등산예정
- 가족동반을 유도하여 경기/충청권의 가족동반 가능한 안전한 산으로 등산
- 연중 1-2회는 들놀이/캠프장도 가능

- 오리엔티어링, 지오캐싱 등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

○ 향후 발전하면 동호회를 복수운영(2기)함이 선교목적상 좋을 듯함

- 현행 1기들 → 홀수 달/짝수 달 또는 1차 주/3차 주로 2기로 분리

(예) 홀수달/동천산악부(밀탄인 뽕주)+짝수달/호림산 선교회(교인뽕주)

이월 등산을 다니려면 호림산 선교회에도 가입하도록 유도

○ 기타 사항

○ 차량관련

- 약 20인까지(차량 2대)는 교회차량도 가능하나, 당일 결혼 등 교인행사와 결원 우려
- 특히 25인 이상은 대형버스 임대가 필요함
- 연 단위 계약 등으로 차게 임대하는 방안장구

○ 구성 및 조직

○ 실무와 운영을 위한 중대형 조직을 요하지만, 현지 상황으로 별도조직을 갖추는 것보다 기존 남선교회연합회 등의 지원운영이 나올 듯합니다.

○ 조직

- 회장: 김동립(안수, 현 제주도부장, 2008년도 남연합회장)

- 총무: (남연합총무 권장, 승인 후 동아리모임에서 선출)
- 부총무: (여성회원중 권장, 승인 후 동아리모임에서 선출)
- (기타예상)
- 회계 담당
- 서기/기록 담당
- 연락 담당
- 홈페이지 담당
- 회원구성
- 현재는 모집하고 있지 않음
- 모집공고하면 회원가입 희망자는 많을 것으로 보임
- 가입방법
- 교구/구역조직의 활용을 통해 이웃을 1차 가입 유도
- 가족동반을 권유하여 2차 가입 유도.
- 예산
- 회비
- 출결식이 일정치 않고,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연회비는 없음
- 등산 참가회비는 약 10,000원/회(식사포함)로 예상(총회시 결정)

수입		지출 (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중형버스 임대+유류비 (20만×연2대+10만)	500,000
		기타(의약,안정품, 초기준비물 구입)	800,000
월회비 (20명×10,000×3회)	600,000	대회 (연말1회, 출석상, 가입장려상 등)	200,000
기타 차조금 등	140,000	식사용 (20명×7,000×3회+총회1회)	560,000
		기타미 (오이, 간식, 음료수 등) 60,000×3회	180,000
합계	1,740,000	합계	1,740,000

■ 킥볼(Kickball)선교팀 (족구팀)

○기요

■장단점

○1-2남 연령층 대상, 현재 20인 정도로 창립함, 현재 미주 15인 정도 참석하여 게임중

○팀별(4-6인) 리그제로 운영하면, 최대 6-8팀(25-40인)도 운영이 가능함

※밀한 구기종목은 팀정원(+여유)차면 증원이 힘들으나, 족구는 게임방법에 따라 팀수 증가 가능.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경기 게임

○정소 운동 및 친교 활동(현 월 3-4회, 주일 오후 시행중)

○연 1-2회 분기별 마무리 경기, 남선교회별/교구별 등(상품)

■지역 봉사

○지역봉사: 환경/건강관련 운동 (예)맑은 동네 지키기(정소)

☞홍보틀 결합(구상중인 계획)

○운영계획

■운영

○2007년도는 레드/블 및 유니폼 등 기본 준비물 구입이 많았으나, 차로로 상당 부분 해결함.

○특성상 실내경기장소 필요함(연간 대여)

- 실내경기장 임대료 대비하여, 금년 지원금 전액(1,000,000원)의 지급 요청함

- 타 레포츠선교팀과 공동으로 실내경기장소 확보를 추진함

■오후 운영

○오후 정식 팀을 구성하여 전후반기 리그로 진행하면 교인+주민 구성이 가능함

○구성 및 조직

○실무운영을 위해 겨 2남선교회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고문: 김용원(장로)

- 단장: 우현(겸사)
- 회장: 장덕기(현 2남저도회 회장)
- 총무: 변현섭(겸사)
- 회계: 비서한(겸사)
- 회원구성
- 현지 미주 15인 정도 참석하여 게임 중
- 실내경기장소를 확보하여, 리그적으로 준비하면 회원 증가가 많을 것으로 기대

결

○ 결산

수입		지출(2006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경기모임(음료수등) 10,000x4x4개월 대회/1회	160,000
		(추계, 음식, 상품) 300,000	300,000
		기타(의약, 레드/블 등 추가구입)	140,000
		장소계약(타 동아리와 공동추진)	400,000
회원회비 중 /집회, 식사	(별도 회비)	식사비	(별도)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 예산

수입		지출(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경기모임(음료수 등) 10,000x4x10개월 대회/2회	400,000
		(음식, 상품) 200,000+400,000	600,000
		기타 (의약, 레드/블 등 추가구입)	200,000
회원회비 중 /공동경기 마련	400,000	유니폼지원 (추가는 본인)10,000x20인	200,000
회원회비 중 /집회, 식사	(별도 회비)	식사비	(별도)
합계	1,400,000	합계	1,400,000

■ 비드민턴 선교팀

○ 개요

■ 장단점

- 전 연령층 대상(특히 부부/부자/모녀 등 가족단위 가능)
- 교인 중 동호회/클럽 선수급 3인 이상 있음→동호회원 선교도 가능(이신열, 허상희, 장덕기)
- 최소 6-8인으로도 설립가능, 팀당 3-4인으로 최대 6-8팀(20-30인) 운영가능

※게임운영 방법에 따라 리그제(1-2부)로 운영하면, 최대 8-12팀(20-30인)이상도 운영가능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 경기 게임

- 정소 운동 및 친교 활동(월 2-4회, 토요일 또는 주일 오후 가능)

■ 대회/행사

- 연 1-2회 분기별 마무리 경기, 교구별 경기 등(상품)

○구성 및 조직

- 실무운영을 위해 저 2남선교회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 회장: 허상희(겸사)

- 총무: 이신열(안수)

○회원구성

- 현지 부부들 중심으로, 6-8가족 참여의향 화합.

- 실내경기장소를 확보하여, 리그적으로 준비하면 회원 증가가 많을 것으로 기대

결

○운영계획

■ 운영

○2007년도는 레드/블 및 유니폼 등 기본 준비물 구입이 많았으나 차조로 상당부분 해결함

○진급 필요: 실내경기장소 필요함(연간 대여)

- 실내경기장 임대료 대비하여, 금년 지원금 전액(1,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함

■합후 운영

○합후 정식 팀을 구성하여 전후반기 리그로 진행, 교구별 교인+주민 특별 구성도 가능할 듯

○특성상 실내경기장소 필요함(연간 대여)

- 타 동아리와 공동으로 실내경기장소 확보를 추진함

○결산

수입		지출(2006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경기모임(음료수 등) 10,000x4x8개월	120,000
		대회/1회(주계)	200,000
		기타 (의약, 네트/복 등 기본 공동구입)	180,000
		장소계약(타 동아리와 공동추진)	500,000
회원회비 중/ 집회, 식사	(별도 회비)	식사비	(별도)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예산

수입		지출(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경기모임 (음료수 등) 10,000x4x10개월	400,000
연회비(20명x10,000)	200,000	대회/2회 (음식, 상품)	600,000
		200,000+400,000	
차로금	200,000	기타(의약, 네트/복 등 추가구입)	200,000
		유니폼지원 (추가는 본인) 10,000x20인	200,000
식사비	(별도)	식사비	(별도)
합계	1,400,000	합계	1,400,000

○초기 기구준비 및 실내경기장 임대료 대비하여, 금년 지원금 전액(1,000,000원)을 요청함

■동원 워터레포츠선교팀(수상, 육상, 불경, 사이클)

○기요

■장단점

○점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적당(특히, 신혼/부부 등 가족단위도 가능)

○운영비가 많이 들(개인 회비가 약간 고액이라야 하며, 수상 레포츠 외 여러 가지들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음)

○차량: 교회차량 가능한 지원하지만, 대부분은 자체 해결해야 할 듯.

○점은 청장년층의 관심분야를 팀별로 운영하여, 다양한 참여대상을 확대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팀별 활동

■포시즌 팀(계절 레포츠)

○수상/하계 레포츠: 수상스키/윈드서핑/요트/레프팅

☞한강/독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육상/동계 레포츠: 스키/보드/스케이팅

☞외부 또는 실내경기장 이용

○기타 레포츠: 공기총 사격, 양궁

☞외부 전용 경기장 이용

■보울링 팀

☞외부 전용 경기장 이용

■사이클링 팀

☞중랑천, 한강 등을 이용

○운영계획

■운영

○주로 토요일/공휴일을 활용

○특성상 특정장소(전문경기장)의 등록 및 회원가입이 필요함

- 불경, 탁구장 등

○각 팀별 운영내용이나 리더군에 따라 각 팀별 부침(浮沈)이 심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 일단 3-4팀 정도를 하나의 동아리로 운영하되,
- 예산은 2기 동아리에 해당하는 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 총예산이내에서 팀별로 협의하여 운영(주로 공동부분을 지원).

■양후 운영

○수기의 팀을 공동운영하되, 한 팀이 15인 이상으로 활성화가 지속되면, 협의
및 당회승인을 거쳐, 그 이듬해에 독립된 동호회로 하나의 관측시켜 나갈.

■공동 운영행사 및 지원의 예

- 10월중 불경 대회(주민포함): 미교인 50퍼센트 정도를 포함하여 팀구성(4-6
인), 약 10-20팀
- 1월중 스키장 대회(주민포함): 지역주민 동만조건으로 버스 1-2대 제공(기타
는 기인회미)

○구성 및 조직

■운영

- 실무운영을 위해 제 1남선교회/만나회 등이 주축을 이루도록 함
- 저의 미주 운영하지 않더라도 협의/장소섭외/예약 등을 위한 공동운영팀을 두

어 운영

■중앙조직

○임원

- 회장: 이신영(안수)
- 총무: 김만경(교사)

■팀별 구성

○포시즌팀

- 만나선교회 1, 2 남전도회 등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 가능
- 보울링팀
- 기존 교회내 있었던 미공식 보울링회원들(교사중심)을 중심으로 우선 구성이

가능

○사이클링

- 만나선교회-1, 2남전도회 등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 가능

○결산 및 예산

수입		지출(2006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각팀별 공동사업 지원	
		- 대형버스 임대+유류비 (연 2대까지)	500,000
		- 팀별 연례행사미 지원 (우선 2팀 정도)	400,000
		- 기타 중앙 경비	100,000
회원회미 중/ 집회, 식사	(별도 회미)	기타/경미, 회미, 식사미	(별도 회미)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수입		지출(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2,000,000	각팀별 공동사업 지원	
연회미(팀별 별도)	-	대형버스 임대+유류비 (연 4대까지)	1,000,000
차조금	-	팀별 연례행사미 지원(3팀 경우)	900,000
		기타 중앙 경비	100,000
기타/팀별 회미	(별도 회미)	기타/경미, 회미, 식사미	(별도 회미)
합계	2,000,000	합계	2,000,000

○초기 기구준비 및 실내경기장 임대를 대비하여, 금년 지원금(1,000,000원)을
요청함.

■ 에스라인(인라인스케이트)선교팀

○기요

■장단점

○청장년층 대상(특히 부부 등 가족단위도 가능)

○인라인장미가 공동으로 20여일 마련되는 경우, 중고청년부도 자체 프로그램/행사 운영 가능

○주로 토요일/공휴일을 활용

○차량: 교회차량 가능한 지원하지만 대부분은 자체 해결해야 함 듯.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경기모임

○미주 모임 가능(중랑천)

■봉사활동

○전도부의 환경 관련운동 연계 (예)중랑천 맑은샘 지킴이

○공동 청소, 쓰레기용 미닐리(표어부화) 나눠주기, 필요시 며/모자 제공

○선교/홍보등 위한 행사시 소형 천막/파라솔/커피포드, 며/모자, 호두라기/심플무

전기 등 필요

○구성 및 조직

○실무운영을 위해 만나회/제2청년회 등이 주축을 이루도록 함

○조직

-회장: 여인명(안수)

-총무: 김창비(김사)

-기타: 동아리 모임 후 자체 선출

○중고청년부가 인라인 활동을 원하는 경우는 각각 담당팀장을 두도록 함

○예산

수입		지출(2006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교통비(가동범위내 교회차량지원)	-
회비	-	기타(의약,안전용품, 기본 준비물 구입)	200,000
기타 카조금 등	-	대회 (연말1회, 출석상, 가입장려상 등)	300,000
회원회비중 /공동경비 마련	100,000	기타미 (음료수) 30,000×(평균 20회)	600,000
회원회비중/ 집회, 식사	(별도 회비)	기타/경비, 회비, 식사미	(별도 회비)
합계	1,100,000	합계	1,100,000

■시인과 나그네 선교팀

○기요

■장단점

○장년부 특히 주부 및 노년층 이 주 대상, 5-6인으로 설립가능, 15-20인 이상 운영가능.

○주요사항: 연간 밀정역지원은 불필요할 듯 초기설립 비용일부 및 신청시 미정기 지원

○차량지원: 장소 불필요하나 가끔 외부행사시 지원하되, 교회차량의 장시간이용(1화 2일 등)은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분정원인 될 수도, 가급적 임대/여행사 협의하여 코스기함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주독야경(문학감상)

○월 2-4회, 종교 서적, 문학작품 감상, 종교영화, 종교관련 음악회 관람도 가능

○참작 및 지도도 가능

■여행·순례

○연 2-3회 국내 성지 및 기타 선교지 방문, 2-3년마다 해외 성지순례도 추진

○주요사항: 해외여행지원은 초기논란여지 있으나, 국내여행 유류/입장료 지원

및 불우이웃초청 및부지민 등은 선교적 명분상 상관없을 듯.

■지역주민 참여 및 봉사

○연 3-4회 이웃을 초청하여 (종교)영화/음악회 감상을 추진함

○구성 및 조직

○실무운영을 위해 여전도회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6-7여

추천

○가급적 교역자를 포함하여 지도를 하는 것이, 미종교적 해석, 분단항지 및 선 교목적상 좋을 듯

○조직

- 회장: 이건구(안수)

- 고문: 이만중(장로)

- 총무: 이인숙(집사)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버스 임대+유류비(연2회)	500,000
연회비(집회 별도)	-	문학작품 구입비, 미디어대여비	200,000
차로금	-	외부 전시/영화 (2회, 초청인원 지원)	300,000
기타 회비	(별도 회비)	기타/정미, 회비, 식사미	(별도 회비)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 포토선교팀

○기요

■장단점

○장년부 특히 주부 및 장노년층이 대상, 10-15인으로 설립가능, 30인 이상 운영가능.

○20-30대보다 오히려 40-60대의 기존 필름카메라 사용 가능자를 중심으로 환영.

-장동 속에서 놓고 있는 필름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손자동만 사진찍기 등

권유.

○유관부서인 영상부, 인터넷선교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합니다.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정기모임

○월 2회 모임: 강의 1회+사진작업 1회

○연 4회 야외출사

■기타 활동

○영상카페: 사진관련 자료 및 각자 작품을 올리도록

○영상교육: 사진관련 세미나 및 클리닉

○사진봉사: (연중 수회) 독거노인/이웃 (영정, 가족)사진 촬영, 유관단체(노인경 등)행사 도우미

○사진전시회(연 1-2회), 소책자/소달력 발행

-연 1-2회 교회내/인근 아파트 및 공공장소에서 전시회를 겸한 교회 홍보도 가능

○기타 고려사항 및 상세설명

■내부 작업 및 외부 출사

○월별 주제/교육을 가지며, 월 1-2회 공동작업

-월 1회는 공동 품평회

-각자는 주1회 작업가능(인터넷선교부원 이용)

○외부출사는 분기별 1회

-서울시대(2-3회), 수도권(1-2회)

■교육 및 세미나

-영상교육: 프로좌터를 활용하여 사진촬영기술, 보정기술 강좌 등 교육(30기 이상 준비완료)

-세미나: 회원작품 품평 및 더 낫게 찍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등 강좌(초빙강사)

<포토선교팀의 활동계획서>

월	교육	환영 주제	비고
8월			(준비 모임)
9월	주제와 구도	(자유)	각자 짚음
10월	서태와 노출	도시풍경	청계천
11월	서태우선과 노출우선	순간과 연속	황학동
12월	심도와 아웃포커싱	인물사진	(70세이상 교인 밀담사진 봉사)
1월	필터 사용	설경	각자
2월	플래쉬 사용	야경	공원출사
3월	행사사진/가족사진	준업/입학	각자 (블우이웃 봉사)

■사진 봉사

○특거노인의 열경사진, 블우이웃의 가족/관혼상제 사진 등

○사진인화는 자체 해결하고, 액자는 회원들이 별도 논의하여 자진 부담 예정

→ 행사성격상 회원들이 물론 자진하여 추가부담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교회의 선교홍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50퍼센트 정도의 자료비 지원(구체비)도
줄을 드립니다(제안).

■내외부 전시회

○내부 전시회

- 어느 정도 작품의 질이 되었을 때, 내년 상반기 목표

○외부 전시회

- 내부 전시회 결과를 보완하여, 지환영 및 수정보완 후, 내년 하반기 목표

- 외부 전시는 내년 7-8월경 당회에 요청/승인시 그에 따라 별도 처리함

- 외부 장소는 교회홍보를 겸해 인근이음(아파트내 주민시설, 동회, 구민회관)

○구성 및 조직

○구성

- 구성원의 특성상 팀으로 구분하여 실무담당을 구성

- 실무팀: 열상부, 인터넷선교부, 만나선교회, 2정년 등

■회원 구성

○조직임원

- 회장: 엄창경(안수)

- 교문: 이성규(장로)

- 총무: 허동진(집사)

○실무팀

- 최석주(열상부장), 김석암(작품용 카페 운영), 김대희(교육담당)

○실리비담을 위하여 2007년도는 교인위주(80%)지만, 2008년도부터 외부인 적

극 가입추진

■특화팀 구성

○가족사랑팀

- 주로 젊은 주부들로 구성(곽지현 집사 외 주로 7여전도회)

- 주로 돌/생일/입학/준업식 등 가족사진 뒤풀, 주로 동영상 영상

○사진봉사팀

- 열상부(최석주)

- 주로 특거노인의 열경사진, 블우이웃 가족사진 등

○카페운영팀

- 인터넷 선교부(김석암)

- 자료 및 회원각자의 작품갤러리를 운영하도록 지원

○결산 및 예산

수입		지출(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교육 (초기 자료/서적 준비 20만원)	200,000
	-	소모품구입 (인화지/포토인크, 4만x8개월)	120,000
		외부촬영 2회 사진봉사 2회 (5만 x 4회 기준)	200,000
회원회비 중 /공동경비 마련	120,000	교회봉사용 및 외부 봉사용 사진지로 구입	600,000
회원회비 중 /집회, 식사	(별도 회비)	기타/경비, 재료비, 식사비	(별도 회비)
합계	1,120,000	합계	1,120,000

수입		지출(2008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교육(자료준비 연간 10만원+초월10+20만)	400,000
	-	소모품구입 (인화지/포토인크, 4만 x10개월)	400,000
		외부촬영 4회 사진봉사 4회 (5만 x 8회 기준)	400,000
회원회비 중 /공동경비 마련	500,000	교회내 전지회 (다과15, 설치대입대 15등)	800,000
회원회비 중 /집회, 식사	(별도 회비)	기타/경비, 재료비, 식사비, 외부전지회	(별도 회비)
합계	1,500,000	합계	1,500,000

■월별 운영(안)

월	교육	촬영 주제	비고
8월			(준비 모임)
9월	주제와 구도	(자유)	개인 출사(카피에 올리고, 집회시 공동작업)
10월	서티와 노출	도시풍경	공동 출사(청계천 주변)
11월	서티우선과 노출우선	순간과 연속	공동 출사(황학동)
12월	심도와 아웃포커싱	인물사진	개인 출사 사진 봉사(70세 이상 교인, 밀담사진작업)
1월	필터 사용	설경	개인 출사
2월	행사기록사진 찍는 법	주업/입학	개인 출사 사진 봉사(블우이웃 주업사진)
3월	주례시 사용	야경	공동 출사(인사동 전통골목) 사진 봉사(블우이웃 열경사진)
4월	전사사진 찍는 법	자연/생태	공동 출사(한강 생태공원)
5월	인물사진 찍는 법	가족/사람	공동 출사(자취 모임, 공원)
6월	판과과 망원렌즈 찍는 법	자연/하늘	공동 출사(여의도 공원) 사진 봉사(블우이웃 열경사진)
7월	-	(자유)	개인 출사
8월	-	(자유)	개인 출사 공동 출사(성남 단천축제)
9월	순간포착 사진 찍는 법	열미	공동 출사(잠원 석촌호수변) 사진 봉사(블우이웃 열경사진)
10월	풍경사진 찍는법	자연/산야	공동 출사(분당 유등공원)
11월	전체사진 찍는법	기쁨/연민	개인 출사 사진 봉사(블우이웃 열경사진)
12월	인물사진 찍는법	(자유)	개인 출사

■예산 상세(안)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2007년	2008년
교회지원금	1,000,000	교육(자료준비 연간10만원 +초빙10 +20만원) 소모품구입	200,000	400,000
	-	(인화지/포토인크, 4만 x10개월) 외부촬영4회 +	120,000	400,000
		사진봉사 4회(5만x8회) 교회봉사용 및 외부 봉사용 사진자료 구입	200,000	400,000
		교회내 전시회(다과15, 설치대입대 15등)	600,000	
회원회비 중/ 공동경비 마련	120,000	기타/경비, 자료비, 식사비, 외부전시회		800,000
회원회비 중/ 집회, 식사	(별도 회비)		(별도회비)	(별도회비)
합계	1,120,000	합 계	1,120,000	1,500,000

※교회봉사용 및 외부 봉사용 사진자료:

- 증명/영경사진
- 비경막(포터블용 비경막)
- 조명학세서리(교회 조명기에 포터블용 액세서리만 추가)
- 사진익자는 각 회원 특별회비로 충당
- 필름 등
- 85mm 필름사용자용 스키닝 액세서리
- 6미용x10개
- 기타 사진자료 - 공동사용 자료, 기기만 구입

■ 조경선교팀

○기요

■장단점

○전 연령층 활동 가능, 가족단위 가능, 10-20인으로 설립가능, 30인 이상도 운

영가능.

- 회원 유입/관리 및 운영내용은 가장 쉬움
- 중량천 워주 활동시 30인 이상이라도 대형차량은 불필요 예상(1-2대로 뭉쳐
운송 가능)
- 거의 미주 또는 격주로 운영하려면, 부담부서 두어야 함.
- 평일보다는 토요일이 좋으나, 결혼식 등을 감안하면, 오전 11-12시, 오후
3-5시라야 함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중량천 조경

- 월 2-4회 (월 1-2회 일반회원+월 1-2회 교인 워주)
- 중량천 중심 활동
(예) 송로수 나눠주기, 단체체조 리드, 지역노인 자람이동 봉사

■봉사활동

- 저도부의 환경관련운동 연계 (예) 맑은샘 지킴이
- 공동 청소, 쓰레기용 미닐릭(표어부화) 나눠주기, 필요시 며/모자 제공
- 소형 천막/파라솔/커피포트, 며/모자, 엠프/호투라기/생활무전기 등 필요
- 구성 및 조직
○일부와 운영을 위한 중형 조직을 요하지만, 현지 상황으로 별도조직을 갖추는
정보다 기존 여저도회연합회 등의 지원운영이 나올 듯합니다.

○조직

-회장:

-총무: (3-5 여저도회원 중 또는 여연합에서 담당지정 권장)

○회원구성

-현지는 모집하고 있지 않으나, 모집공고하면 회원가입 희망자는 많을 것으로 보

임

○가입방법

-교구/구역을 통해 이웃을 1차 가입 유도.

-가족동반을 권유하여 2차 가입 유도.

○예산

○회비

-출결식이 밀접치 않고,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회비는 없음

수입		지출(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교통비 (교회차량으로 1-2회 운송)	-
		기타(의약, 안전용품, 기본 준비물 구입)	100,000
회비	-	대회(연말 1회, 출석상, 가입장려상 등)	800,000
기타 차조금 등	-	진행위원 식사비용 (10명×6,000원×연2회)	120,000
		기타미(음료수) 30,000×16회	480,000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 높은 음자리 선교팀

○기요

■장단점

○장년부 특히 주부 및 장노년층이 대상, 6-10인 /20-30인 이상도 운영가능.

○형식과 목적은 찬양을 배우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활거하면 5-10인의 장년찬양단으로서, 찬양 및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서 선교목적을 달성(담당 교역자 동반)

○주요사항: 선교적 행사가 많아지면, 비용일부(사전 당회승인 행사에 대한) 지원요청

○차량지원: 가끔 외부 찬양봉사이 지원필요. 임프 등은 기존 교회용 사용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경기 모임 및 활동

○활동내용: 월 2-4회 찬양 등 배우기

○저녁 예배/특별예배시 특송

■기타 활동

○외부 차조 찬양이나 봉사 찬양

○봉사내용

-새 찬송가 및 좋은 찬양 배우기(2-3부 사이 30분간)

-주변 병원(새서울, 한양대병원 등), 노인정 등의 찬양/행사차조.

○연간 3-4회 이웃을 초청하여 주민음악회를 추진함.

○구성 및 조직

○일부운영을 위해 청년/주일학교 교사/찬양대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가급적 교역자를 포함하여 리드를 하는 것이 찬양선교목적상 좋을 듯

○조직

-회장: 변현섭(겸사)

-총무: 노미란(겸사)

○일부팀/2남 추천

○예산

수입		지출 (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연회비(팀별 별도)	-		
차조금	-		
기타 회비	(별도 회비)	기타/경미, 회비, 식사미	(별도 회비)
합계	1,000,000	합계	0

■The Folkmass Donechun(동천 포크마스: 통기타 찬양동아리, 내년 연기)

Folkmass: 포크송을 부르며 제사를 드린다는 뜻의 영어단어. 즉, 포크송 찬양 밴드를 말함

○기요

■장단점

○찬양 특히, 기타 치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교인/미교인으로 밀종의 '통기타 밴드'를 구성

○사역이 아닌 밀한 취미(악기/노래) 동호회로서, 1차 목적은 기타와 노래를 배우는 것임

- 70/80 포크송, 건전가요, 동요, 가곡, 작곡 민요(요를 등)를 기타반주로 노래
- 악기 특히, 기타는 일반인에게 친숙한 악기중 하나로, 대중적이며,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

- 개인별로도 조급력은 다룰 줄 알며, 또한 관심 유관도도 높은 편.
- 미교인중 통기타밴드 활동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찬양사역을 원하면, 입교하여 교회 내 찬양관련부서(찬양대, 찬양팀 등)에 소속되어 사역을 감당하게 함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정기모임

- 활동내용: 월 2-4회 기타/만돌린/우쿨렐레/크로마 하프 등 악기와 노래 배우기.

- 봉사내용: (혹, 기회가 되면) 주변 공공단체, 노인정 등의 행사 차출출연 가능.

○운영계획

■운영

- 2007년도는 아직 구성하기 힘들 듯.

- 모임장소는 동천교회 내 제 2교육관(여정)

○악기강습

- 가끔 필요시 악기강사를 초빙하여, 찬양밴드의 궤적 향상을 도모함

- 밴드는 악기를 배우기만 할 사람은, 본 찬양밴드의 특성상 맞지 않으므로 찬양 할 사람 위주로 구성하지만,

- 악기강습은 외부에 홍보하여 지역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토록 추진

■암후 운영

- 암후 정식 밴드팀을 1-3기 조직하면 교인+주민 구성이 가능할 듯.

- 타동아리나 찬양대, 교인들, 초청가수들로 연간 3-4회 이웃을 초청하여 주민 음악회를 추진함.

○구성 및 조직

- 원루운영을 위해 청년/주일학교 교사/찬양대원들이 주축을 이루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 가급적 교역자를 포함하여 리드를 하는 것이 찬양선교목적상 좋을 듯

○조직

- 회장: 김준섭(안수)

- 총무: (겸사)

- 실무팀/2남 추천

○악기 구성

- 기타 3-5대 이상, 만돌린 2-3대 등 활현악기(기타처럼 통기는 현악기) 중심

- 밴드 즉, 쉽게 말하면 '통기타 찬양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팀 구성 및 성격(안)

- 주로 내부/외부 교인들로 결성

- i) 타동교회처럼 교인/미교인 구분 없이 노래도 일반 가요도 수용

- ii) 타동교회가 미교인도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찬양밴드이므로 초기에는

교인으로 한정

○결산 및 예산

수입		지출(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연회비(팀별 별도)	-		
차조금	-		
기타 회비	(별도 회비)	기타/정미, 회비, 식사비	(별도 회비)
합계	1,000,000	합계	0

수입		지출(2007년도)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교회지원금	1,000,000		
연회비(팀별 별도)	-		
차조금	-		
기타 회비	(별도 회비)	기타/정미, 회비, 식사비	(별도 회비)
합계	1,000,000	합계	0

2006년 6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기획위원회

부록 4

시인과 나그네선교팀 중 이집트 탐사팀 활동내역

일시: 2007년 6월 15일-6월 30일

종교: 교회주보판고화 문화센터 견단지를 통해 회원모집

안내: 여행사에서 단체 할인항공권만 구입함.

이집트 현지에서는 이슬람학을 전공한 이집트장기채류선교사(20년)가 직접 여행 일정과 숙식 및 차량설비를 담당하고, 현지 가이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르바이트 가이드를 고용(이집트 당국에서는 관광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여행팀들에게 의무적으로 5명의 가이드들을(차량, 가이드, 열어가이드, 내국인 밀한가이드, 여행사가이드) 동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천교회처럼 하면 상당한 여행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여행사 대비 50만원 이상 경비 절약).

코스: 믿을 것 곳은 타 여행을 통해서도 결코 갈 수 없는 코스이다.

① 카이로(기자 피라밋, 스펙코스, 린논석상, 고대교회들, 모카담동굴교회(이 교회는 이슬람의 학제를 피해서 산위로 떠난한 콥트 기독교인들이 바위산을 깎고 파고 들어가 만든 동굴교회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공동묘지 마을채널(약 800만의 저대인구가 사는 죽은 자의 마을)

Old 카이로지역과 지리시장, 국립박물관 견학)

② 아스완, 아부심벨 유적지.

③ 룩소르(윙가의 무덤계곡, 신전들(룩소르, 카르나, 핫셉수드), 고대귀족의 무덤들)

④ 함락산드리아(고대수도원(마카리우스) 탐방, 파로스등대, 함락산드리아 도서관, 마가교회, 함락산드리아 고대박물관 견학), 오아시스 마을채널

⑤ 바하리아 사막야영 (카이로에서 자동차로 10시간 달려서 사막으로 진입,

사막의 캄하늘과 사막의 여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신미롭고 환상적이다) 과

돌아오는 길에 오아시스 수영

⑥ 아인루사, 시나이산(거위루사) 등산, 트리킵, 키 더린수도원 탐방.

준비: 2개월 전부터 문화 및 코스에 대한 스터디(불신자들과 되도록 자주 만나며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여행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급속히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여행 후에 교회등극으로 연결되기가 수월하다)

음료 및 간식 등 공동경비는 대부분 교회에서 지원하며 불신자들에게 서비스하게 한다.

만드시 담임목사가 함께 여행해야 지도성과가 크다.

Re Union: 여행의 감동과 친분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다음 탐사 여행지를 함께 모색하고 준비하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는 후광한 구원이 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기억 기쁨의 삼학상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동현. *전자문교회 권도소그룹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 김영한. '현대위학과 탈현 대적 흐름.' *목회학 상학*. 1991년 7월호.
- _____.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신학.' *목회학 상학*. 1992년 8월호.
- _____. '21세기의 사회적 변동과 교회의 대응.' *교회학 상학*. 1996년 5월호.
- _____.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1997년 11월호.
- _____. *21세기위 개혁신학: 포스트모더니즘과 개혁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김옥동. *이합 화산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경험을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 김점옥. *급성장하는 7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신문사, 2001.
- 김정훈. '창조적 소그룹을 통한 교회기관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원, 1987.
- 류승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공동체.' *강좌과 비평*. 1997년 봄호.
- 목영희. *후현세대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4.
- 박영원. '가정 수 그룹 교회에서의 수 그룹 구조화 기능.' *복음과 실천*. 1994년.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안점식. *성경권을 문명하라*. 서울: 교이선교회출판부, 1998.
- 유경희. '소그룹활동을 통한 교회성장전략: 참천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 이문규.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전광식.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목회학 상학*. 1994년 8월호.
- 경성구. '라민주의 세계관.' *신학저널* (1992년 봄).
- 경진우. *권도소그룹이 폭발한다*.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 최이석. *이상화, 견강한 소그룹 사역 식별제 할 것인가?*. 서울: 기독신문사, 2000.

- 최정음.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론.' *호성역사사회과학연구* (1994).
- 임신대 전(초)신자 사역훈련원 편. *제 4차 새 교회 개발 컨퍼런스*, 2002.
- 하원규, 김동환, 최남희. '21세기 아젠다: 제 8공간의 등장과 전자공간의 역사.' *ET News 전자신문*. 2005년 10월 11일자.
- 홍치모. '포스트모더니즘과 신흥종교.' *칼럼 목회*. 1995년 11월호.
- 2005 한미준 한국전립리서치.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2. 번역 서적
- Altrand, Ann. *소그룹 지도를 통한 신앙훈련*. 권경부 역. 서울: 보이서사, 1986.
- Arthur, K. *위험한 성경연구방법*. 김정섭, 최복순 역. 서울: 프리셋드, 1987.
- Frazer, Randy.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The Connecting Church)*.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지앗, 2005.
- Gibbs, Eddie. *NEXT CHURCH: 미래목회의 9가지 드림*.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Green, Michael. *알파코스피의 탄생 그 이후 (After Alpha)*.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 Huizinga, Johan.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대한 한 연구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김윤수 역. 서울: 까치글방, 1998.
- Hull, Bill. *목회자가 전자상야야 교회가 산다*. 황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Hunter, Georgey.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서로사랑, 1997.
- Icenoele, Gareth Weldon.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 1997.
- Jameson, F. *포스트모더니즘론: 포스트모더니즘-후기 자본주의 문화논리*. 김정호, 강내희 역. 서울: 도서출판 더, 1989.
- _____. *포스트모더니즘과 소위사회: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김옥동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 Komiski, Joel. *소그룹 폭발*. 박영원 역. 서울: NCD, 2000.
- Kunne, Garry. *전자훈련의 시작과 진행*. 엄종오 역. 서울: 나침반사, 1986.

- MacArthur, John. *양무리 모양은 정의성*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7.
- McLaren, Brian. *저 건너편의 교회 (The Church on the Other Side)*. 이순영 역. 낮은 울타리, 2002.
- Neighbour, Ralph. *살려라*. 화영원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 Peace, Richard. *심학이 말하는 회심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김태곤 역. 서울: 좋은 지앗, 1999.
- Schwarz, Christian. *자연적 교회성장(The ABC's of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유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weet, Leonard. *형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1세기 교회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김영리 역. 서울: 좋은 지앗, 2006.
- Townbee, Arnold. *역사의 열구 II (A Study of The History)*. 강기원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9.

3. 외국 서적

- Taylor, Mark C. *Erring: A Postmodern a/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Gelder, Craie Van. "Postmodernism as an Emerging Worldvi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26, 1991.
-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2. New York: Harper & Row, 1958.
- Mazzaro, Jerome. *Postmodern American Poetr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0.
- Reeple, Mike, Mark Schulz. *The Death of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Veith, Gene Edward. *Postmodern Times: A Christian Guide to Contemporary Thought and Culture*. Wheaton: Crossway Books, 1994.
- Wesley, John. *The Character of a Methodist: The Walks of John Wesley*, vol. 8.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9.

Vita of Byung Hak Song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Dong Cheon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September 1, 1964
 Marital Status: Married to Yeon Rim Lee with 2 Sons,
 Ji Hong, Kyu Hong
 Home Address: 886, Changan 8 Dong, Dongdaemoonku
 Seoul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24, 1996.

Education:

B. A.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M. 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4
 Th. 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8

Ministerial Experience:

1/2006 to present: Senior Pastor
 of Dong Cheon Presbyterian Church, Seoul

6/2000 to 12/2005: Assistant Pastor
of Yeon Dong Presbyterian Church, Seoul

1/1998 to 5/2000: Assistant Pastor
of Whi Kyung Presbyterian Church, Seoul

1/1996 to 12/1997: Assistant Pastor
of Dong Bu 1st Presbyterian Church, Seoul